

2020년 경남교육정책 연구보고서

9권

자체연구 보고서



09

경남형 돌봄체계 구축 방안 연구(II)



경남형 돌봄체계 구축 방안 연구(II):

민-관-학 돌봄 협력모델 개발 및 협력체계 구축

연구진

연구책임자 한미영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공동연구자 강순옥 (양산초등학교)

이경민 (대감초등학교)

심세화 (소답초등학교)

정윤희 (유목초등학교)

문경화 (월영초등학교)

연구협력관 윤수영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 목 차 -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3
3. 연구방법	4
II. 이론적 고찰	6
1. 초등 돌봄공백 관련 선행연구 검토	6
2. 온종일 돌봄 정책 추진 현황 및 성과	11
3. 지역사회 중심의 초등돌봄 모델 개발 선행연구 분석	17
III. 경남 초등돌봄 수요조사 분석	25
1. 2020. 범정부 초등돌봄 수요조사 분석	25
2. 경상남도 통합교육추진단 초등돌봄 수요조사 분석	30
3. 요약 및 시사점	56
IV. 경남 초등돌봄 관련 지역 특성 분석	62
1. 초등돌봄 관련 지역 환경 분석	62
2. 초등돌봄 관련 지역자원 현황 분석	65
3. 초등돌봄 관련 시군 정책 분석	74
4. 18개 시군별 유형화 및 특성 분석	77
V. 돌봄모델 및 돌봄 협력체계 구축 방안	80
1. 민-관-학 돌봄 협력모델의 기본 방향	80
2. 지역유형별 돌봄모델 제안	81
3. 민-관-학 돌봄 협력체계 구축 방안	97
참고문헌	103
[부록 1] 진주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106
[부록 2] 함안군 다함께 돌봄 지원 조례	111
[부록 3] 2020. 범정부 초등돌봄 수요조사_18개 시군의 학년별 초등돌봄 필요 응답 인원 및 비율	115
[부록 4] 돌봄서비스 관련 활용가능한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	116

- 표 목차 -

〈표 II-1〉 온종일 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11
〈표 II-2〉 다함께돌봄사업 추진 경과	14
〈표 II-3〉 전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	15
〈표 II-4〉 경남 온종일 돌봄 현황	15
〈표 II-5〉 경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	16
〈표 II-6〉 초등 돌봄모델 개발 선행연구 분석	17
〈표 II-7〉 온종일 돌봄체계 중심의 지역 유형화	19
〈표 II-8〉 지역유형별 특성 및 민관 협력 운영 방식	20
〈표 II-9〉 지자체-학교 협업 돌봄모델	23
〈표 III-1〉 조사대상자 빈도 수(%)_범정부 수요조사	25
〈표 III-2〉 돌봄서비스 필요 여부	26
〈표 III-3〉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주된 이유	27
〈표 III-4〉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시간	28
〈표 III-5〉 희망하는 돌봄서비스 유형	28
〈표 III-6〉 조사대상자 빈도 수(%)_통합교육추진단 수요조사	30
〈표 III-7〉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시간을 보내는 장소	31
〈표 III-8〉 학교 수업이 끝난 후 돌봐주는 사람	32
〈표 III-9〉 돌봄서비스 희망 여부	33
〈표 III-10〉 돌봄서비스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	33
〈표 III-11〉 경남형 돌봄센터 희망 장소	34
〈표 III-12〉 경남형 돌봄센터 이용 시 희망하는 돌봄서비스	35
〈표 III-13〉 경남형 돌봄센터 이용 시 희망시간	36
〈표 III-14〉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돌봄기관	37
〈표 III-15〉 돌봄서비스 희망 여부	38
〈표 III-16〉 희망하는 돌봄기관	39
〈표 III-17〉 돌봄기관 희망 이유	40
〈표 III-18〉 돌봄서비스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	41

〈표 III-19〉 돌봄의 가장 중요한 가치	42
〈표 III-20〉 돌봄서비스 필요 시기	43
〈표 III-21〉 돌봄 시기별 희망시간	44
〈표 III-22〉 경남형 돌봄센터 활용 선호 장소	45
〈표 III-23〉 돌봄 인력을 도와줄 적합한 인적 자원	46
〈표 III-24〉 경남형 돌봄센터의 희망 돌봄서비스	47
〈표 III-25〉 경남형 돌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	48
〈표 III-26〉 경남형 돌봄 요구사항_내용분석	49
〈표 III-27〉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희망 공간	51
〈표 III-28〉 마을돌봄 업무 추진 시 가장 어려운 점	52
〈표 III-29〉 마을돌봄 업무 추진 시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내용분석)	53
〈표 III-30〉 마을돌봄 업무 추진을 위한 가장 우선적 지원 사항	54
〈표 III-31〉 경남형 돌봄모델 개발을 위한 의견(내용분석)	55
〈표 III-32〉 초등돌봄 수요조사 결과	56
〈표 III-33〉 경남 초등돌봄 필요 응답률_상·하위 3개 시군	57
〈표 III-34〉 경남 초등돌봄 필요 응답률_학년별 상위 5개 시군	58
〈표 IV-1〉 경남의 18개 시군별 인구 특성	63
〈표 IV-2〉 경남 18개 시군별 경제적 특성	64
〈표 IV-3〉 경남 18개 시군별 초등 공적돌봄기관 현황	66
〈표 IV-4〉 경남 18개 시군별 학교 안 가능 공간	67
〈표 IV-5〉 경남 18개 시군별 주민센터 및 도서관 수 현황	68
〈표 IV-6〉 경남 18개 시군별 돌봄 관련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_ 돌봄 프로그램 관련	70
〈표 IV-7〉 경남 18개 시군별 돌봄 관련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_ 급·간식 관련	72
〈표 IV-8〉 경남 18개 시군별 돌봄 관련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_ 이동(차량)지원 관련	73
〈표 IV-9〉 시도별 온종일 돌봄 지원 조례 제정 현황	74
〈표 IV-10〉 경남 18개 시군별 돌봄 관련 공약 현황	75

〈표 IV-11〉 경남 18개 시군 초등돌봄 관련 군집분석 결과	78
〈표 IV-12〉 군집별 주요 특성	79
〈표 V-1〉 사회적경제형 돌봄 협력모델 참여 주체별 역할	84
〈표 V-2〉 마을자원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례_경기도 오산시	85
〈표 V-3〉 사회적경제형 돌봄 협력모델의 장단점	85
〈표 V-4〉 복합센터형 돌봄모델 참여 주체별 역할	89
〈표 V-5〉 복합센터형 돌봄 협력모델의 장단점	90
〈표 V-6〉 거점형 돌봄특화 협력모델 참여 주체별 역할	93
〈표 V-7〉 거점형 돌봄특화 협력모델의 장단점	94
〈표 V-8〉 돌봄 참여 주체별 역할	101

- 그림 목차 -

[그림 II-1] 초등 돌봄공백 현황	6
[그림 II-2] 온종일 돌봄체계 확대 계획	12
[그림 II-3]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13
[그림 V-1] 돌봄 협력모델의 기본 방향	80
[그림 V-2] 사회적경제형 돌봄 협력모델	83
[그림 V-3] 복합센터형 돌봄 협력모델	88
[그림 V-4] 거점형 돌봄특화 협력모델	92

<연구요약>

경남형 돌봄체계 구축 방안 연구(II): 민-관-학 돌봄 협력모델 개발 및 협력체계 구축

본 연구는 초등 돌봄공백 해소 및 경남에 알맞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번 연구는 경남형 돌봄체계 구축 방안 연구의 2차 년도 연구로, 2019년에 수행된 1차 년도 연구에서는 경남의 돌봄 인프라 현황 분석, 학교 및 마을돌봄 기관의 초등돌봄 운영 및 협력 실태, 그리고 타 시도의 돌봄체계 구축 운영 사례조사 등을 통해 경남의 돌봄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 및 지역사회 중심의 초등돌봄 운영 방안을 모색하였다.

2차 년도 연구에서는 경남의 돌봄 수요 및 경남형 온종일 돌봄에 대한 돌봄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분석과 18개 시군별 지역 특성 및 돌봄 여건을 기초로 하여, 지역유형별 돌봄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돌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초등 돌봄공백 현황 및 돌봄공백과 아동 발달, 돌봄공백과 교육격차 발생 등 돌봄공백 관련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고, 정부의 온종일 돌봄 정책 추진 현황 및 추진 성과, 그리고 경남의 온종일 돌봄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초등돌봄모델 개발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분석하였다.

III장에서는 경남 초등돌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부의 2020학년도 범정부 초등돌봄 수요조사 자료 중 경남지역 자료를 활용하여 경남 18개 시군별 초등돌봄 수요를 분석하였다. 또한 경남 도민의 돌봄 희망 및 돌봄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지자체 돌봄 담당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경남형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돌봄모델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경남 초등돌봄 수요조사 분석을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0학년도 범정부 초등돌봄 수요조사에서 초등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합천군, 하동군 > 의령군 > 산청군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김해시 > 양산시 > 창원시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2020학년도 경남 통합교육추진단 초등돌봄 수요조사에서는 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지역은 산청군 > 합천군 > 의령군 순이었고, 반대로 낮게 나타난 지역은 김해시 > 양산시 > 창원시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군 지역은 시 지역보다 가족을 포함한 보조양육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사회적 가구(예: 맞벌이, 조손, 한부모가구 등) 비율이 더 높고, 또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한 그 밖의 다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관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초등돌봄 필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초등돌봄 수요에 따라 돌봄서비스 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군 지역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30~40대 인구와 초등학생 수가 적고 이에 따라 현재 초등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수는 시 지역에 비해 적지만, 초등 연령대 아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 인구 수 비율로 계산하면 시 지역보다 높다. 다시 말해, 돌봄서비스 공급 수준은 시 지역에 비해 높지만 군 지역의 특성상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돌봄공백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돌봄 필요 응답률이 높다고 해서 단순히 돌봄 시설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군 단위 농어촌 지역의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한 돌봄체계 및 돌봄모델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김해, 양산, 창원과 같이 비교적 젊은 도시 지역에서의 돌봄 필요 응답률이 낮게 나왔다고 해서 이 지역의 돌봄서비스 제공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 지역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인원이 가장 많고 이에 따라 초등돌봄교실을 포함한 공적 돌봄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초등학생 수도 가장 많다. 그러나 현재 돌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 지역에서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어느 정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남 초등돌봄 필요 응답률을 학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모든 학년에서 시 지역보다는 군 지역에서 돌봄 필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학년의 경우, 양산, 진주가, 2학년의 경우는 상위 5개 지역에 모두 시 지역이, 그리고 3학년의 경우 창원, 진주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창원, 김해, 양산, 진주 등과 같은 대·중규모의 도시 지역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인원이 가장 많고 이에 따라 초등돌봄교실을 포함한 공적 돌봄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초등학생 수도 가장 많은데 반해, 현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히 현재 공적 돌봄기관 이용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에서 돌봄교실 수 부족으로 이용대상을 1~2학년 대상의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 등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이용 가능 인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시 지역의 저학년 학부모들의 돌봄 필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경남형 온종일 돌봄 요구조사 분석을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돌봄에서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 할 수 있다. 즉 초등돌봄에서 안전에 대한 요구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실시간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설치나 아동 입·출입 시 문자알림서비스 등 자녀의 실시간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상해의 위험이 적은 공간, 안전한 먹거리, 안전한 귀가 지원 등과 같이, 물리적, 신체적 안전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적인 돌봄은 교육이나 체험의 콘텐츠보다 돌봄 관계를 맺는 두 사람 간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때 관계의 질적 경험은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남형 온종일 돌봄에서는 아동의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돌봄교사들의 따뜻한 보살핌 및 관심과 사랑을 통한 정서적 안정도 함께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돌봄 운영시간 측면에서 운영시간 연장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이용시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들은 학기 중의 운영시간뿐만 아니라 방학돌봄이나 갑자기 발생하게 되는 긴급돌봄 등과 같이 돌봄이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운영시간 확대를 희망하였다.

셋째, 돌봄 콘텐츠 측면에서 학습뿐만 아니라 놀이와 쉼 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돌봄 콘텐츠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학부모들은 돌봄을 통해 자녀들의 안전한 보호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다양한 체험활동이나 놀이와 같은 자녀들의 발달 및 성장을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 지역의 학부모들은 지역의 환경적 제약에 따라 다양한 놀이 및 휴식 문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이를 통해 경남형 온종일 돌봄은 안전을 기본으로 하면서 아동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및 놀이와 쉼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돌봄 공간 측면에서 아동의 이동과 접근이 쉽고 또 놀이와 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초등돌봄의 특성상 돌봄 공간의 위치는 학교나 집에서 먼 경우 돌봄 공간으로서의 적합성이 떨어진다. 또한 기존의 돌봄기관들이 아동의 안전을 위해 아동의 놀이나 활동을 제약하는 공간으로 이루어졌다면, 경

남형 돌봄 공간은 아이들이 쉬고 놀 수 있을 정도의 일정 면적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돌봄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다양한 마을 공간(예: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작은 도서관이나 북카페, 주민센터, 마을회관,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활용함으로써, 마을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민 간의 네트워크 및 교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급·간식과 관련하여 양질의 간식과 식사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학부모들은 간식의 양과 질, 평일 저녁식사 및 방학 중 점심식사 제공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학 중 돌봄에서 점심식사가 제공되기를 희망하는 요구가 많았다. 따라서 아이들이 부모가 없는 동안 밖에서 양질의 간식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간과 인적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자체 돌봄업무 담당자들은 온종일 돌봄 업무 추진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공간 확보의 어려움 및 업무과중을 들었다. 따라서 지역사회 기반의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의 공공성 있는 공간 및 시설을 기반으로 지역 내 인적 자원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IV장에서는 경남 18개 시군별 초등돌봄 관련 지역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을 유형화한 후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경남 18개 시군을 유형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8개 시군별 인구 및 경제적 특성, 초등돌봄 수요와 공급, 돌봄 관련 활용 가능한 자원 등 지역 특성 변수들을 토대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3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으며 군집별 주요 특성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원시 단독으로 묶인 군집1은 경남 내 인구 수 및 30~40대 여성 인구 수, 그리고 초등학생 수가 가장 많은 대도시 유형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초등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수 역시 가장 많고, 2020년 범정부 돌봄 수요조사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인원도 가장 많다. 그러나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인원의 비율로 살펴보면, 돌봄 필요 비율 및 사회적 돌봄가구(예: 맞벌이, 한부모, 조손가구 등) 비율은 가장 적다. 또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인원 대비 각 돌봄기관(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돌봄 수용 예정 인원으로 본 공적돌봄 수용률도 낮은 편에 속한다. 결국 군집1 지역은 초등돌봄 필요 인원과 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자원(예: 잠재적 유휴교실, 작은 도서관, 사회적경제 기업 등)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많지만, 현재의 공적돌봄 제공으로는 돌봄 수요가 충족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군집1 지역의 경우 추가적인 돌봄 공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교 유휴공간이나 지역 공공시설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추가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영, 사천, 밀양의 3개의 시 지역과 10개의 군 지역으로 묶인 군집3은 군집1과는 어느 정도 상반되는 농어촌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군집3에 속하는 지역은 인구 수 및 30~40대 여성 인구 수, 초등학생 수가 가장 적고, 그에 따라 초등돌봄교실 및 지역 아동센터 이용자 수도 가장 적다. 반면, 2020년 범정부 돌봄 수요조사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과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구 형태에 속하는 비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군집3 지역은 학생 수 감소로 초등돌봄이 필요한 인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공적돌봄 공급 수준은 높으나, 기초생활보장 수급 및 사회적 돌봄가구 비율이 높고 또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도 최고이다. 동시에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등돌봄을 필요로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군집3 지역의 경우는 농어촌 지역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단순히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확대보다는 돌봄기관의 접근성 및 이동성 측면을 고려한 돌봄체계 구축 및 돌봄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진주, 김해, 거제, 양산의 4개 지역이 묶인 군집2는 시군 평균 연령 및 2030년 초등학생 수 감소 추계 비율이 가장 낮은 경남에서 가장 젊은 중소도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군집2는 군집1 다음으로 인구 수 및 초등학생 수가 많고, 이에 따라 초등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수도 2번째로 많다. 그러나 군집1과 비슷하게 초등돌봄 필요 비율 및 사회적 돌봄가구 비율이 낮고, 무엇보다도 공적돌봄 수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다. 즉 군집1과 마찬가지로, 군집2 지역도 현재의 학교 및 마을돌봄 기관으로는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가적인 돌봄서비스 공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군집2 지역의 경우, 군집1 다음으로 인구 수 및 초등학생 수가 많고 또 향후 초등학생 수 감소 비율이 가장 적은 젊은 도시이면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요자의 다양한 돌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V장에서는 경남형 돌봄모델 개발을 위한 학생, 학부모, 지자체 담당자들의 요구 및

경남 18개 시군별 유형화 및 특성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민-관-학 돌봄 협력모델 및 돌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민-관-학 돌봄 협력모델을 제안하기 전에 본 연구에서는 돌봄 협력모델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민-관-학 돌봄 협력모델 개발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한 요인은 학교의 지역사회 활용 측면에서 돌봄 공간으로 ‘학교 공간을 우선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학교는 지역과 단절된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심기관이며, 초등돌봄에서 학부모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전’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돌봄 공간으로 학부모들이 가장 신뢰하고 선호하는 공간은 학교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또한 지역 내 돌봄 공간으로 새로운 공간 및 시설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학교 유휴공간 활용을 주목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인구 감소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교 안 유휴교실 및 공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학교 안 공간을 활용하여 초등돌봄 기능을 강화하거나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반대로, 학생 수 과밀로 학교 안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한 대도시 지역의 경우는 일차적으로 활용가능한 학교 공간이 있다면 학교 안 공간을 활용하여 초등돌봄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만, 학교 밖 공간을 활용해야 할 경우에는 돌봄 활용이 가능한 지역사회의 공간을 확보하여 학교 밖 돌봄을 운영할 수 있다.

둘째, 학교와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온종일 돌봄 정책에 기초하여, 방과후 활동 및 돌봄을 위해 지역 내 활용가능한 인적·물적 자원 여부를 고려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방과후 활동 및 돌봄을 위해 동원가능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반대로 지역사회 내 활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대도시의 경우에는 민간(단체)의 전문성 및 조직 간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다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돌봄 협력모델의 기본 방향에 따라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지역 유형에 맞는 세 가지 유형의 돌봄 협력모델을 제안하였다.

첫째, 창원과 같은 대도시 지역에 속하는 군집1은 공적돌봄 공급 수준이 낮아 지역 중심의 돌봄 수요가 높고, 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 및 물적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이다. 따라서 군집1 지역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민간단체나 기관이 주도하고 지자체와 교육청(학교)이 협력하여 돌봄을 운영하는 사회적경제형 돌봄 협력모델을 제안하였다. 사회적경제형 돌봄 협력모델에서는 학교에 활용가능한 유휴공간(예: 유휴교실, 도서관 등)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학교 안 공간을 돌봄 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으나, 학교 안의 유휴공간이 없을 때에는 지자체 소속의 주민센터나 복지관, 공공도서관이나 아파트 내 유휴공간 등과 같은 학교 밖의 마을 공간을 돌봄 공간으로 활용한다(모델 1: 사회적경제형 돌봄 협력모델 참고).

둘째, 진주, 김해, 거제, 양산과 같은 중소도시 지역에 속하는 군집2 지역은 경남에서 공적 돌봄수용률이 가장 낮아 돌봄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또한 경남에서 인구소멸 위험지수가 가장 낮고 향후 초등학생 수 감소 비율도 가장 낮은 젊은 중소도시이다. 즉 초등돌봄 수요가 많아 학교 안 돌봄 공간이 부족하고, 아직 주변의 기반 시설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이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에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초등돌봄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이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복합센터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에 군집2 지역에는 복합센터형 돌봄 협력모델을 제안하였다(모델 2: 복합센터형 돌봄 협력모델 참고).

셋째, 농어촌 지역에 속하는 군집3 지역은 돌봄서비스 공급 수준은 도시 지역에 비해 높으나 돌봄 수요가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시설 접근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돌봄공백이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다. 또한 지역 내 초등돌봄교실이나 지역 아동센터를 제외하고는 초등돌봄을 위해 동원가능한 유관서비스 기관 및 인적 자원이 부족한 특징을 가진다. 군집3과 같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 및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 내 돌봄 관련 인적 자원 및 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자체 또는 공적 돌봄서비스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지역에서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학교 밖 돌봄 공간을 마련하기보다는 기존의 공적 돌봄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일정 시설인 초등학교 돌봄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군집3 지역에는 대표적인 공적 돌봄기관인 초등학교나 지역아동센터를 거점으로 하여 지자체가 돌봄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방식인 거점형 돌봄특화 협력모델을 제안하였다(모델 3: 거점형 돌봄특화 협력모델 참고).

마지막으로, 초등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다양한 학부모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민-관-학 돌봄 협력체계 구축 방안으로 ① 온종일 돌봄 조례 제정, ② 지자체 내 돌봄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 배치, ③ 학교시설 개방 및 공유에 따른 법적 제도화 및 혜택 제공, ④ 돌봄 참여 주체별 역할 규정 및 책임 분담, ⑤ 민·관·학 돌봄 상시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제언하였다.

모델 1: 사회적경제형 돌봄 협력모델

<p>모형</p>	
<p>운영 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재원과 민간의 인력이 협업하여 돌봄을 운영하는 방식 ▪ 학교 안 공간 또는 학교 밖 공간에서 민(예: 사회적협동조합, 학부모 협동조합, 마을학교 등)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 센터를 운영하는 형태 ▪ 민이 전반적인 돌봄 운영을 책임지고, 지자체와 교육청은 돌봄 예산을 지원하는 민주도-관지원의 돌봄운영 방식
<p>장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내 협동과 연대, 참여에 기반한 협력형 초등돌봄 모델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 제공 ▪ 마을공동체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 교원의 돌봄 업무경감 및 교육청 예산 절감
<p>단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의 돌봄 역량에 따른 돌봄서비스의 질 차이 발생 ▪ 지역 내 돌봄 네트워크 구축 및 확보의 어려움 ▪ 수익자 부담이 커질 우려

모델 2: 복합센터형 돌봄 협력모델

<p>운영 모델</p>	
<p>운영 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가 설립한 다기능복합센터에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식 ▪ 다기능복합센터에는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 공간뿐만 아니라 공동육아시설, 도서관, 청소년문화시설, 마을카페 등 다양한 복합문화시설 설치·운영
<p>장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민 대상의 복합커뮤니티 공간 제공 ▪ 센터 내 기관 간의 연계 및 협력 용이 ▪ 다양하고 질 높은 돌봄 프로그램 제공 가능 ▪ 지자체 예산 운영의 효율성 ▪ 마을 인력 활용 가능
<p>단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설치 예산 및 센터 관리 부담 ▪ 돌봄 이용대상자 제한적(센터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아동 이용 어려움) ▪ 학생 이동의 안전성 문제

모델 3: 거점형 돌봄특화 협력모델

<p>운영 모델</p>	
<p>운영 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적인 공적 돌봄기관인 초등학교나 지역아동센터를 거점으로 하여 지자체가 돌봄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방식
<p>장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공간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학생들의 적응도 및 학부모 신뢰도 높음 ▪ 학교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 연계 활동 가능 ▪ 돌봄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가능(아동복지 원스톱 서비스 센터 기능)
<p>단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예산 확보 ▪ 거점형 학교나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 및 안전상의 문제 ▪ 거점형 인근학교 학생들의 이질감(예: 심리적 위축감) ▪ 학교장과 교직원의 협조 및 지원 필요(중간의 매개자 역할 필요)
<p>운영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홍성군 홍주초(거점형) 방과후돌봄센터 운영 ▪ 울산 울주군 언양초 내 '여럿이함께 지역아동센터' 운영 ▪ 수원 서호초 내 수원시립서호지역아동센터(공립형) 운영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금까지 우리나라 돌봄 정책은 영유아 중심으로 이루어져 초등학생은 상대적으로 돌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2018년 현재 초등돌봄 이용 현황은 1~6학년 기준 12.5%로,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포함한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은 영유아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29.4%, 2학년 24.4%로 돌봄이 요구되는 초등 1, 2학년을 기준으로 해도 30%에 미달하는 수준이다(김근진·박은정, 2019).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과 함께 워킹맘의 자기 일에 대한 갈등과 어려움이 극명하게 표출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정규교육과정은 1시 또는 2시에 끝나는 반면 영유아기 때처럼 종일반 돌봄은 제공되지 않는다. 수업시간과 돌봄시간 간 차이는 결과적으로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학생들의 방과후 돌봄공백 가능성을 높이며, 맞벌이 가정은 이러한 돌봄공백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임혜정, 2017). 이러한 어려움은 기혼여성들의 경력단절 발생, 나홀로 방임아동 증가, 사교육비 증가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김영란 외(2018)의 연구에 따르면, 학기 중 평일에 초등학생 자녀가 보호자 없이 혼자 지내는 시간은 146분으로 고학년이 될수록 또 가정의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 혼자 지내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기 아동 보육과 마찬가지로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보호자 없이 나홀로 보내는 시간이 2시간 이상이라는 점에서 방과후 안전한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 지역보다는 농어촌 지역 아동들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채정, 2016). 특히 군단위 농어촌 지역의 경우 방과후학교 활동비 지원으로 방과후학교뿐만 아니라 돌봄교실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군지역의 특성상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의 한계로 인해 도시 지역과의 돌봄서

비스 격차도 발생하고 있다(한미영 외, 2019). 이는 농어촌이라는 지역적 불리함이 정책적 지원을 통해 보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역별 돌봄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한편, 범정부 차원의 온종일 돌봄 정책에 따라 공급자 중심의 파편적이고,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이라는 기존 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생태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의 돌봄 수요와 공급, 그리고 자원을 분석하여 지역 상황 및 여건에 적합한 돌봄모델을 유형화하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남승연·이경민, 2019).

경남에서도 2019년 지역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이 업무협약을 맺고 통합교육추진단을 도지사 직속기구로 신설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 만들기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경남형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기반으로 한 면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즉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확한 돌봄수요 분석과 지역 내 돌봄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먼저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돌봄모델 전달체계 구축 및 세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를 포함한 학교돌봄, 마을돌봄 및 유관기관 현장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보 공유를 통해 각 기관이 상생하는 돌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임지훈, 2019).

본 연구는 초등 돌봄공백 해소 및 경남에 알맞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번 연구는 경남형 돌봄체계 구축 방안 연구의 2차년도 연구로, 2019년에 수행된 1차년도 연구에서는 경남의 돌봄 인프라 현황 분석, 학교 및 마을돌봄 기관의 초등돌봄 운영 및 협력 실태, 그리고 타 시도의 돌봄체계 구축 운영 사례조사 등을 통해 경남의 돌봄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 및 지역사회 중심의 초등돌봄 운영 방안을 모색하였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경남의 돌봄 수요 및 경남형 온종일 돌봄에 대한 돌봄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분석과 18개 시군별 지역 특성 및 돌봄 여건을 기초로 하여, 지역유형별 돌봄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돌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2. 연구내용

가. 경남 초등돌봄 수요 및 요구 분석

2020학년도 범정부 초등돌봄(경남지역) 수요조사 및 2019년 경상남도 통합교육 추진단의 초등돌봄 수요조사를 분석하여, 18개 시군별 초등돌봄 수요를 파악하였다. 또한 경남형 온종일 돌봄에 대한 학부모 및 지자체 돌봄 담당자들의 요구를 분석하였다.

나. 경남 초등돌봄 관련 지역 특성 분석

경남에 알맞은 돌봄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18개 시군별 초등돌봄 관련 지역 환경 및 지역자원 현황, 초등돌봄 관련 시군 정책을 분석하였다.

다. 경남 18개 시군 특성에 따른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 분석

18개 시군별 인구 및 경제적 특성, 초등돌봄 수요 및 공급, 돌봄 관련 활용가능한 자원 등 지역 특성을 기초로 하여, 지역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라. 돌봄모델 개발 및 돌봄 협력체계 구축 방안

경남 돌봄 수요 및 온종일 돌봄에 대한 돌봄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분석, 18개 시군별 유형화 및 특성 분석을 토대로, 민-관-학 돌봄 협력모델의 기본 방향 및 지역유형별 돌봄모델을 제안하였다. 또한 민-관-학 돌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초등 돌봄공백 현황 및 정부의 온종일 돌봄 정책 추진 동향을 분석하고, 초등돌봄공백의 사회적 영향 및 지역사회 중심의 초등 돌봄모델과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들을 검토·분석하였다.

또한 경남 18개 시군별로 지역 특성 및 돌봄 관련 자원 현황, 돌봄 정책 등을 파악하기 위해, 초등돌봄 관련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나. 2차자료 분석

경남의 초등돌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범정부 초등돌봄 수요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20학년도 범정부 초등돌봄 수요조사 자료 중 경남지역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경남 18개 시군별 초등돌봄 수요를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경남 도민의 돌봄 희망 및 돌봄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지자체 돌봄 담당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경남의 18개 시군별 초등돌봄 수요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및 지자체 담당자들의 온종일 돌봄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였다.

다. 전화면담조사

경남에 알맞은 돌봄체계 구축 및 돌봄모델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타시도 온종일 돌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전화면담조사 및 서면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면담조사 대상자는 1차 년도 연구의 사례조사를 통해 지역(마을)의 다양한 인적 자원과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기반의 돌봄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4개 지자체(서울 J구, 경기 S시, 경기 O시, 충남 H군)의 온종일 돌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내용은 지자체 돌봄체계 추진 과정, 지자체 주도의 온종일 돌봄 운영상의 애로사항 및 지원 요구사항, 교육청, 지자체, 학교, 지역사회의 역할 등이다. 조사내용을 중심으로 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수렴하였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추가 의견 및 관련 자료들을 제공받았다.

라. 전문가 협의회 및 자문회의

지역유형별 돌봄모델(안)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자문을 얻기 위해, 전문가 협의회 및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초등 돌봄공백 관련 선행연구 검토

가. 초등 돌봄공백 현황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따라 맞벌이 가구의 초등학생 돌봄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공적 돌봄서비스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2019년 기준 전국 초등학생 275만 명 중, 14.2%인 39만 명이 돌봄서비스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이 73.3%,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 및 지역아동센터가 25.3%,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1.4%를 차지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9.11.18.).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초등돌봄교실이지만, 초등돌봄교실은 [그림 II-1]과 같이 운영시간을 오후 5시까지로 한정하다 보니 5시부터 보호자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돌봄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 전의 어린이집은 일반적으로 오전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운영하는 데 반해, 초등학교의 정규 수업시간은 일반적으로 오전 9시에 등교하여 저학년은 1시, 고학년은 3시면 종료한다. 물론, 방과후 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동은 오후 5시까지 일부 돌봄공백을 메울 수 있다.



[그림 II-1] 초등 돌봄공백 현황

출처: 남승연 · 이경민(2019). 경기도형 돌봄체계 구축 방안. P. 9.

그러나 취학 전과 비교하여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등교 전의 대략 1시간(7:30~8:30), 수업 종료 후 최소 2시간 30분(17:00~19:30)에서 최대 6시간 30분(13:00~19:30)까지의 돌봄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남승연·이경민, 2019). 이러한 돌봄공백을 메우기 위해 초등돌봄교실 이용 후에 다른 돌봄 장소로 옮겨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거나 학원 등을 이용해야 하는 소위 ‘학원 뺑뺑이’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정영모, 2019).

실례로, 김영란 외(2018)의 초등학생 방과후 시간 이용 실태에 따르면, 12시 이후부터 16시 시간대에 맞벌이는 초등돌봄교실 이용 비중과 조부모 및 친인척 비중이 높은 반면, 비맞벌이는 학원 다음으로 부모의 비중이 높다. 또 15시 30분 시간대까지는 맞벌이 여부에 무관하게 학원 이용 비중이 높고, 이후 시간대에는 맞벌이인 경우에만 학원 이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인 경우 학원이 돌봄공백 해결을 위한 보완적 방안으로 활용됨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방과후 ‘혼자있음’의 비중은 맞벌이인 경우 비맞벌이보다 높는데, 대체로 17시 30분에서 18시까지가 가장 높고, 그 외 16시 30분에서 17시까지, 18시에서 18시 30분까지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퇴근시간 대에 아동 혼자 있는 비중이 높은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온종일 돌봄정책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공적 돌봄서비스 확대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학교돌봄 10만 명, 마을돌봄 10만 명을 추가하여 2022년까지 돌봄 수혜 아동을 총 53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돌봄 이용대상 및 운영시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온종일 돌봄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맞벌이 가구 학부모들의 돌봄 수요 및 돌봄서비스 운영시간 연장에 대한 요구는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초등 돌봄공백의 영향

1) 돌봄공백과 아동 발달

초등학교 시기는 발달단계 상 방과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교육적 기회의 향유 정도가 크게 달라지는 시기이다(Gootman & Smolensky, 2003; 임혜정, 2017에서 재인용).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발달단계 상 심리적 부적응이나 위험 상황

에 놓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학년 시기 방과후 돌봄의 형태나 활동 경험은 이후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Posner & Vandell, 1994).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방과후 돌봄공백의 결과는 아동 발달의 다양한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봉주·조미라, 2011; 임혜정, 2017; 김선숙·임세희, 2018). 성인의 적절한 보호나 지도·감독 없이 보내는 시간이 많은 아동들의 경우 방과후 시간을 아동 발달에 긍정적인 방식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TV 시청이나 과도한 인터넷 사용 등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학령전기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김선숙·임세희, 2018). 특히 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컴퓨터나 게임기를 가지고 노는 시간, TV 프로그램이나 비디오를 시청하는 등의 아동의 소극적 여가시간이 긴 반면, 가구소득이 높으면 학교 밖 학업시간이 길고 여가시간 중 소극적 여가시간으로 보내는 시간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정혜지, 2016).

방과후에 책임있는 성인의 보호와 지도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동의 학습, 정서, 사회성 등의 영역에서 적절한 발달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이라 할 수 있다(이봉주·조미라, 2011). 실제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경험한 돌봄공백은 아동의 학교적응이나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방과후 돌봄공백이 학습활동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방과후 방치가 중학교 시기 학업성취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성식, 2012; 이봉주·조미라, 2011).

또한 성인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돌봄 없이 아동 홀로 있게 되는 돌봄공백 상황은 아동들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뿐만 아니라 비행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임혜정, 2017). Shumow 외(2009)는 방과후 방치가 학업성취도와 학교에서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방치 정도가 심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낮고 학교에서의 문제행동을 더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윤수경(2011)은 초등학교 고학년의 방과후 돌봄공백이 아동의 외현화 및 내면화 문제행동에 부정적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2) 돌봄공백과 교육격차

돌봄공백 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머니의 경제활동이지만, 맞벌이 가정의 경우라도 어머니의 교육 수준에 따라 교육격차를 유발하는 돌봄 환경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임혜정, 2017). 고학력, 고소득 취업모 가정의 경우 성평등 의식이 높고, 아버지의 돌봄 참여 시간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국내 유자녀 부부의 돌봄 시간을 분석한 결과, 고학력 부부는 저학력 부부보다 자녀들과 하루 평균 약 100분이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노혜진, 2014). 즉 고학력 취업모는 제한된 가용 시간을 활용하여 자녀에게 좀 더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돌봄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제한되어 자녀가 방과후 돌봄공백을 경험하기 쉬운 맞벌이 가정이라 할지라도 어머니 교육수준이 높으면 자녀의 방과후 돌봄공백이 질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취업모의 교육 수준에 따라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학력 취업모 집단의 경우 다른 활동과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64.9%로 높은 반면, 고졸 취업모 집단에서는 1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노성향, 2012). 이러한 결과는 고학력 취업모와 달리 저학력 취업모 가정의 경우는 자녀의 방과후 활동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제한적임을 말해준다.

한편, 방과후 방임아동(또는 나홀로 아동)에 대한 방과후 프로그램 등의 정책적 개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에 따르면, 방과후 지원 서비스는 방과후 방치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러한 긍정적 상쇄 효과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Lord & Mahoney, 2007; Posner & Vandell, 1994).

Lord와 Mahoney(2007)는 지역 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방치 아동이라도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Posner와 Vandell(1994) 역시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방과후 돌봄 유형을 공적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어머니의 돌봄, 비공식적인 기타 성인의 돌봄, 방치(나홀로 돌봄)의 4가지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속한 아동들의 시간 활용을 분석하여 돌봄 유형과 아동의 학업성취도 및 정서상의 문제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적 방과후 지원 서비스를 받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공부 시간이 긴 반면, TV 시청이나 성인의 지도·감독 없이 지내는 시간이 짧았으며, 이러한 시간 활용과 아동의 학업성취도 및 정서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저소득가구 아동의 경우 공적 방과후 지원 서비스를 받은 아동은 방치 아동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기타 성

인의 돌봄을 받은 아동이나 가정 내에서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아동보다 학업성취도가 더 높고, 정서상의 문제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방과후 돌봄공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정의 배경 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돌봄 여건의 격차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특히 가정 배경으로 인한 교육투자의 양적, 질적 차이는 방과후에 더 크게 나타나고, 이로 인한 교육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초등 돌봄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적 개입은 가정 배경으로 인해 야기되는 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 할 수 있다(임혜정, 2017).

더 나아가, 방과후 돌봄공백 문제 해결을 통해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물리적 공백 시간을 메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즉 돌봄 환경의 물리적 공백 뿐만 아니라 질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김영란 등(2018)의 초등학생 돌봄실태 조사에 따르면,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돌봄서비스의 질에 믿음이 가지 않아서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공적 돌봄서비스가 확대되더라도 학부모의 학원비 부담은 감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돌봄서비스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 또한 함께 개선될 필요가 있다.

2. 온종일 돌봄 정책 추진 현황 및 성과

가. 온종일 돌봄 정책 추진 현황

정부는 학교-지자체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초등학생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온종일 돌봄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II-1〉과 같이, 2019년 4월 기준 돌봄서비스는 대략 초등돌봄교실 6,000천 개, 29만 명, 다함께돌봄 및 지역아동센터 4,000천 개, 10만 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백 개, 5천 명 등 1만 개 시설에서 39만 명이 이용 중에 있다(관계부처합동, 2019.11.18.).

〈표 II-1〉 온종일 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2019년 4월 기준)

부처	서비스			사업 목적
	명칭	운영(개)	이용(명)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6,117교(13,910실)	290,358	초등학생 대상 돌봄제공
복지부	다함께돌봄	55	1,491	지역기반 복지 강화
	지역아동센터	4,207(초등)	98,918(초등)	취약계층 복지 지원
여가부	방과후아카데미	279(초등)	5,384(초등)	청소년 복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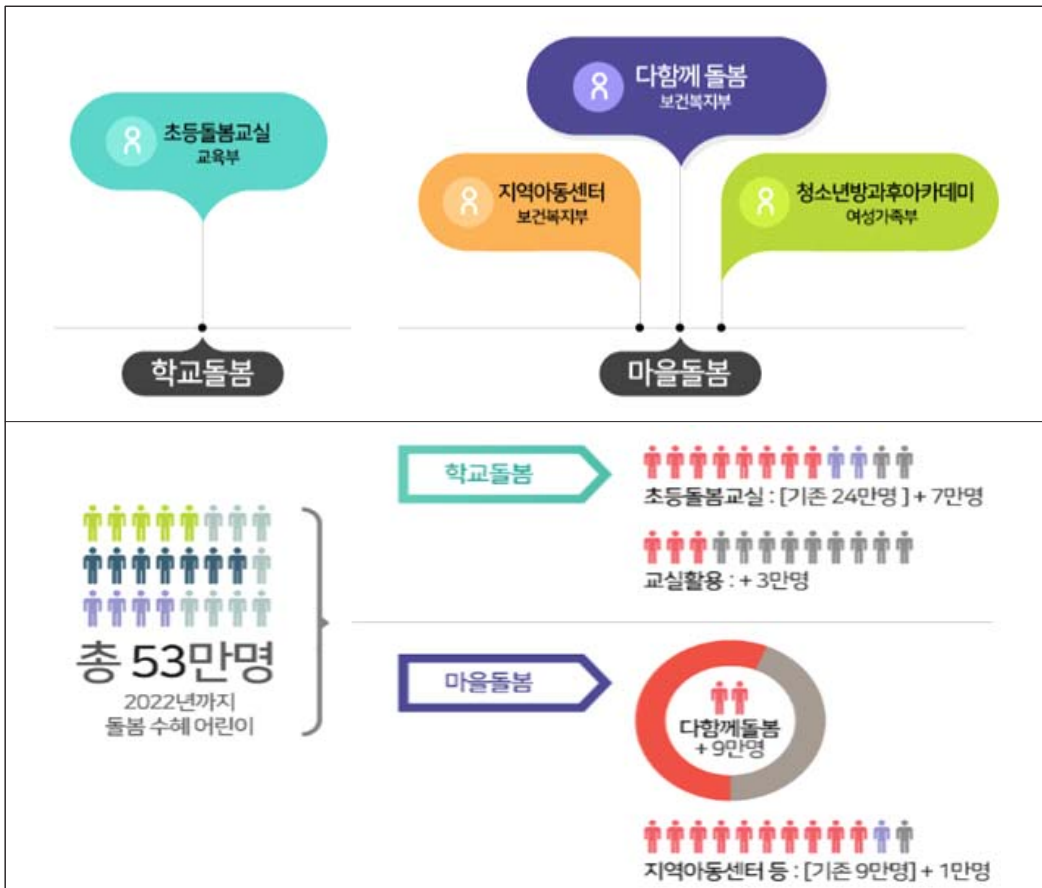
출처: 관계부처합동(2019.11.18.).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제공 추진계획.

2020년 정부의 온종일 돌봄 정책 세부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첫째, 방과후 돌봄을 위해 관련 시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에서 검색과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에는 초등돌봄교실(교육부),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성가족부) 등 4가지 돌봄서비스가 포함된다.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조건에 맞는 돌봄시설을 볼 수 있고,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지역 내 다른 돌봄시설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

둘째, 2020년 초등돌봄교실을 700실 확충하여 약 30만 명에게 돌봄을 제공한다. 또한 총 1,700여 실을 돌봄교실 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일과 중 다양한 수업 방식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간 분리 등 교실 디자인 개선 및 방과후 놀이와 쉼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돌봄 공간으로 활용한다.

셋째, 마을돌봄을 확대한다. 다함께돌봄은 2020년 550개 추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을 30개소 확대하여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전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확대 운영하여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온종일 돌봄 정책을 꾸준히 이행하여,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학교돌봄 및 마을돌봄을 확충하여 보편적 돌봄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림 II-2]와 같이, 학교돌봄은 초등돌봄교실(7만 확대)과 초등학교 내 활용가능교실을 이용(3만 확대)하여 총 34만 명에게 돌봄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을돌봄은 다함께돌봄사업 확대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총 19만 명에게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림 II-2] 온종일 돌봄체계 확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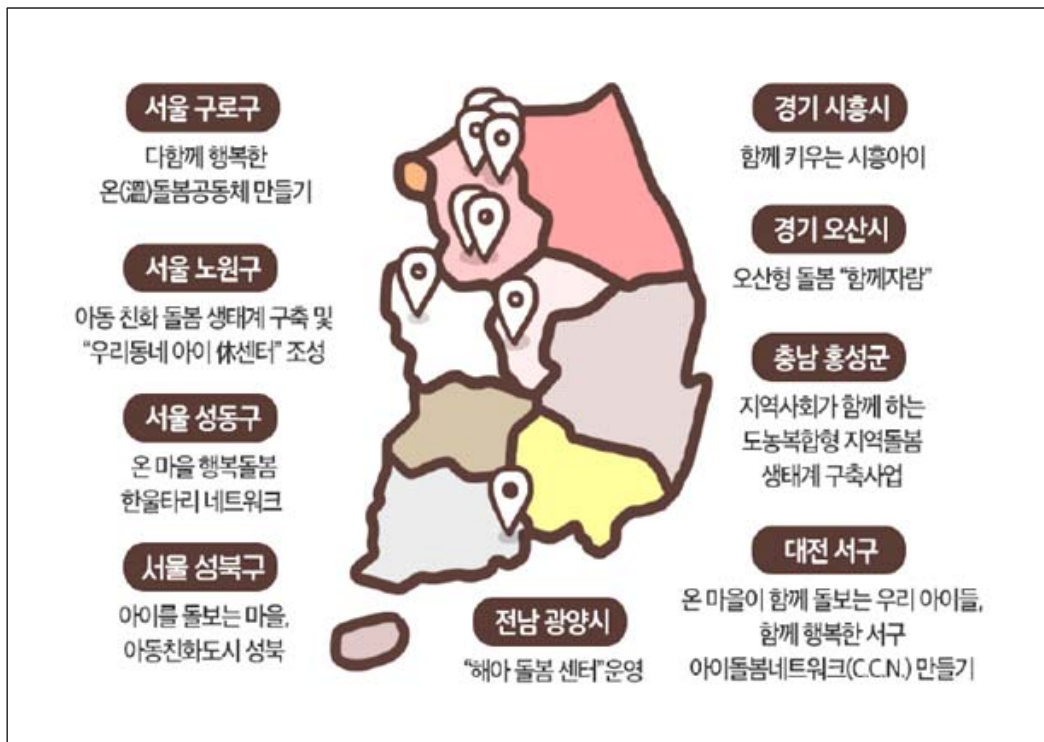
출처: 다함께돌봄사업 홈페이지(<https://dadol.or.kr>)

나. 온종일 돌봄 정책 추진 성과

1)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정부는 온종일 돌봄 정책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이하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을 수립하여 [그림 II-3]과 같이 9개 지자체를 선정·운영하고 있다.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지역을 지원하고 모범사례로 발전시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한미영 외, 2019). 정부는 선도사업을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지역 모델을 발굴하여 모든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그림 II-3]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출처: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 홈페이지. 온종일 돌봄 정책 카드뉴스 4편[선도사업 소개]

2019년 선도사업 9개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 및 성과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우수사례 지역들의 주요 특징들을 보고하였다. 우수 지자체의 우수한 내용으로는 첫째, 지자체장의 의지가 강하고 온종일 돌봄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조례 제정 및 지역돌봄협의회(광역, 기초, 마을돌봄협의회 등)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셋째, 돌봄 수요조사 결과를 통해 돌봄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급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넷째,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력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 다섯째,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돌봄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여섯째,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활용과 이를 연계한 돌봄 생태계 구축이 잘 되어 있다(장명림 외, 2020).

2) 다함께돌봄사업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및 학교-지자체 협력을 통한 빈틈없는 돌봄 체계 구현을 위해, 2018년 관계부처합동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과 함께 정부가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사업이다.

다함께돌봄사업은 지역사회 여건 및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틈새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다함께돌봄사업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II-2>와 같다.

<표 II-2> 다함께돌봄사업 추진 경과

연도	내용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함께돌봄 시범사업’ 10개소 실시(행안부-복지부 공동 공모사업, '17.7월)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 합동 온종일돌봄 정책 발표('18.4월) ▪ '18년 다함께돌봄센터 17개소 설치·운영(' 18.12월 기준)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관련 「아동복지법」 개정('19.1월) ▪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 발족('19.1월) ▪ '19년 다함께돌봄센터 173개소 설치·운영('19.12월 기준)

또한 다함께돌봄센터는 2017년 1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이래 매년 확대되어, <표 II-3>에 제시한 것과 같이 2019년 12월 기준 현재 173개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1,800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표 II-3> 전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

(2019.12월 말 기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계	
다함께 돌봄센터 수	60	8	1	4	2	2	6	3	30	11	9	4	12	7	7	7	-	173

다. 경남의 온종일 돌봄 현황

경남의 온종일 돌봄 현황을 살펴보면(<표 II-4> 참조), 2019년 기준 초등돌봄교실 874실, 20,313명, 지역아동센터 266개소, 6,207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1개소, 495명,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 165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 경남 온종일 돌봄 현황

(2019년 기준)

명칭		운영(개)	이용(명)
학교돌봄	초등돌봄교실	512교(874실)	20,313
마을돌봄	지역아동센터	266	6,207(초등)
	방과후아카데미	21	495(초등)
	다함께돌봄센터	7	165

출처: 경남형 아이돌봄모델 개발 보고서(내부자료).

다함께돌봄센터는 2020년 7월 기준으로 3개소가 더 신설되어 <표 II-5>와 같이 10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이 가운데 진주시가 4개소로 가장 많다. 진주시는 경남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2020년 4월 「진주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부록 1> 참조), 선제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표 II-5〉 경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

(2020년 7월 기준)

연번	시군	센터명	운영유형	수용인원 (정원)	개소일자
1	창원시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직영	20	19.05.13.
2	진주시	진주시 가좌다함께돌봄센터	위탁	20	19.04.25.
3		진주시 충무공다함께돌봄센터	위탁	50	19.07.10.
4		진주시 평거다함께돌봄센터	위탁	20	19.06.26.
5		진주시 초장다함께돌봄센터	위탁	21	20.07.10
6		통영시	통영시 다함께돌봄 도천동센터	위탁	22
7	거제시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위탁	20	20.04.16.
8	창녕군	창녕군 또바기돌봄센터 1호점	직영	15	18.02.05.
9		창녕군 또바기돌봄센터 2호점	직영	20	18.12.24.
10	함안군	함안군 다함께돌봄센터	직영	20	19.10.01.

또한 함안군에서도 「함안군 다함께 돌봄 지원 조례」(2020.5.12. 제정)를 제정하고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부록 2〉참조).

3. 지역사회 중심의 초등 돌봄모델 개발 선행연구 분석

초등 돌봄사업은 운영주체, 지역특성, 위탁형태 등 다각적인 맥락에 의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초등 돌봄모델은 주요한 구분 요소를 무엇으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모델 구분이 달라질 수 있다(김은정 외,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 II-6>에 제시한 지역사회 중심의 초등 돌봄모델과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각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들을 고찰하였다.

<표 II-6> 초등 돌봄모델 개발 선행연구 분석

연구자	모델화 목적	모델 세부내용
이희현 외 (2018)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사례 분석 모형 개발 및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성(돌봄수요와 활용공간) × 운영주체를 고려하여 지역을 6개로 유형화 · 도시형(과밀학교형)_관주도형, 민주도형 · 도시형(학교활용형)-관주도형, 민주도형 · 농산어촌형_관주도형, 민주도형
유해미 외 (2018)	아동 돌봄 분야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유형별 민관 협력 운영 방식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규모 × 인적·물적 자원 × 민관 협력 방식에 따라 구분 · 대도시 지역(사회적경제형, 다기능센터형, 협동조합형) · 중소도시 지역(주민참여형, 지자체 주도+민간참여형, 부모주도형) · 군 지역(지자체 주도+지역아동센터형)
안현미 외 (2019)	우리동네키움센터 모델 개발 및 전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주체별 모델 · 직영 모델 · 자치구 산하기관 직영 또는 위탁모델 · 사회적협동조합 위탁모델 · 사회복지법인 등 위탁모델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별 모델 · 일반형(신규형) · 융합형 · 거점형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전략별 모델 · 혁신교육+마을방과후 융합형 · 자치구 학교돌봄+마을돌봄 통합형 · 지역자원 순회형 · 마을방과후학교 모델

연구자	모델화 목적	모델 세부내용
김은정 외 (2019)	지역사회 초등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경제적 모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돌봄 사회적경제 모델 구분 · (부모) 당사자 중심 사회적경제 주체형성 모델 · 주민공동체 주도형 초등돌봄 모델 · 사회적경제조직 단독센터 운영 모델 · 사회적경제조직 서비스 공급형 모델 · 사회적경제조직 공동생산형 초등돌봄 모델
김민희 외 (2020)	지자체-학교 협업 돌봄모델 개발 및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업내용과 공간별 × 운영주체에 따라 구분 · 학교 안 돌봄시설 구축·운영 모델 · 학교 안 틈새돌봄 모델 · 학교 밖 돌봄지원 모델

출처: 김은정 외(2019). 지역사회 초등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 모델 연구. P. 60. 재구성

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실태 및 개선과제 연구(이희현 외, 2019)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실태 및 개선과제 연구(이희현 외, 2019)에서는 2018년 정부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에서 제시한 온종일 돌봄 생태계 모형을 수정·보완하여 유형화 틀로 활용하였다. 이에 지역 특성(돌봄수요, 활용공간)을 주된 유형화 기준으로 하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을 주도하는 주체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표 II-7>에 제시한 것처럼 돌봄체계 운영모형을 6개로 유형화하였다.

〈표 II-7〉 온종일 돌봄체계 중심의 지역 유형화

구분	도시형A (과밀학교형)	도시형B (학교활용형)	농산어촌형 /도농복합형
관 주도형	■ 지역규모가 크고 돌봄수요가 많은 지역	■ 지역규모가 크고 돌봄수요가 많은 지역	■ 지역규모가 작고 돌봄수요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 과밀학급으로 학교공간(학교 시설 및 부지) 활용 불가능 지역	■ 학교공간(학교시설 및 부지) 활용 가능 지역	■ 학교공간(학교시설 및 부지) 활용 가능 지역
	■ 지역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민간의 자생적 활동이 약한 지역	■ 지역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민간의 자생적 활동이 약한 지역	■ 지역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민간의 자생적 활동이 약한 지역
민 주도형 (관지원형)	■ 지역규모가 크고 돌봄수요가 많은 지역	■ 지역규모가 크고 돌봄수요가 많은 지역	■ 지역규모가 작고 돌봄수요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 과밀학급으로 학교공간 활용 불가능 지역	■ 학교공간 활용 가능 지역	■ 학교공간 활용 가능 지역
	■ 지역 인프라가 풍부하거나 민간의 자생적 활동이 강한 지역	■ 지역 인프라가 풍부하거나 민간의 자생적 활동이 강한 지역	■ 지역 인프라가 풍부하거나 민간의 자생적 활동이 강한 지역

출처: 이희현 외(2019),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실태 및 개선과제: 우수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P. 30.

나. 아동 돌봄 분야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연구(유해미 외, 2018)

아동 돌봄 분야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연구(유해미 외, 2018)에서는 〈표 II-8〉과 같이 지역규모와 각 지역의 돌봄서비스 수요 및 지역 내 자원(인적·물적 자원)에 따라, 지역유형별 민관 협력체계 및 운영 모형을 제안하였다.

대도시 지역에 속하는 모형1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모형 1-①은 돌봄서비스 공급이 부족하여 지역중심 돌봄 지원 수요가 높고 마을 및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민관 협력의 경험이 축적된 지역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협력기구가 중간지원 기관으로 적극적으로 기능하는 방식이다. 모형 1-②는 모형 1-①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기능 복합복지시설이 돌봄센터를 위탁·운영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는 복합복지시설 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서비스 연계 및 협력이 용이하고, 복합복지시설 내 각종 운영 및 시설관리의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재정 운영 측면에서 유리하다.

〈표 II-8〉 지역유형별 특성 및 민관 협력 운영 방식

구분	지역규모	돌봄 수요	인적·물적 자원	민관 협력 방식
제1모형	대도시 지역	높음	많음	민간 주도
제2모형		높음	적음	관(공공부문) 주도
제3모형	중소도시 지역	높음	많음	민간 주도
제4모형		높음	적음	관(공공기관) 주도
제5모형	군 지역	높음	적음	관(공공부문) 주도

출처: 유해미 외(2018). 아동 돌봄 분야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연구. P. 222.

대도시에 속하는 모형2는 돌봄서비스 공급 수준이 낮아 지역중심 돌봄 지원의 수요가 높으나 유관서비스 기관의 공급 수준이 낮아 공동육아를 추구하는 협동조합이 주도하는 방식이다.

중소도시 지역에 속하는 모형3은 돌봄서비스 공급이 낮으나, 지역 내 유관서비스 기관의 공급 수준이 높아 해당 기관에서 돌봄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지역 내 자원 즉 아파트 돌봄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운영 지원에 적극 참여하는 방식이다.

중소도시 지역에 속하는 모형4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모형 4-①은 돌봄서비스 공급이 부족하여 지역중심 돌봄지원 수요가 높고, 지역 내 활용가능한 자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민간이 일부 참여하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돌봄서비스 및 유관서비스 기관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위탁·운영하며, 지역 내 아파트 주민은 공간을 제공한다. 이 경우는 시·군·구청이 주도하여 지역 내 주민과 협력을 유도하며, 위탁기관이 기존에 속해 있는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 모형4-②는 모형 4-①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만 지원하고 운영 전반은 부모주도 방식이다. 이 경우는 품앗이 육아에 대한 공통된 지향을 지닌 자발적인 부모모임에서 비롯되었으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다양한 유관서비스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기구의 구성이 요구된다.

군 지역에 속하는 모형5는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돌봄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지역중심 돌봄지원 수요가 높으나, 지역 내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한 이외 돌봄서비스 기관이 부족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가 협력하는 방식이다.

다. 우리동네키움센터 모델 개발 및 전달체계 구축 연구(안현미 외, 2019)

우리동네키움센터 모델 개발 및 전달체계 구축 연구(안현미 외, 2019)에서는 초등 돌봄모델을 운영주체별, 기능별, 운영전략별로 구분하여 각각 제시하였다.

첫째, 운영주체별 모델로는 자치구 직영, 자치구 산하기관 직영 또는 위탁, 사회적협동조합 위탁, 사회복지법인 등 위탁의 4가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둘째, 기능별 모델로는 일반형, 융합형, 거점형의 3가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일반형 모델은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가까운 공공시설 내 설치하여 기존 공적돌봄 제도가 수용하지 못하는 아동의 틈새돌봄을 책임지는 돌봄 안전망으로서 학교와 가정의 10분 거리 내 촘촘한 돌봄 강화 모델이다. 일반형 모델에서는 초등방과후 돌봄에 집중, 서비스를 제공한다. 융합형 모델은 기존의 우선보호대상 아동 중심의 지역아동센터와 현재 진행 중인 우리동네키움센터 등의 이원화 구조를 일원화하여 보편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미래 모형의 시범모델이다. 일반형 모델과 같이 공통의 돌봄서비스는 동일하게 제공하지만 필요 시 아동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상담, 사례관리 등)를 제공한다. 거점형 모델은 초등학생 대상 돌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된 일반형 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목적으로 한다. 거점형 모델은 일반형 모델의 공간적,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필요로 하는 아동의 욕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모델이다. 거점형 모델은 일반형과 달리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돌봄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특화형 센터(예: 장애통합센터, 지역특화형 센터 등)로 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형 센터가 돌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및 마을 자원 플랫폼 역할, 심리·정서지원 서비스, 긴급돌봄 및 아픈아이 돌봄, 저녁식사 및 케이터링, 아동주도의 문화·예술·창의 체험형 놀이 및 학습기회 등을 제공한다.

셋째, 운영전략별 모델로는 혁신교육+마을방과후 융합형, 자치구 학교돌봄+마을돌봄 통합형, 지역자원 순회형, 마을 방과후학교 모델의 4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혁신교육+방과후 융합형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과 마을학교(방과후활동)와의 융합을 통해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는 모델이다. 자치구 학교돌봄+마을돌봄 통합형은 학교 초등돌봄교실과 마을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통합, 자치구에서 총괄 운영하는 모델이다. 지역자원 순회형 모델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중심 돌봄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모델이다. 마지막으로 마을 방과후학교 모델은 마을 방과후학교(프로그램) 중심의 돌봄체계로, 마을 인프라(물적·인적 자원) 연계를 통해 관내 아동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배움과 돌봄을 통합하는 돌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라. 지역사회 초등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 모델 연구(김은정 외, 2019)

지역사회 초등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 모델 연구(김은정 외, 2019)에서는 지역 특성에 따른 외생적 변수보다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운영주체의 특성에 따라 모델을 5가지로 구분하였다.

모델1은 당사자 중심 사회적경제 주체형성 모델로, 초등돌봄 문제해결을 위해 학령기 아동의 부모 당사자가 품앗이 활동 등을 기반으로 초등돌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은 지역사회 내에서 초등돌봄 문제를 부모 당사자나 교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해결하는 모델로서 의미가 있다.

모델2는 주민공동체 주도형 초등 돌봄모델로, 지역마을공동체 및 주민활동가, 아파트입주자협의회 등의 주민들이 지역 내 초등돌봄의 공간을 확보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은 초등돌봄의 문제를 지역사회 내에서 이웃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해결하는 모델로서 의미가 있다.

모델3은 사회적경제 조직 단독센터 운영모델로, 돌봄 관련 특화된 사회적경제 조직이 초등돌봄센터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자체 운영을 활성화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이 자체 운영 또는 위탁을 통해 초등돌봄센터의 공간,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관리한다.

모델4는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형 모델로, 개별조직이 공급, 제공하는 서비스를 초등돌봄 시스템에 연계·공급하는 형태로, 개별조직이 수요에 대응하고 공급하던 한계를 극복하여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를 개발·공급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 초등돌봄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의 돌봄 욕구에 대응하여 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참여형 모델로서 의미가 있다.

모델5는 사회적경제 조직 공동생산형 모델로, 지역 내 초등돌봄 관련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초등돌봄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별로 역할을 분장하여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운영 모델이다. 이 모델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기존의 개별 기업활동을 넘어서서 초등돌봄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 네트워크를 통해 함께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 지자체-학교 간 협업을 통한 돌봄모델 발굴 및 확산(김민희 외, 2020)

지자체-학교 간 협업을 통한 돌봄모델 발굴 및 확산(김민희 외, 2020) 연구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청(학교)의 협업을 통한 돌봄모델을 제안하였다. 지자체-학교 협업 돌봄모델은 협업내용과 공간을 기준으로 개발이 가능하며, 운영주체에 따라 다시 지자체 직영과 지자체-학교 연계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협업내용 돌봄모델은 학교 안과 밖에서 협업의 내용을 중심으로 돌봄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학교 안에서는 활용가능교실을 확보하여 돌봄전용 시설을 구축하여 상시돌봄을 제공하는 것과 기존 시설을 이용하여 틈새돌봄을 제공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 밖 돌봄모델은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기타 지역사회 시설 등을 확보하여 돌봄 프로그램이나 인력 지원 등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형태이다.

지자체-학교 협업 돌봄모델은 <표 II-9>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학교 안 돌봄시설 활용 모델로, 학교 안의 돌봄시설을 사용하여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가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거나 학교(교육청)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형태이다.

<표 II-9> 지자체-학교 협업 돌봄모델

협업내용 및 공간	운영주체	주요 내용
학교 안 돌봄시설 활용 모델	(1-① 유형) 지자체 직영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교육청)와의 협약을 통해 구축한 학교 안 활용가능한 돌봄전용 시설을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형태
	(1-② 유형) 지자체-학교연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안 돌봄전용 시설에 대해 학교(교육청) 운영 초등돌봄교실과 지자체 운영 돌봄교실이 공존하는 형태
학교 안 틈새돌봄 모델	(2-① 유형) 지자체 직영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장)가 주도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기존의 학교 안 돌봄시설에서 틈새돌봄을 운영하는 방식 등교 전 아침시간, 초등돌봄교실 이후 저녁시간, 방학 중, 휴일 등 틈새시간에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
	(2-② 유형) 지자체-학교연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안 틈새돌봄 운영 시, 지자체와 학교(교육청)가 협업하여 운영하는 방식 지자체는 예산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학교는 공간 및 교구·교재 등 제공

협업내용 및 공간	운영주체	주요 내용
학교 밖 돌봄지원 모델	(3-① 유형) 지자체 직영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에 대해 지자체가 주도 (직영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형태
	(3-② 유형) 지자체-학교연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에 대해 교육청이 주도 하고 지자체와 학교가 협업으로 참여하는 형태

출처: 김민희 외(2020). 지자체-학교 간 협업을 통한 돌봄모델 발굴 및 확산.

두 번째 유형은 학교 안 틈새돌봄 모델로, 지자체가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 도서관 등 기존의 교실 및 공간을 활용하여 상시돌봄이 아닌 틈새돌봄(아침돌봄, 저녁돌봄, 방학 중 돌봄 등)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 유형은 학교 밖 돌봄지원 모델로, 학교 안 돌봄공간이 부족하거나 불가능한 지역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학교 밖 돌봄 운영을 위한 협업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지자체는 돌봄 활용이 가능한 지역사회 공간을 확보하여 제공하고 리모델링 및 운영비를 지원하며, 교육청은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는 등의 협업을 진행한다.

이상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각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모델들은 대부분 현재 초등돌봄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별 또는 센터별 사례분석과 유형화를 통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초등돌봄을 둘러싼 지역의 특성과 지역사회의 맥락적 요소들에 기초하여 다양한 모델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향후 초등 돌봄모델 개발이 단선적이거나 표준화되기보다는 지역의 특성 및 다양한 운영 요소들을 고려하여 다각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김은정 외, 2019).

III. 경남 초등돌봄 수요조사 분석

1. 2020. 범정부 초등돌봄 수요조사¹⁾ 분석

가. 경남지역의 조사대상자 수

2020. 범정부 초등돌봄 수요조사에 참여한 경남지역의 학부모는 총 87,449명으로, 이를 18개 시군 및 자녀의 학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조사대상자 빈도 수(%)_범정부 수요조사

시군별	자녀 학년별		
	저학년(1,2,3학년)	고학년(4,5,6학년)	전체
창원시	15,220(17.4)	12,308(14.1)	27,528(31.5)
진주시	5,248(6.0)	4,088(4.7)	9,336(10.7)
통영시	1,847(2.1)	1,483(1.7)	3,330(3.8)
사천시	1,408(1.6)	1,167(1.3)	2,575(2.9)
김해시	8,869(10.1)	7,155(8.2)	16,024(18.3)
밀양시	953(1.1)	718(.8)	1,671(1.9)
거제시	5,289(6.0)	3,929(4.5)	9,218(10.5)
양산시	4,850(5.5)	3,385(3.9)	8,235(9.4)
의령군	201(.2)	155(.2)	356(.4)
함안군	1,190(1.4)	1,213(1.4)	2,403(2.7)
창녕군	695(.8)	499(.6)	1,194(1.4)
고성군	680(.8)	608(.7)	1,288(1.5)
남해군	407(.5)	410(.5)	817(.9)
하동군	295(.3)	267(.3)	562(.6)
산청군	270(.3)	235(.3)	505(.6)

1) 학부모와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에 기반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전국 초등학교 재학생(1~5학년) 및 예비취학아동 학부모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2019.10.16.~2019.11.6.)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남지역의 수요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한 것임.

시군별	자녀 학년별		
	저학년(1,2,3학년)	고학년(4,5,6학년)	전체
함양군	419(.5)	481(.6)	900(1.0)
거창군	615(.7)	307(.4)	922(1.1)
합천군	303(.3)	282(.3)	585(.7)
전체	48,759(55.8)	38,690(44.2)	87,449(100.0)

나. 돌봄서비스 필요 여부

학교수업이 시작되기 전이나 끝난 후에 돌봄서비스가 필요한지를 묻은 결과(〈표 III-2〉 참조), 전체 응답자 87,449명 중 39.9%인 34,916명이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자 가운데 89.8%인 31,364명이 맞벌이·한부모·조손가구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가구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및 학년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37.9%)보다는 군(56.7%) 지역의 학부모들이, 특히 시 지역의 저학년(51.9%)보다 군 지역의 저학년(71.5%) 학부모들이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더 높게 하였다.

〈표 III-2〉 돌봄서비스 필요 여부

구분	시			군			전체
	저학년	고학년	소계	저학년	고학년	소계	
필요함	22,652(51.9)	6,856(20.0)	29,508(37.9)	3,629(71.5)	1,779(39.9)	5,408(56.7)	34,916(39.9)
필요하지 않음	21,032(48.1)	27,377(80.0)	48,409(62.1)	1,446(28.5)	2,678(60.1)	4,124(43.3)	52,533(60.1)
전체	43,684(100.0)	34,233(100.0)	77,917(100.0)	5,075(100.0)	4,457(100.0)	9,532(100.0)	87,449(100.0)

추가적으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부모들만을 대상으로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주된 이유를 살펴본 결과(〈표 III-3〉 참조), 전체적으로는 ‘가족 내에서 돌보기 때문에’(47.3%)와 ‘학원 등 사교육을 시키기 때문에’(45.8%)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I-3〉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주된 이유

구분	시			군			전체
	저학년	고학년	소계	저학년	고학년	소계	
가족 내에서 돌보기 때문에	11,883 (56.5)	11,425 (41.7)	23,308 (48.1)	641 (44.3)	897 (33.5)	1,538 (37.3)	24,846 (47.3)
학원 등 사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7,928 (37.7)	13,921 (50.8)	21,849 (45.1)	693 (47.9)	1,541 (57.5)	2,234 (54.2)	24,083 (45.8)
만족할 만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없어서	634 (3.0)	923 (3.4)	1,557 (3.2)	66 (4.6)	85 (3.2)	151 (3.7)	1,708 (3.3)
기타	587 (2.8)	1,108 (4.0)	1,695 (3.5)	46 (3.2)	155 (5.8)	201 (4.9)	1,896 (3.6)
전체	21,032 (100.0)	27,377 (100.0)	48,409 (100.0)	1,446 (100.0)	2,678 (100.0)	4,124 (100.0)	52,533 (100.0)

시군 및 학년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시(45.1%)보다는 군(54.2%) 지역에서 사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시 지역의 저학년(37.7%)보다는 군 지역의 저학년(47.9%) 학부모가, 마찬가지로 시 지역의 고학년(50.8%)보다는 군 지역의 고학년(57.5%)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시 지역보다 군 지역에서 가족(48.1% vs 37.3%)을 포함한 보조양육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취약한 환경에 처한 가구가 더 많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학원 등과 같은 사교육 의존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일 수 있다.

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시간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시간을 물어본 결과(〈표 III-4〉 참조), ‘오후 1시~5시’가 69.1%로 가장 많았지만 ‘오후 5시~7시’에 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20.0%로 높게 나타났다.

시군 및 학년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군 지역 모두 ‘오후 1시~5시’ 시간에는 고학년 학부모보다 저학년 학부모들의 돌봄서비스 필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오후 5시~7시’ 시간에는 고학년 학부모들의 돌봄서비스 필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학원 이용 시간이 끝난 17시부터 부모 퇴근 시간까지 아동 혼자 있는 돌봄공백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III-4〉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시간

구분	시			군			전체
	저학년	고학년	소계	저학년	고학년	소계	
수업시간 전	2,490(8.6)	675(7.7)	3,165(8.4)	345(7.6)	175(7.9)	520(7.7)	3,685(8.3)
오후 1시~5시	20,901(72.0)	5,150(58.8)	26,051(68.9)	3,341(73.6)	1,404(63.6)	4,745(70.3)	30,796(69.1)
오후 5시~7시	5,013(17.3)	2,544(29.0)	7,557(20.0)	777(17.1)	560(25.4)	1,337(19.8)	8,894(20.0)
오후 7시 이후	633(2.2)	391(4.5)	1,024(2.7)	76(1.7)	69(3.1)	145(2.1)	1,169(2.6)
전 체	29,037(100.0)	8,760(100.0)	37,797(100.0)	4,539(100.0)	2,208(100.0)	6,747(100.0)	44,544(100.0)

*복수응답

라. 희망하는 돌봄서비스 유형

자녀가 이용을 희망하는 돌봄서비스 유형을 물어본 결과(〈표 III-5〉 참조), 초등 돌봄교실이 7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5〉 희망하는 돌봄서비스 유형

구분	시			군			전 체
	저학년	고학년	소계	저학년	고학년	소계	
초등돌봄교실	21,824(80.6)	5,548(63.3)	27,372(76.4)	3,460(77.1)	1,418(62.8)	4,878(72.4)	32,250(75.7)
지역아동센터	2,844(10.5)	1,343(15.3)	4,187(11.7)	613(13.7)	401(17.8)	1,014(15.0)	5,201(12.2)
다함께 돌봄센터	1,757(6.5)	621(7.1)	2,378(6.6)	318(7.1)	143(6.3)	461(6.8)	2,839(6.7)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	845(9.6)	845(2.4)	-	232(10.3)	232(3.4)	1,077(2.5)
기타	645(2.4)	409(4.7)	1,054(2.9)	94(2.1)	63(2.8)	157(2.3)	1,211(2.8)
전 체	27,070(100.0)	8,766(100.0)	35,836(100.0)	4,485(100.0)	2,257(100.0)	6,742(100.0)	42,578(100.0)

*복수응답

시군 및 학년별로 살펴보아도 초등돌봄교실을 희망한다는 비율이 다른 돌봄서비스 유형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초등돌봄교실 정책은 정부가 잘하고 있는 상위 5개의 정책에 손꼽힐 만큼 학부모들의 호응을 받고 있고, 학부모들은 다른 돌봄서비스 기관보다 학교의 돌봄교실을 선호한다. 그러나 현재 초등돌봄교실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을 고려할 때, 학교만큼 부모가 안심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센터 설치를 통한 돌봄 수요 분산 및 돌봄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2. 경상남도 통합교육추진단 초등돌봄 수요조사²⁾ 분석

가. 조사대상자 수

경상남도 통합교육추진단에서 실시한 초등돌봄 수요조사에는 다음 <표 III-6>과 같이,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총 11,911명, 초등학생(예비 초등학생 포함) 총 5,663명, 그리고 18개 시군 돌봄업무 담당자 총 28명이 참여하였다.

<표 III-6> 조사대상자 빈도 수(%)_통합교육추진단 수요조사

시군별	학부모	학생	지자체 담당자
창원시	3,525(29.6)	1,581(27.9)	2(7.1)
진주시	1,402(11.8)	631(11.1)	1(3.6)
통영시	216(1.8)	142(2.5)	2(7.1)
사천시	346(2.9)	192(3.4)	2(7.1)
김해시	2,493(20.9)	1,190(21.0)	2(7.1)
밀양시	359(3.0)	187(3.3)	1(3.6)
거제시	1,351(11.3)	581(10.3)	3(10.7)
양산시	1,084(9.1)	357(6.3)	2(7.1)
의령군	50(.4)	34(.6)	1(3.6)
함안군	164(1.4)	116(2.0)	1(3.6)
창녕군	127(1.1)	74(1.3)	2(7.1)
고성군	170(1.4)	72(1.3)	2(7.1)
남해군	150(1.3)	154(2.7)	1(3.6)
하동군	108(.9)	87(1.5)	1(3.6)
산청군	52(.4)	30(.5)	1(3.6)
함양군	114(1.0)	41(.7)	1(3.6)
거창군	138(1.2)	133(2.3)	2(7.1)
합천군	62(.5)	61(1.1)	1(3.6)
전체	11,911(100.0)	5,663(100.0)	28(100.0)

2) 경남지역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실수요자의 의견을 파악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만족하는 초등돌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지자체 돌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초등돌봄 수요조사를 실시(2019.12.11. ~ 12.31.)한 원자료를 분석한 것임.

나. 학생 설문조사 분석

1)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시간을 보내는 장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아본 결과(〈표 III-7〉 참조), 전체적으로는 학원(38.9%) > 집(30.8%) > 학교(20.3%) 순으로 많았다.

시군 및 학년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시 지역은 학년에 상관없이 학원(39.7%) > 집(30.5%) > 학교(19.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군 지역은 고학년의 경우는 집(36.0%) > 학원(34.1%) > 학교(21.1%) 순으로, 저학년의 경우는 학원(34.0%) > 학교(30.5%) > 집(26.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7〉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시간을 보내는 장소

구분	시			군			전 체
	저학년	고학년	소계	저학년	고학년	소계	
학교	1,183(21.5)	457(15.1)	1,640(19.3)	250(30.5)	102(21.1)	352(27.0)	1,992(20.3)
도서관(학교밖)	127(2.3)	70(2.3)	197(2.3)	26(3.2)	13(2.7)	39(3.0)	236(2.4)
아파트 내	299(5.4)	141(4.7)	440(5.2)	19(2.3)	6(1.2)	25(1.9)	465(4.7)
학원	2,168(39.4)	1,210(40.1)	3,378(39.7)	279(34.0)	165(34.1)	444(34.0)	3,822(38.9)
집	1,567(28.5)	1,032(34.2)	2,599(30.5)	221(26.9)	174(36.0)	395(30.3)	2,994(30.5)
이웃집/친구집	115(2.1)	84(2.8)	199(2.3)	15(1.8)	13(2.7)	28(2.1)	227(2.3)
기타	40(0.7)	25(0.8)	65(0.8)	11(1.3)	11(2.3)	22(1.7)	87(0.9)
전 체	5,499(100.0)	3,019(100.0)	8,518(100.0)	821(100.0)	484(100.0)	1,305(100.0)	9,823(100.0)

*복수응답

2) 학교 수업이 끝난 후 돌봐주는 사람

학교 수업이 끝난 후 돌봐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본 결과(〈표 III-8〉 참조), 전체적으로는 가족·친척(45.5%) > 학원 선생님(31.0%) > 돌봄교실 선생님(16.1%)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8〉 학교 수업이 끝난 후 돌봐주는 사람

구분	시			군			전 체
	저학년	고학년	소계	저학년	고학년	소계	
가족/친척	1,946(43.1)	1,199(55.2)	3,145(47.0)	260(33.2)	182(44.9)	442(37.2)	3,587(45.5)
돌봄교실 선생님	915(20.2)	52(2.4)	967(14.5)	248(31.6)	50(12.3)	298(25.1)	1,265(16.1)
학원(센터) 선생님	1,443(31.9)	640(29.5)	2,083(31.1)	236(30.1)	120(29.6)	356(29.9)	2,439(31.0)
이웃집 어른	11(.2)	5(.2)	16(.2)	3(.4)	-	3(.3)	19(.2)
없음	176(3.9)	237(10.9)	413(6.2)	31(4.0)	44(10.9)	75(6.3)	488(6.2)
기타	29(.6)	38(1.8)	67(1.0)	6(.8)	9(2.2)	15(1.3)	82(1.0)
전 체	4,520(100.0)	2,171(100.0)	6,691(100.0)	784(100.0)	405(100.0)	1,189(100.0)	7,880(100.0)

*복수응답

시군 및 학년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시군 모두 가족·친척 > 학원 선생님 > 돌봄교실 선생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시군 지역 모두 고학년 경우, 학교 수업이 끝난 후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도 10.9%로 높게 나타났다.

3) 돌봄서비스 희망 여부 및 희망하지 않는 이유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0학년도 돌봄서비스 희망 여부를 알아본 결과(〈표 III-9〉 참조), 전체적으로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희망한다’는 응답이 47.2%로 돌봄서비스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시군별로 살펴보면 돌봄서비스 희망 여부에 차이가 있어, 시 지역에서는 돌봄서비스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0.6%로 더 높게 나타난 반면 군 지역에서는 반대로 희망한다는 응답이 58.9%로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시 지역의 저학년(51.4%)보다는 군 지역의 저학년(74.8%)이, 마찬가지로 시 지역의 고학년(18.8%)보다 군 지역의 고학년(34.1%)이 돌봄서비스를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9〉 돌봄서비스 희망 여부

구분	시			군			전 체
	저학년	고학년	소계	저학년	고학년	소계	
희망함	1,578(51.4)	337(18.8)	1,915(39.4)	365(74.8)	107(34.1)	472(58.9)	2,387(42.2)
희망하지 않음	1,491(48.6)	1,455(81.2)	2,946(60.6)	123(25.2)	207(65.9)	330(41.1)	3,276(57.8)
전 체	3,069(100.0)	1,792(100.0)	4,861(100.0)	488(100.0)	314(100.0)	802(100.0)	5,663(100.0)

돌봄서비스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희망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표 III-10〉 참조), 전체적으로는 돌봐줄 가족이 있어서(39.3%) > 학원에 다녀서(36.3%) > 하고 싶지 않아서(12.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시 지역에서는 위의 전체 응답과 같은 양상을 보였으나, 군 지역의 경우는 학원을 다녀서(34.5%) > 하고 싶지 않아서(25.2%) > 돌봐줄 가족이 있어서(21.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지역의 저학년은 학원에 다녀서(35.0%) > 돌봐줄 가족이 있어서(28.5%) > 시간이 맞지 않아서(19.5%) 순으로, 고학년은 학원에 다녀서(34.5%) > 하고 싶지 않아서(32.4%) > 돌봐줄 가족이 있어서(17.4%)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0〉 돌봄서비스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

구분	시			군			전 체
	저학년	고학년	소계	저학년	고학년	소계	
학원에 다녀서	519(34.8)	557(38.3)	1,076(36.5)	43(35.0)	71(34.3)	114(34.5)	1,190(36.3)
시간이 맞지 않아서	88(5.9)	121(8.3)	209(7.1)	24(19.5)	17(8.2)	41(12.4)	250(7.6)
거리가 멀어서	6(4)	3(2)	9(3)	-	2(1.0)	2(6)	11(3)
돌봐줄 가족이 있어서	696(46.7)	519(35.7)	1,215(41.2)	35(28.5)	36(17.4)	71(21.5)	1,286(39.3)
하고 싶지 않아서	125(8.4)	202(13.9)	327(11.1)	16(13.0)	67(32.4)	83(25.2)	410(12.5)
기타	57(3.8)	53(3.6)	110(3.7)	5(4.1)	14(6.8)	19(5.8)	129(3.9)
전 체	1,491(100.0)	1,455(100.0)	2,946(100.0)	123(100.0)	207(100.0)	330(100.0)	3,276(100.0)

4) 경남형 돌봄센터 희망 장소

학생들에게 경남형 돌봄센터로 희망하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묻은 결과(〈표 III-11〉 참조), 전체적으로는 아파트 내(48.2%) > 도서관(21.9%) > 기타(17.1%)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 중에서 희망하는 장소를 기술한 503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학교가 393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집이나 집 근처(47명), 지역아동센터(20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1〉 경남형 돌봄센터 희망 장소

구분	시			군			전 체
	저학년	고학년	소계	저학년	고학년	소계	
아파트 내	1,678(54.7)	876(48.9)	2,554(52.5)	121(24.8)	55(17.5)	176(21.9)	2,730(48.2)
도서관	593(19.3)	399(22.3)	992(20.4)	150(30.7)	96(30.6)	246(30.7)	1,238(21.9)
주민센터	206(6.7)	110(6.1)	316(6.5)	50(10.2)	23(7.3)	73(9.1)	389(6.9)
마을회관	36(1.2)	29(1.6)	65(1.3)	34(7.0)	12(3.8)	46(5.7)	111(2.0)
어린이집 (저녁시간만)	131(4.3)	63(32.5)	194(4.0)	29(5.9)	6(1.9)	35(4.4)	229(4.0)
기타	425(13.8)	315(17.6)	740(15.2)	104(21.3)	122(38.9)	226(28.2)	966(17.1)
전 체	3,069(100.0)	1,792(100.0)	4,861(100.0)	488(100.0)	314(100.0)	802(100.0)	5,663(100.0)

5) 경남형 돌봄센터 이용 시 희망하는 돌봄서비스

경남형 돌봄센터에서 제공해주기를 희망하는 돌봄서비스를 물어본 결과(〈표 III-12〉 참조), 전체적으로는 놀이(20.0%) > 간식 및 식사(19.7%) > 숙제·공부(19.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12〉 경남형 돌봄센터 이용 시 희망하는 돌봄서비스

구분	시			군			전 체
	저학년	고학년	소계	저학년	고학년	소계	
숙제/공부	1,647(19.6)	846(19.9)	2,493(19.7)	231(16.8)	105(14.8)	336(16.1)	2,829(19.2)
예체능 활동	1,300(15.4)	730(17.2)	2,030(16.0)	211(15.3)	109(15.4)	320(15.3)	2,350(15.9)
문화체험 활동	1,167(13.9)	653(15.4)	1,820(14.4)	205(14.9)	102(14.4)	307(14.7)	2,127(14.4)
놀이	1,655(19.7)	823(33.2)	2,478(19.6)	299(21.7)	170(24.0)	469(22.5)	2,947(20.0)
식사/간식	1,658(19.7)	854(20.1)	2,512(19.8)	248(18.0)	153(21.6)	401(19.2)	2,913(19.7)
보호/돌봄	950(11.3)	302(7.1)	1,252(9.9)	178(12.9)	56(7.9)	234(11.2)	1,486(10.1)
기타	40(.5)	43(1.0)	83(.7)	6(.4)	13(1.8)	19(.9)	102(.7)
전 체	8,417(100.0)	4,251(100.0)	12,668(100.0)	1,378(100.0)	708(100.0)	2,086(100.0)	14,754(100.0)

*복수응답

시군 및 학년별로 살펴보면, 시 지역은 식사 및 간식 19.8%, 숙제·공부 19.7%, 놀이 19.6%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군 지역의 경우는 놀이(22.5%) > 식사 및 간식(19.2%) > 숙제·공부(16.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시 지역의 저학년은 놀이(19.7%), 식사 및 간식(19.7%), 숙제·공부(19.6%)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고학년의 경우는 놀이(33.2%) > 식사 및 간식(20.1%) > 숙제·공부(19.9%) 순으로 높았다. 군 지역의 저학년은 놀이(21.7%) > 식사 및 간식(18.0%) > 숙제·공부(16.8%) 순으로, 고학년은 놀이(24.0%) > 식사 및 간식(21.6%) > 예체능 활동(15.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6) 경남형 돌봄센터 이용 시 희망시간

경남형 돌봄센터 이용 시 희망하는 시간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알아본 결과(〈표 III-13〉 참조), 학기 중에는 오후돌봄(방과후~오후 5시) 희망이 65.0%로 높게 나타났다지만, 저녁돌봄(오후 5시~7시)에 대한 희망도 24.9%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13〉 경남형 돌봄센터 이용 시 희망시간

구분	구분	시			군			전 체
		저학년	고학년	소계	저학년	고학년	소계	
학 기 중	아침돌봄 (오전7:30~8:30)	129 (4.9)	65 (6.2)	194 (5.3)	31 (6.4)	14 (8.1)	45 (6.9)	239 (5.5)
	오후돌봄 (방과후~오후5시)	1,841 (69.7)	563 (54.1)	2,404 (65.3)	316 (65.7)	95 (55.2)	411 (62.9)	2,815 (65.0)
	저녁돌봄 (오후5~7시)	578 (21.9)	326 (31.3)	904 (24.6)	118 (24.5)	55 (32.0)	173 (26.5)	1,077 (24.9)
	야간돌봄 (오후7~9시)	92 (3.5)	87 (8.4)	179 (4.9)	16 (3.3)	8 (4.7)	24 (3.7)	203 (4.7)
전체		2,640 (100.0)	1,041 (100.0)	3,681 (100.0)	481 (100.0)	172 (100.0)	653 (100.0)	4,334 (100.0)
방 학 중	오전돌봄 (오전9시~오후1시)	976 (40.2)	399 (37.4)	1,375 (39.3)	164 (39.7)	65 (45.1)	229 (41.1)	1,604 (39.6)
	오후돌봄 (오후1시~오후5시)	804 (33.1)	401 (37.6)	1,205 (34.5)	123 (29.8)	43 (29.9)	166 (29.8)	1,371 (33.8)
	종일돌봄 (오전9시~오후7시)	649 (26.7)	266 (25.0)	915 (26.2)	126 (30.5)	36 (25.0)	162 (29.1)	1,077 (26.6)
전체		2,429 (100.0)	1,066 (100.0)	3,495 (100.0)	413 (100.0)	144 (100.0)	557 (100.0)	4,052 (100.0)
기 타	토요일 운영	361 (30.1)	176 (19.2)	537 (25.4)	72 (41.9)	49 (29.2)	121 (35.6)	658 (26.8)
	일시적/틈새돌봄 운영	448 (37.4)	215 (23.4)	663 (31.3)	68 (39.5)	15 (8.9)	83 (24.4)	746 (30.4)
	희망하지 않음	390 (32.5)	527 (57.4)	917 (43.3)	32 (18.6)	104 (61.9)	136 (40.0)	1,053 (42.9)
전체		1,199 (100.0)	918 (100.0)	2,117 (100.0)	172 (100.0)	168 (100.0)	340 (100.0)	2,457 (100.0)

*복수응답

방학 중에는 오전돌봄(오전 9시~오후 1시)이 39.6%로 가장 높았지만, 오후돌봄(오후 1시~5시) 33.8%, 종일돌봄(오전 9시~오후 7시) 26.6%로 높게 나타났다.

학기 중이나 방학 외에 일시적/틈새돌봄(30.4%)이나 토요일 운영(26.8%)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다. 학부모 설문조사 분석

1)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

(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돌봄기관

현재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돌봄기관을 알아본 결과(〈표 III-14〉 참조), 전체적으로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8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 아동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등과 같은 마을돌봄을 이용하는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및 학년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시군 모두 현재 초등돌봄교실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 지역의 고학년(64.2%)보다는 군 지역의 고학년(71.8%)이 초등교실교실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대개 초등돌봄교실 수 부족으로 이용대상을 1, 2학년 위주로 제한하는 것에 비해, 군 지역의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많지 않고 또 통학차량 운행으로 인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고학년 이용자 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4〉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돌봄기관

구분	시			군			전체
	저학년	고학년	소계	저학년	고학년	소계	
초등돌봄교실	2,173(90.4)	427(64.2)	2,600(84.7)	377(89.5)	148(71.8)	525(83.7)	3,125(84.6)
지역아동센터	124(5.2)	111(16.7)	235(7.7)	29(6.9)	29(14.1)	58(9.3)	293(7.9)
방과후아카데미	-	91(13.7)	91(3.0)	-	19(9.2)	19(3.0)	110(3.0)
다함께돌봄센터	15(.6)	7(1.1)	22(.7)	2(.5)	4(1.9)	6(1.0)	28(.8)
공동육아나눔터	11(.5)	8(1.2)	19(.6)	3(.7)	1(.5)	4(.6)	23(.6)
아이돌봄서비스	80(3.3)	21(3.2)	101(3.3)	10(2.4)	5(2.4)	15(2.4)	116(3.1)
전체	2,403(100.0)	665(100.0)	3,068(100.0)	421(100.0)	206(100.0)	627(100.0)	3,695(100.0)

‘없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함.

*복수응답

(나) 돌봄서비스 희망 여부

2020학년도 자녀의 돌봄서비스 희망 여부를 알아본 결과(〈표 III-15〉 참조), 전체적으로 ‘희망한다’는 응답이 43.6%,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4%로 돌봄서비스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시군별로 살펴보면 돌봄서비스 희망 여부에 차이가 있어, 시 지역에서는 돌봄서비스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8.7%로 더 높게 나타난 반면, 군 지역에서는 ‘희망한다’는 응답이 65.2%로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시 지역의 저학년(52.9%)보다는 군 지역의 저학년 학부모(78.6%)가, 마찬가지로 시 지역의 고학년(24.9%)보다 군 지역의 고학년(47.0%) 학부모가 돌봄서비스를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 지역의 경우 학교 이외에 다른 돌봄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고 또 가족을 포함한 다른 보조양육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취약한 환경에 처한 가구가 더 많기 때문에 돌봄서비스를 희망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I-15〉 돌봄서비스 희망 여부

구분	시			군			전체
	저학년	고학년	소계	저학년	고학년	소계	
희망함	3,342(52.9)	1,109(24.9)	4,451(41.3)	514(78.6)	226(47.0)	740(65.2)	5,191(43.6)
희망하지 않음	2,980(47.1)	3,345(75.1)	6,325(58.7)	140(21.4)	255(53.0)	395(34.8)	6,720(56.4)
전체	6,322(100.0)	4,454(100.0)	10,776(100.0)	654(100.0)	481(100.0)	1,135(100.0)	11,911(100.0)

(다) 희망하는 돌봄기관 및 희망 이유

돌봄서비스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돌봄기관이 무엇인지를 알아본 결과(〈표 III-16〉 참조), 전체적으로는 초등돌봄교실이 6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9.5%), 다함께돌봄센터(8.9%), 방과후 아카데미(8.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6> 희망하는 돌봄기관

구분	시			군			전체
	저학년	고학년	소계	저학년	고학년	소계	
초등돌봄교실	3,103(71.6)	826(53.5)	3,929(66.9)	478(69.0)	171(55.5)	649(64.8)	4,578(66.6)
지역아동센터	336(7.8)	202(13.1)	538(9.2)	75(10.8)	40(13.0)	115(11.5)	653(9.5)
방과후아카데미	170(3.9)	287(18.6)	457(7.8)	25(3.6)	68(22.1)	93(9.3)	550(8.0)
다함께돌봄센터	413(9.5)	122(7.9)	535(9.1)	67(9.7)	12(3.9)	79(7.9)	614(8.9)
공동육아나눔터	99(2.3)	54(3.5)	153(2.6)	23(3.3)	8(2.6)	31(3.1)	184(2.7)
아이돌봄서비스	213(4.9)	52(3.4)	265(4.5)	25(3.6)	9(2.9)	34(3.4)	299(4.3)
전체	4,334(100.0)	1,543(100.0)	5,877(100.0)	693(100.0)	308(100.0)	1,001(100.0)	6,878(100.0)

*복수응답

시군 및 학년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돌봄기관에 비해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호도는 높게 나타났다. 마을돌봄기관의 경우, 시 지역의 학부모들은 지역 아동센터(9.2%) > 다함께돌봄센터(9.1%) > 방과후아카데미(7.8%) 순으로, 군 지역의 학부모들은 지역아동센터(11.5%) > 방과후아카데미(9.3%) > 다함께돌봄센터(7.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돌봄서비스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학부모들의 돌봄기관 희망 이유를 물어본 결과(<표 III-17> 참조), ‘아동 보호’가 2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설의 안전(15.4%) > 간식 및 식사 제공(14.7%) > 가까운 이동거리(13.8%) > 다양한 프로그램(13.6%) > 교우관계 형성(10.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은 돌봄기관의 서비스 중 자녀의 안전한 보호나 시설의 안전과 같은 ‘안전 및 보호’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군별로는 시군 지역 모두 돌봄기관 희망 이유로 ‘아동 보호’가 높게 나타났지만, 그 외의 희망 이유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지역에서는 시설의 안전(15.5%) > 간식 및 식사 제공(14.8%) > 가까운 이동거리(14.5%) 순으로 나타난 반면, 군 지역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16.3%) > 시설의 안전(14.2%) > 간식 및 식사 제공(13.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 지역의 경우 이용할 수 있는

〈표 III-17〉 돌봄기관 희망 이유

구분	시			군			전체
	저학년	고학년	소계	저학년	고학년	소계	
시설의 안전	1,463(16.2)	379(13.4)	1,842(15.5)	187(14.5)	76(13.4)	263(14.2)	2,105(15.4)
다양한 프로그램	1,076(11.9)	482(17.1)	1,558(13.1)	179(13.9)	123(21.7)	302(16.3)	1,860(13.6)
아동 보호	2,048(22.7)	590(20.9)	2,638(22.3)	301(23.4)	111(19.5)	412(22.2)	3,050(22.2)
교우관계 형성	989(11.0)	283(10.0)	1,272(10.7)	156(12.1)	72(12.7)	228(12.3)	1,500(10.9)
간식 및 식사 제공	1,363(15.1)	397(14.1)	1,760(14.8)	171(13.3)	81(14.3)	252(13.6)	2,012(14.7)
가까운 이동거리	1,338(14.8)	375(13.3)	1,713(14.5)	145(11.2)	37(6.5)	182(9.8)	1,895(13.8)
귀가 지원	339(3.8)	123(4.4)	462(3.9)	81(6.3)	40(7.0)	121(6.5)	583(4.3)
저녁돌봄 운영	293(3.2)	149(5.3)	442(3.7)	54(4.2)	25(4.4)	79(4.3)	521(3.8)
기타	121(1.3)	44(1.6)	165(1.4)	15(1.2)	3(2)	18(1.0)	183(1.3)
전체	9,030(100.0)	2,822(100.0)	11,852(100.0)	1,289(100.0)	568(100.0)	1,857(100.0)	13,709(100.0)

*복수응답

돌봄 관련 인프라(인적·물적 자원)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적 돌봄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육적 지원을 제공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년별로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시 지역의 저학년 학부모는 아동 보호(22.7%) > 시설의 안전(16.2%) > 간식 및 식사 제공(15.1%) 순으로, 고학년은 아동 보호(20.9%) > 다양한 프로그램(17.1%) > 간식 및 식사 제공(14.1%) 순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군 지역의 경우, 저학년 학부모는 아동 보호(23.4%) > 시설의 안전(14.5%) > 다양한 프로그램(13.9%) 순으로, 고학년은 다양한 프로그램(21.7%) > 아동 보호(19.5%) > 간식 및 식사 제공(14.3%)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저학년이나 고학년 학부모 모두 아동 보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고학년 학부모는 돌봄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주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 지역의 고학년 학부모들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희망이 가장 높았다.

(라) 돌봄서비스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

자녀의 돌봄서비스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를 묻은 결과(〈표 III-18〉 참조), 전체적으로는 ‘돌봐줄 가족이 있어서’가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교육을 시켜서(26.6%) > 아이가 원하지 않아서(11.3%) > 시간이 맞지 않아서(10.1%)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시 지역에서는 위의 전체 응답과 같은 양상을 보였으나 군 지역의 경우는 ‘사교육을 시켜서’(29.9%)가 ‘돌봐줄 가족이 있어서’(22.8%)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군 지역의 학부모들이 돌봄서비스를 희망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군 지역의 경우 가족을 포함한 다른 보조양육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취약한 환경에 처한 가구(예: 한부모·조손·다문화 가구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가구)나 또 농업과 같이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직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더 많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학원 등과 같은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III-18〉 돌봄서비스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

구분	시			군			전체
	저학년	고학년	소계	저학년	고학년	소계	
사교육을 시켜서	681(22.9)	986(29.5)	1,667(26.4)	35(25.0)	83(32.5)	118(29.9)	1,785(26.6)
시간이 맞지 않아서	257(8.6)	357(10.7)	614(9.7)	21(15.0)	46(18.0)	67(17.0)	681(10.1)
아이가 원하지 않아서	304(10.2)	388(11.6)	692(10.9)	27(19.3)	43(16.9)	70(17.7)	762(11.3)
귀가의 어려움이 있어서	75(2.5)	67(2.0)	142(2.2)	5(3.6)	6(2.4)	11(2.8)	153(2.3)
돌봐줄 가족이 있어서	1,389(46.6)	1,294(38.7)	2,683(42.4)	36(25.7)	54(21.2)	90(22.8)	2,773(41.3)
돌봄 인력을 맡기 어려워서	82(2.8)	74(2.2)	156(2.5)	4(2.9)	6(2.4)	10(2.5)	166(2.5)
기타	192(6.4)	179(5.4)	371(5.9)	12(8.6)	17(6.7)	29(7.3)	400(6.0)
전체	2,980(100.0)	3,345(100.0)	6,325(100.0)	140(100.0)	255(100.0)	395(100.0)	6,720(100.0)

2) 경남형 온종일 돌봄에 대한 학부모 의견 및 요구조사

(가) 돌봄의 중요한 가치

경남형 돌봄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경남형 돌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물어본 결과(〈표 III-19〉 참조), 학부모들은 ‘안전’(55.1%)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부모들은 안전을 아동 돌봄의 최우선으로 중시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양한 체험’(20.7%) 이었고, 틈새없는 돌봄(9.2%), 놀이 및 휴식(9.1%)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시 지역은 안전(55.9%) > 다양한 체험(20.4%) > 틈새없는 돌봄(9.3%) 순으로, 군 지역은 안전(47.8%) > 다양한 체험(24.1%) > 놀이 및 휴식(10.9%)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돌봄을 통해 자녀들의 안전한 보호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다양한 체험활동이나 놀이와 같은 자녀들의 발달 및 성장을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시 지역의 학부모들은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일시돌봄이나 틈새돌봄에 대한 요구가, 군 지역의 학부모들은 지역의 환경적 제약에 따른 다양한 놀이 및 휴식 문화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경남형 돌봄의 방향은 안전을 기본으로 하면서 아동들에게 다양한 체험 활동 및 놀이와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III-19〉 돌봄의 가장 중요한 가치

구분	시			군			전체
	저학년	고학년	소계	저학년	고학년	소계	
안전	3,658(57.9)	2,368(53.2)	6,026(55.9)	336(51.4)	206(42.8)	542(47.8)	6,568(55.1)
놀이 및 휴식	576(9.1)	384(8.6)	960(8.9)	62(9.5)	62(12.9)	124(10.9)	1,084(9.1)
다양한 체험	1,166(18.4)	1,031(23.1)	2,197(20.4)	137(20.9)	136(28.3)	273(24.1)	2,470(20.7)
교우관계 형성	297(4.7)	213(4.8)	510(4.7)	41(6.3)	34(7.1)	75(6.6)	585(4.9)
건강	55(0.9)	45(1.0)	100(0.9)	3(0.5)	10(2.1)	13(1.1)	113(0.9)
틈새없는 돌봄	570(9.0)	413(9.3)	983(9.1)	75(11.5)	33(6.9)	108(9.5)	1,091(9.2)
전체	6,322(100.0)	4,454(100.0)	10,776(100.0)	654(100.0)	481(100.0)	1,135(100.0)	11,911(100.0)

(나) 돌봄서비스 필요 시기 및 시기별 희망 시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시기 및 시기별 희망 시간대를 알아보았다. 먼저, 경남형 돌봄이 필요한 시기를 알아본 결과(〈표 III-20〉 참조), 학부모들은 ‘학기 중+ 방학 중’에 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2.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필요없다는 응답이 15.7% > 학기 중에만 필요 12.3% > 방학 중에만 필요 10.8%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시군별이나 학년별 차이 없이 학기 중과 방학 중 모두 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20〉 돌봄서비스 필요 시기

구분	시			군			전체
	저학년	고학년	소계	저학년	고학년	소계	
학기 중	735(11.6)	603(13.5)	1,338(12.4)	70(10.7)	58(12.1)	128(11.3)	1,466(12.3)
방학 중	695(11.0)	473(10.6)	1,168(10.8)	83(12.7)	43(8.9)	126(11.1)	1,294(10.9)
틈새돌봄	528(8.4)	370(8.3)	898(8.3)	54(8.3)	38(7.9)	92(8.1)	990(8.3)
학기 중+방학 중	3,361(53.2)	2,311(51.9)	5,672(52.6)	348(53.2)	269(55.9)	617(54.4)	6,289(52.8)
필요 없음	1,003(15.9)	697(15.6)	1,700(15.8)	99(15.1)	73(15.2)	172(15.2)	1,872(15.7)
전체	6,322(100.0)	4,454(100.0)	10,776(100.0)	654(100.0)	481(100.0)	1,135(100.0)	11,911(100.0)

다음으로, ‘필요없다’라는 응답을 제외하고 돌봄이 필요한 시기별로 희망하는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표 III-21〉과 같이, 학기 중에는 오후돌봄(방과 후~오후 5시) 희망이 69.4%로 높게 나타났지만, 저녁돌봄(오후 5시~7시)에 대한 희망도 20.9%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기 중 평일 돌봄시간이 구조적으로 초등학생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모두 이용하여도 맞벌이 부모가 퇴근하여 집에 오는 7시까지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방학 중에는 오전돌봄(오전 9시~오후 1시)이 40.2%로 가장 많았지만, 종일돌봄(오전 9시~오후 7시)과 오후돌봄(오후 1시~5시)도 각각 31.4%와 28.4%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방학 중의 돌봄에 대한 학부모들의 고충이 잘 드러난 것으로, 특히 돌봄공백의 발생 확률이 더 높은 방학 시기에는 돌봄 운영시간뿐만 아

〈표 III-21〉 돌봄 시기별 희망시간

구분	희망시간	시			군			전체
		저학년	고학년	소계	저학년	고학년	소계	
학 기 중	아침돌봄 (오전7:30~8:30)	300 (5.9)	207 (5.8)	507 (5.9)	29 (5.7)	18 (4.6)	47 (5.2)	554 (5.8)
	오후돌봄 (방과후~오후5시)	3,500 (69.0)	2,475 (69.9)	5,975 (69.3)	358 (70.2)	280 (71.1)	638 (70.6)	6,613 (69.4)
	저녁돌봄 (오후5~7시)	1,080 (21.3)	727 (20.5)	1,807 (21.0)	103 (20.2)	78 (19.8)	181 (20.0)	1,988 (20.9)
	야간돌봄 (오후7~9시)	195 (3.8)	134 (3.8)	329 (3.8)	20 (3.9)	18 (2.0)	38 (4.2)	367 (3.9)
전체		5,075 (100.0)	3,543 (100.0)	8,618 (100.0)	510 (100.0)	394 (100.0)	904 (100.0)	9,522 (100.0)
방 학 중	오전돌봄 (오전9시~오후1시)	1,976 (40.7)	1,290 (39.2)	3,266 (40.1)	216 (42.2)	146 (38.7)	362 (40.7)	3,628 (40.2)
	오후돌봄 (오후1시~오후5시)	1,380 (28.5)	923 (11.3)	2,303 (28.3)	152 (29.7)	113 (30.0)	265 (29.8)	2,568 (28.4)
	종일돌봄 (오전9시~오후7시)	1,494 (30.8)	1,080 (13.3)	2,574 (31.6)	144 (28.1)	118 (31.3)	262 (29.5)	2,836 (31.4)
전체		4,850 (100.0)	3,293 (100.0)	8,143 (100.0)	512 (100.0)	377 (100.0)	889 (100.0)	9,032 (100.0)
기 타	토요일 돌봄	584 (42.9)	388 (41.5)	972 (42.3)	48 (35.8)	54 (50.5)	102 (42.3)	1,074 (42.3)
	일시적/틈새돌봄	898 (66.0)	620 (66.3)	1,518 (66.1)	98 (73.1)	58 (54.2)	156 (64.7)	1,674 (66.0)
전체		1,361 (100.0)	935 (100.0)	2,296 (100.0)	134 (100.0)	107 (100.0)	241 (100.0)	2,537 (100.0)

*복수응답

나라 점심 및 간식 제공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할 수 있다.

학기 중과 방학 외에 일시적/틈새돌봄(66.0%)이나 토요일 돌봄(42.3%)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경남형 돌봄에서는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일돌봄뿐만 아니라 방학돌봄이나 일시적 돌봄에 대한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이용시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 경남형 돌봄센터 활용 선호 장소

경남형 돌봄센터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선호 장소에 대해 질문한 결과(〈표 III-22〉 참조), 전체적으로는 ‘아파트 내’가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도서관(26.1%), 주민센터(13.4%), 기타(8.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타 응답 중에서 선호하는 장소를 기술한 530명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대부분의 응답자(443명)가 ‘학교나 학교 근처’를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초등돌봄의 특성상 돌봄 공간은 집이나 학교로부터 아동의 이동과 접근이 용이한 공간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시 지역은 아파트 내(49.4%) > 도서관(24.7%) > 주민센터(13.0%) 순으로, 군 지역은 도서관(39.3%) > 아파트 내(19.6%) > 주민센터(17.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22〉 경남형 돌봄센터 활용 선호 장소

구분	시			군			전체
	저학년	고학년	소계	저학년	고학년	소계	
아파트 내	3,204(50.7)	2,115(47.5)	5,319(49.4)	131(20.0)	91(18.9)	222(19.6)	5,541(46.5)
도서관	1,474(23.3)	1,188(26.7)	2,662(24.7)	247(37.8)	199(41.4)	446(39.3)	3,108(26.1)
주민센터	797(12.6)	605(13.6)	1,402(13.0)	110(16.8)	83(17.3)	193(17.0)	1,595(13.4)
마을회관	64(1.0)	58(1.3)	122(1.1)	30(4.6)	25(5.2)	55(4.8)	177(1.5)
어린이집 (저녁시간만)	309(4.9)	158(3.5)	467(4.3)	39(6.0)	16(3.3)	55(4.8)	522(4.4)
기타	474(7.5)	330(7.4)	816(7.6)	97(14.8)	67(13.9)	164(14.4)	968(8.1)
전체	6,322(100.0)	4,454(100.0)	10,776(100.0)	654(100.0)	481(100.0)	1,135(100.0)	11,911(100.0)

(라) 전문 돌봄 인력을 도와줄 적합한 인적 자원

돌봄 운영을 위해 전문 돌봄 인력을 도와줄 적합한 인적 자원에 대해 물어본 결과(〈표 III-23〉 참조), 전체적으로는 ‘교육기부자’가 30.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평생교육 강사(29.8%), 학부모(25.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23〉 돌봄 인력을 도와줄 적합한 인적 자원

구분	시			군			전체
	저학년	고학년	소계	저학년	고학년	소계	
학부모	1,611(25.5)	1,181(26.5)	2,792(25.9)	111(17.0)	104(21.6)	215(18.9)	3,007(25.2)
대학생 봉사자	516(8.2)	399(9.0)	915(8.5)	42(6.4)	45(9.4)	87(7.7)	1,002(8.4)
마을주민	167(2.6)	124(2.8)	291(2.7)	20(3.1)	14(2.9)	34(3.0)	325(2.7)
교육기부자	1,820(28.8)	1,380(31.0)	3,200(29.7)	235(35.9)	145(30.1)	380(33.5)	3,580(30.1)
평생교육 강사	1,956(30.9)	1,220(27.4)	3,176(29.5)	211(32.3)	157(32.6)	368(32.4)	3,544(29.8)
기타	252(4.0)	150(3.4)	402(3.7)	35(5.4)	16(3.3)	51(4.5)	453(3.8)
전체	6,322(100.0)	4,454(100.0)	10,776(100.0)	654(100.0)	481(100.0)	1,135(100.0)	11,911(100.0)

시군 및 학년별로도 특별한 차이 없이 전문 돌봄 인력을 도와줄 수 있는 적합한 인적 자원으로 학부모들은 ‘교육기부자 > 평생교육 강사 > 학부모’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학교와 마을돌봄의 연계 및 협력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돌봄 관련 인력 외에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돌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로 학부모들은 안전한 보호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다양한 체험활동이나 놀이와 같은 자녀들의 발달 및 성장을 지원해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 내 퇴직 인력, 경력단절 여성이나 학부모 등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마) 경남형 돌봄센터의 희망 돌봄서비스

경남형 돌봄센터에서 자녀에게 제공해주기를 희망하는 돌봄서비스를 물어본 결과(〈표 III-24〉 참조), 전체적으로는 숙제 및 학습 지원(28.9%) > 간식 및 식사 지원(26.3%) > 놀이활동(19.2%) > 예체능 활동(15.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군 및 학년별로도 특별한 차이 없이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학부모들은 돌봄을 통해 숙제 및 학습 지원뿐만 아니라 놀이 및 예체능 활동과 같이 다양한

〈표 III-24〉 경남형 돌봄센터의 희망 돌봄서비스

구분	시			군			전체
	저학년	고학년	소계	저학년	고학년	소계	
숙제/학습 지원	3,955(27.5)	2,892(31.6)	6,847(29.1)	381(25.9)	279(27.0)	660(26.4)	7,507(28.9)
예체능 활동	2,230(15.5)	1,407(15.4)	3,637(15.5)	253(17.2)	189(18.3)	442(17.7)	4,079(15.7)
간식/식사 지원	3,763(26.2)	2,455(26.8)	6,218(26.4)	375(25.5)	251(24.3)	626(25.0)	6,844(26.3)
놀이활동	2,972(20.7)	1,517(16.6)	4,489(19.1)	309(21.0)	202(19.6)	511(20.4)	5,000(19.2)
귀가 지원	1,391(9.7)	834(9.1)	2,225(9.5)	146(9.9)	108(10.5)	254(10.2)	2,479(9.5)
기타	48(3)	54(6)	102(4)	6(4)	3(3)	9(4)	111(4)
전체	14,359(100.0)	9,159(100.0)	23,518(100.0)	1,470(100.0)	1,032(100.0)	2,502(100.0)	26,020(100.0)

*복수응답

활동을 제공해주기를 원한다. 또한 학부모들이 돌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는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의 먹거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경남형 돌봄에서는 안전을 기본으로 하되, 부모를 대신하여 교육, 급식, 귀가 지원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바) 경남형 돌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

경남형 돌봄을 위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결과(〈표 III-25〉 참조), 전체적으로 ‘돌봄 인력 역량 강화(25.4%), 학부모 알림서비스(24.5%), 안전 보안 시설(23.9%)’의 세 가지가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경남형 돌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로 ‘안전’이 높게 나타난 것과 연관된 결과로, 학부모들은 돌봄기관의 안전한 보안 시설 및 알림서비스 등과 같이 자녀의 안전을 보장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앞의 경남형 돌봄에서 ‘안전’ 다음으로 학부모들이 돌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양한 체험’ 요인이었다. 즉 학부모들은 단순한 보호 차원의

〈표 III-25〉 경남형 돌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

구분	시			군			전 체
	저학년	고학년	소계	저학년	고학년	소계	
학부모알림 (스마트앱)	3,554(25.3)	2,164(23.9)	5,718(24.8)	321(23.0)	196(20.4)	517(21.9)	6,235(24.5)
상담서비스	672(4.8)	433(4.8)	1,105(4.8)	63(4.5)	60(6.3)	123(5.2)	1,228(4.8)
귀가 지원	1,736(12.4)	1,118(12.3)	2,854(12.4)	182(13.0)	133(13.9)	315(13.4)	3,169(12.5)
안전·보안시설	3,389(24.2)	2,158(23.8)	5,547(24.0)	321(23.0)	212(22.1)	533(22.6)	6,080(23.9)
돌봄인력 역량 강화	3,489(24.9)	2,353(26.0)	5,842(25.3)	378(27.1)	249(26.0)	627(26.6)	6,469(25.4)
거점 돌봄센터 건립	1,133(8.1)	778(8.6)	1,911(8.3)	123(8.8)	105(10.9)	228(9.7)	2,139(8.4)
기타	51(4)	61(7)	112(5)	9(6)	4(4)	13(6)	125(5)
전 체	14,024(100.0)	9,065(100.0)	23,089(100.0)	1,397(100.0)	959(100.0)	2,356(100.0)	25,445(100.0)

*복수응답

돌봄뿐만 아니라 돌봄기관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서는 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적 관리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 경남형 돌봄 요구사항

경남형 돌봄 운영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III-26〉과 같다.

분석 결과, 학부모들의 돌봄 요구사항은 크게 안전 및 보호, 공급 확대, 운영시간, 돌봄 콘텐츠, 운영 방식, 공간, 인력, 급·간식 영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학부모들은 돌봄과 관련하여 ‘안전 및 보호’(25.0%)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실시간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설치나 아동 입출입 시 문자알림서비스 등 자녀의 실시간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상해의 위험이 적은 공간, 안전한 먹거리, 안전한 귀가 지원 등과 같이 물리적, 신체적 안전 요인(16.6%)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전 및 보호 영역에는 이러한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돌봄교사

〈표 III-26〉 경남형 돌봄 요구사항_내용분석

영역	세부 영역	빈도(%)	
공급 확대	· 이용대상 및 자격요건 확대	487(16.0)	644(21.2)
	· 돌봄센터(교실) 확대 운영	157(5.2)	
운영 시간	· 운영시간 연장 및 촘촘한 돌봄 (예: 아침·저녁·방학·주말돌봄 등) 제공	321(10.5)	321(10.5)
돌봄 콘텐츠	· 프로그램 다양화 (예: 학습, 놀이, 인성 및 사회성교육, 체험활동 등)	314(10.3)	314(10.3)
급·간식	· 급·간식 제공 (예: 방학 중 급식 제공, 간식의 질 향상 등)	195(6.4)	195(6.4)
돌봄 인력	· 돌봄인력 전문성 (예: 전문자격, 인성, 돌봄교사 연수 등)	151(5.0)	220(7.3)
	· 돌봄인력 확대	69(2.3)	
안전 및 보호	· 안전(안전한 시설 및 환경)	507(16.6)	763(25.0)
	· 보호(따뜻한 보살핌, 정서적 안정)	165(5.4)	
	· 귀가 지원(귀가차량 및 안전도우미 운영)	70(2.3)	
	· CCTV 및 문자알림서비스 지원	21(.7)	
공간	· 다양한 마을 공간 (예: 집근처, 아파트, 도서관 등) 활용	125(4.1)	230(7.5)
	· 놀이와 쉼이 가능한 면적 (예: 편안하고 휴식·놀이가 가능한 공간)	105(3.4)	
운영 방식	· 운영 방법 개선 (예: 체계적 운영 및 지속적 관리, 예산 확보 및 지원, 돌봄기관 정보제공 및 홍보, 수요자 맞춤형 돌봄 등)	204(6.7)	242(8.0)
	· 학부모 참여	21(.7)	
	· 통합 거점 돌봄센터 마련	17(.6)	
기타	· 기타(예: 사교육비 절감, 대학생 봉사자 활용 등)	117(3.8)	117(3.8)
전 체		3,046(100.0)	

들의 따뜻한 보살핌 및 관심과 사랑을 통한 정서적 안정 요인(5.4%)도 포함된다. 즉 초등돌봄에서 ‘안전’에 대한 요구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여기서 안전은 물리적, 신체적 안전(예: 다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예: 편안함, 따뜻함, 안정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박혜준, 2019).

둘째, ‘돌봄 공급의 확대’(21.2%)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즉 학부모들은 초등돌봄교실을 포함하여 현 공적 돌봄기관의 이용대상 및 자격요건 제한에 따른 선별적 돌봄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보편적 돌봄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 2학년 위주의 돌봄에서 학년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 확대뿐만 아니라 증빙서류 간소화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확대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부모들은 ‘운영시간 연장’(10.5%)을 희망하였다. 즉 학부모들은 현재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시간 연장뿐만 아니라 방학돌봄이나 갑자기 발생하게 되는 긴급돌봄 등과 같이 돌봄이 필요한 시간에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운영시간 확대 및 틈새돌봄 제공을 포함하여 촘촘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기를 희망하였다.

넷째, 학부모들은 ‘다양한 돌봄 콘텐츠 제공’(10.3%)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부모들은 단순한 보호 차원의 돌봄뿐만 아니라 숙제 및 학습 지원, 놀이 및 스포츠 활동, 그리고 인성 및 사회성 교육 등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이 제공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부모들은 돌봄 ‘운영 방식’(8.0%)과 관련하여 다양한 요구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돌봄시간 동안에는 돌봄 공간에 일정 시간 머물러야 하고, 한 번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 없는 입출입과 관련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주거나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마을돌봄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내 등과 같이 좀 더 체계적인 운영 방식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돌봄을 제공해주기를 원했다.

여섯째, ‘공간’(7.5%) 영역에서 학부모들은 아동의 이동과 접근이 쉬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학교나 다양한 마을 공간(예: 집근처, 아파트 내, 도서관 등) 활용뿐만 아니라 아동이 놀이활동을 할 수 있고 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간을 갖춘 돌봄시설을 희망하였다.

일곱째, ‘인력’(7.3%)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은 돌봄교사의 학생 지도에 대한 전문자격이나 역량뿐만 아니라 특히 아동을 대하는 인성 측면에서의 전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급·간식’(6.4%)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은 간식의 양과 질, 평일 저녁식사 및 방학 중 점심 제공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학 중 돌봄에서 점심이 제공되기를 희망하는 요구가 많았다.

라. 지자체 담당자 설문조사 분석

1) 다함께돌봄센터³⁾ 설치 희망 공간

18개 시군별 돌봄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운영된다면 어떤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를 물어본 결과(〈표 III-27〉 참조), ‘아파트 내’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주민센터가 21.4%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시 지역은 ‘아파트 내(60.0%) > 주민센터(26.7%) > 기타(13.3%)’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은 ‘아동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라고 기술하였다.

군 지역은 ‘아파트 내’가 38.5%로 가장 많았고, ‘주민센터, 도서관, 마을회관, 주택’이 각각 15.4%로 의견이 나누어졌다.

〈표 III-27〉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희망 공간

희망 공간	시	군	전체
아파트 내	9(60.0)	5(38.5)	14(50.0)
주택	-	2(15.4)	2(7.1)
주민센터	4(26.7)	2(15.4)	6(21.4)
도서관	-	2(15.4)	2(7.1)
마을회관	-	2(15.4)	2(7.1)
기타	2(13.3)	-	2(7.1)
전체	15(100.0)	13(100.0)	28(100.0)

3) 보건복지부 주관의 다함께 돌봄사업(돌봄센터)은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민간 중심의 지역 맞춤형 돌봄 생태계 구축 사업을 말함.

2) 마을돌봄 업무 추진 시 가장 어려운 점

업무담당자로서 마을돌봄 업무 추진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를 물어본 결과(〈표 III-28〉 참조), ‘공간 확보의 어려움’이 36.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업무 과중(27.9%) > 교육지원청과의 협업(16.4%) > 돌봄협의회 운영(8.2%)’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군별 차이는 없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정책 발표 이후 2019년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했던 지역돌봄협의회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변경되면서 지자체(일반자치 단체) 소속의 돌봄업무 담당자들은 성격이 다른 교육청(교육자치 단체)과의 업무 협업이나 돌봄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새로운 업무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의 중요 성공요인 중의 하나는 지자체-교육청, 학교-마을 간의 연계 및 협력이라 할 수 있다(이희현 외, 2019). 따라서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돌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 기관의 돌봄업무 담당자들 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협조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III-28〉 마을돌봄 업무 추진 시 가장 어려운 점

어려운 점	시	군	전체
업무 과중	10(29.4)	7(25.9)	17(27.9)
공간 확보의 어려움	11(32.4)	11(40.7)	22(36.1)
돌봄수요 파악	2(5.9)	2(7.4)	4(6.6)
교육지원청과의 협업	5(14.7)	5(18.5)	10(16.4)
돌봄협의회 운영	3(8.8)	2(7.4)	5(8.2)
돌봄 조례 제정	1(2.9)	-	1(1.6)
기타	2(5.9)	-	2(3.3)
전체	34(100.0)	27(100.0)	61(100.0)

*복수응답

추가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내용분석 결과(〈표 III-29〉 참조), 기존 업무에 온종일 돌봄 관련 업무가 추가되었지만 인력 충원은 없어 업무상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42.3%로 가장 많았다.

〈표 III-29〉 마을돌봄 업무 추진 시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내용분석)

구분	시	군	전체
업무 과중	7(50.0)	4(33.3)	11(42.3)
공간 및 시설 확보의 어려움	3(21.4)	6(50.0)	9(34.6)
예산 확보의 어려움	1(7.1)	1(8.3)	2(7.7)
지역아동센터와의 갈등(낙인 우려)	1(7.1)	1(8.3)	2(7.7)
단순 돌봄효과 의문	1(7.1)	-	1(3.8)
가이드라인 부재	1(7.1)	-	1(3.8)
전체	14(100.0)	12(46.2)	26(100.0)

다음으로, 공공시설 유휴공간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34.6%로 많았는데, 특히 군 지역의 업무담당자가 공간 및 시설 확보의 어려움(50.0%)을 더 많이 언급하였다. 이는 군 지역에서 지역사회 내 마을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유휴공간 및 시설 확보가 필요함을 말해준다.

또한 기존의 마을돌봄기관의 대표주자인 지역아동센터와의 갈등이나 온종일 돌봄과 관련하여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도 언급하였다.

3) 마을돌봄 업무 추진을 위한 가장 우선적 지원 사항

마을돌봄 업무 추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결과(〈표 III-30〉 참조), 담당자들은 ‘인력 충원’(57.1%)을 가장 우선적으로 원했다.

다음으로는 ‘업무 매뉴얼 제작·보급’과 ‘예산 지원’(17.9%)을 희망하였다. 업무 매뉴얼 제작·보급과 관련해서, 학교돌봄(초등돌봄교실)의 경우는 초등돌봄 길라잡이가 있고 마을돌봄(예: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은 각 부처의 운영 지침이나 안내서가 있는데 반해, 현재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과 관련된 업무 매뉴얼은 없다. 이에 지자체 담당자들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 업무, 특히 학교(교육청)와 마을(지자체)의 협업을 강조하는 온종일 돌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표 III-30〉 마을돌봄 업무 추진을 위한 가장 우선적 지원 사항

구분	시	군	전 체
인력 총원	10(66.7)	6(46.2)	16(57.1)
업무 매뉴얼 제작·보급	3(20.0)	2(15.4)	5(17.9)
예산 지원	1(6.7)	4(30.8)	5(17.9)
마을돌봄지원단 운영	1(6.7)	1(7.7)	2(7.1)
전 체	15(100.0)	13(100.0)	28(100.0)

양 기관의 업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이 제공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시 지역에서는 ‘인력 총원(66.7%) > 업무 매뉴얼 제작·보급(20.0%)’ 순으로, 군 지역에서는 ‘인력 총원(46.2%) > 예산 지원(30.8%) > 업무 매뉴얼 제작·보급(15.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역의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군 지역 모두 돌봄업무를 담당할 인력 총원이 필요하며, 특히 군 지역은 온종일 돌봄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 경남형 돌봄모델 개발을 위한 의견

경남형 돌봄모델 개발을 위해 자자체 담당자로서 제안하고 싶은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표 III-31〉 참조), ‘지역 여건에 맞는(수요자 중심의) 돌봄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4.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전담인력 총원(27.5%) > 기존 시설 활용(10.3%) > 예산 지원,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업, 명확한 업무 매뉴얼 제공(6.9%)’ 순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III-31〉 경남형 돌봄모델 개발을 위한 의견(내용분석)

구분	시	군	전 체
예산 확대(지원)	2(13.3)	-	2(6.9)
전담인력 충원	5(33.3)	3(21.4)	8(27.5)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업	1(6.7)	1(7.1)	2(6.9)
지역 여건에 맞는(수요자 중심의) 돌봄모델 개발	4(26.7)	6(42.9)	10(34.5)
명확한 업무 매뉴얼 제공	1(6.7)	1(7.1)	2(6.9)
기존 시설 활용	-	3(21.4)	3(10.3)
교육과 돌봄 통합	1(6.7)	-	1(3.4)
틈새돌봄 제공	1(6.7)	-	1(3.4)
전 체	15(100.0)	14(100.0)	29(100.0)

시군별로 살펴보면, 시 지역은 ‘전담인력 충원(33.3%) >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 모델 개발(26.7%) > 예산 확대(13.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군 지역은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모델 개발(42.9%) > 전담인력 충원, 기존 시설 활용(21.4%)’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군 지역의 경우, 특히 지역 여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돌봄모델 개발 및 새로운 돌봄센터를 만들기보다 기존의 공공시설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통해 경남형 돌봄모델은 경남의 18개 시군별로 초등돌봄 수요 및 공급, 돌봄관련 인프라 현황,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 등을 반영한 지역 상황에 맞는 다양한 돌봄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요약 및 시사점

가. 경남 초등돌봄 수요조사 분석을 통한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2020년 범정부 초등돌봄 수요조사 및 경남 통합교육추진단 초등돌봄 수요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III-32>와 같다.

<표 III-32> 초등돌봄 수요조사 결과

지역	2020. 범정부 초등돌봄 수요조사			2020. 경남 통합교육추진단 초등돌봄 수요조사		
	응답자 수	돌봄 필요		응답자 수	돌봄 필요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창원시	27,528	9,996	(36.3)	3,525	1,365	(38.7)
진주시	9,336	4,105	(44.0)	1,402	697	(49.7)
통영시	3,330	1,535	(46.1)	216	114	(52.8)
사천시	2,575	1,177	(45.7)	346	181	(52.3)
김해시	16,024	5,369	(33.5)	2,493	859	(34.5)
밀양시	1,671	992	(55.2)	359	198	(55.2)
거제시	9,218	3,633	(39.4)	1,351	636	(47.1)
양산시	8,235	2,771	(33.6)	1,084	401	(37.0)
의령군	356	252	(70.8)	50	38	(76.0)
함안군	2,403	1,043	(43.4)	164	92	(56.1)
창녕군	1,194	644	(53.9)	127	86	(67.7)
고성군	1,288	698	(54.2)	170	91	(53.5)
남해군	817	522	(63.9)	150	101	(67.3)
하동군	562	416	(74.0)	108	76	(70.4)
산청군	505	354	(70.1)	52	47	(90.4)
함양군	900	443	(49.2)	114	58	(50.9)
거창군	922	603	(65.4)	138	100	(72.5)
합천군	585	433	(74.0)	62	51	(82.3)
전체	87,449	34,916	(39.9)	11,911	5,191	(43.6)

앞의 분석 결과를 경남 18개 시군 중 초등돌봄 필요 응답률 상·하위 3개 시군 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III-33>과 같다.

<표 III-33> 경남 초등돌봄 필요 응답률_상·하위 3개 시군

구분	2020. 범정부 초등돌봄 수요조사		2020. 경남 통합교육추진단 초등돌봄 수요조사		
	전체	(39.9)	(43.6)		
상위	1	합천·하동	74.0	산청	90.4
	2	의령	70.8	합천	82.4
	3	산청	70.1	의령	76.0
하위	1	김해	33.5	김해	34.5
	2	양산	33.6	양산	37.0
	3	창원	36.3	창원	38.7

<표 III-33>에서 알 수 있듯이, 2020년 범정부 초등돌봄 수요조사에서 초등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합천군, 하동군(74.0%) > 의령군(70.8%) > 산청군(70.1%)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김해(33.5%) > 양산(33.6%) > 창원(36.3%)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2020년 경남 통합교육추진단 초등돌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살펴보면, 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지역은 산청군(90.4%) > 합천군(82.4%) > 의령군(76.0%) 순이었고, 반대로 낮게 나타난 지역은 김해(34.5%) > 양산(37.0%) > 창원(38.7%)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군 지역은 시 지역보다 가족을 포함한 보조양육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사회적 가구(예: 맞벌이, 조손, 한부모가구 등) 비율이 더 높고, 또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한 그 밖의 다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관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초등돌봄 필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한미영, 2020). 따라서 초등돌봄 수요에 따라 돌봄서비스 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군 지역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30~40대 인가와 초등학생 수가 적고 이에 따라 현재 초등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수는 시 지역에 비해 적지만, 초등 연령대 아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 인구 수 비율로 계산하

면 시 지역보다 높다. 다시 말해, 돌봄서비스 공급 수준은 시 지역에 비해 높지만 군 지역의 특성상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돌봄공백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돌봄 필요 응답률이 높다고 해서 단순히 돌봄 시설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군 단위 농어촌 지역의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한 돌봄체계 및 돌봄모델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김해, 양산, 창원과 같이 비교적 젊은 도시 지역에서의 돌봄 필요 응답률이 낮게 나왔다고 해서 이 지역의 돌봄서비스 제공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 지역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인원이 가장 많고 이에 따라 초등돌봄 교실을 포함한 공적 돌봄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초등학생 수도 가장 많다. 그러나 현재 돌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 지역에서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어느 정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0년 범정부 초등돌봄 수요조사 결과 중, 경남 초등돌봄 필요 응답률을 학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III-34>와 같다(전체 분석 결과는 <부록 3> 참조).

<표 III-34> 경남 초등돌봄 필요 응답률_학년별 상위 5개 시군

	2020. 범정부 초등돌봄 수요조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전체	(18.0)		(36.6)		(20.7)		(11.6)		(7.5)		(5.6)	
1	거창	23.5	창원	38.7	하동	23.6	하동	15.9	합천	15.2	합천 하동	12.7
2	사천	21.7	김해	38.5	거제	22.7	고성	14.9	남해	12.6	산청	12.4
3	창녕	21.4	양산	38.3	남해	22.4	합천	14.8	의령	11.1	남해	10.7
4	양산	20.6	밀양 진주	37.3	거창	22.1	함안	14.4	하동	10.8	함양	11.5
5	진주	19.3	거제	36.1	창원 진주	21.0	의령	14.3	함안	10.5	의령	9.1

학년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모든 학년에서 시 지역보다는 군 지역에서 돌봄 필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학년의 경우, 양산, 진주가, 2학년의 경우는 상위 5개 지역에 모두 시 지역이, 그리고 3학년의 경우 창원, 진주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창원, 김해, 양산, 진주 등과 같은 대·중규모의 도시 지역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인원이 가장 많고 이에 따라 초등돌봄교실을 포함한 공적 돌봄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초등학생 수도 가장 많은데 반해, 현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히 현재 공적 돌봄기관 이용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에서 돌봄교실 수 부족으로 이용대상을 1교2학년 대상의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 등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이용 가능 인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시 지역의 저학년 학부모들의 돌봄 필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나. 경남형 온종일 돌봄 요구조사 분석을 통한 시사점

경남형 온종일 돌봄에 대한 의견 및 요구조사를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돌봄에서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 할 수 있다. 즉 초등돌봄에서 안전에 대한 요구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실시간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설치나 아동 입·출입 시 문자알림서비스 등 자녀의 실시간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상해의 위험이 적은 공간, 안전한 먹거리, 안전한 귀가 지원 등과 같이, 물리적, 신체적 안전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적인 돌봄은 교육이나 체험의 콘텐츠보다 돌봄 관계를 맺는 두 사람 간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때 관계의 질적 경험은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박혜준, 2019). 따라서 경남형 온종일 돌봄에서는 아동의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돌봄교사들의 따뜻한 보살핌 및 관심과 사랑을 통한 정서적 안정도 함께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돌봄 운영시간 측면에서 운영시간 연장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이용시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들은 학기 중의 운영시간뿐만 아니

라 방학돌봄이나 갑자기 발생하게 되는 긴급돌봄 등과 같이 돌봄이 필요한 시간에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운영시간 확대를 희망하였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이 끝나는 시간은 대개 오후 5시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오후 7시까지의 운영되지만 그 이용대상이 저소득층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 맞벌이 부모의 초등학생 자녀들은 5시부터 부모가 퇴근하여 집에 돌아오는 시간까지 돌봄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의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으로는 돌봄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러한 돌봄공백을 메꾸기 위해 맞벌이 가정에서는 자구책으로 학교 밖 사교육 기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학기 중뿐만 아니라 방학 중, 그리고 긴급한 상황이 생길 경우 돌봄공백이 발생한다. 따라서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일돌봄뿐만 아니라 방학돌봄이나 일시적 돌봄에 대한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이용시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돌봄 콘텐츠 측면에서 학습뿐만 아니라 놀이와 쉼 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돌봄 콘텐츠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학부모들은 돌봄을 통해 자녀들의 안전한 보호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다양한 체험활동이나 놀이와 같은 자녀들의 발달 및 성장을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 지역의 학부모들은 지역의 환경적 제약에 따라 다양한 놀이 및 휴식 문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이를 통해 경남형 온종일 돌봄은 안전을 기본으로 하면서 아동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및 놀이와 쉼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돌봄 공간 측면에서 아동의 이동과 접근이 쉽고 또 놀이와 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초등돌봄의 특성 상 돌봄 공간의 위치는 학교나 집에서 먼 경우 돌봄 공간으로서의 적합성이 떨어진다. 또한 기존의 돌봄기관들이 아동의 안전을 위해 아동의 놀이나 활동을 제약하는 공간으로 이루어졌다면, 경남형 돌봄 공간은 아이들이 쉬고 놀 수 있을 정도의 일정 면적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돌봄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다양한 마을 공간(예: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작은 도서관이나 북카페, 주민센터, 청소년시설, 마을회관, 노인종합복지관, 문화체육시설 등)을 활용함으로써, 마을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민 간의 네트워크 및 교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박혜준, 2019).

다섯째, 급·간식과 관련하여 양질의 간식과 식사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학부모들은 간식의 양과 질, 평일 저녁식사 및 방학 중 점심식사 제공 등을 희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학 중 돌봄에서 점심식사가 제공되기를 희망하는 요구가 많았다. 성장기인 초등학생에게 양질의 식사와 간식은 중요하다. 따라서 아이들이 부모가 없는 동안 밖에서 양질의 간식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간과 인적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자체 돌봄업무 담당자들은 온종일 돌봄 업무 추진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공간 확보의 어려움 및 업무과중을 들었다. 따라서 지역사회 기반의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의 공공성 있는 공간 및 시설을 기반으로 지역 내 인적 자원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돌봄 관련 인력 외에 지역사회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예: 퇴직 인력, 경력단절 여성이나 학부모, 청소년 및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다양하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IV. 경남 초등돌봄 관련 지역 특성 분석

1. 초등돌봄 관련 지역 환경 분석

가. 인구 특성

경남 18개 시군별 지역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인구 및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초등돌봄과 관련 있는 인구 특성 변수로는 초등학생 수 및 30~40대 여성 인구 수, 시군별 평균 연령, 2030년 초등학생 수 감소 추계, 인구소멸 위험지수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변수들은 초등돌봄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는 데 유용한 변수들이라 할 수 있다.

〈표 IV-1〉에 제시한 것과 같이, 거제, 김해, 양산, 창원 등은 경남 도내에서 평균 연령이 낮고 또 30, 40대 여성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높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인구소멸 위험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이다. 특히 양산시는 10년 후 경남 도내에서 유일하게 초등학생 수가 감소하지 않는(0.9% 상승) 유일한 도시임을 알 수 있다.

〈표 IV-1〉 경남의 18개 시군별 인구 특성

(2019년 기준)

시군별	평균 연령	인구 수	30~40대 여성 인구 비율	초등학생 수	장래인구추계 _2030	초등학생 수 감소 추계 비율(%)_2030	인구소멸 위험지수
창원시	41.9	1,042,950	14.6	59,495	990,962	-22.7	0.91
진주시	42.5	345,054	14.2	20,467	354,555	-11.8	0.74
통영시	44.5	131,603	13.4	8,476	134,824	-29.1	0.55
사천시	45.5	112,028	12.9	6,461	114,310	-30.3	0.45
김해시	39.8	535,063	16.0	35,967	544,709	-21.5	1.18
밀양시	49.8	105,228	10.3	4,233	108,970	-17.5	0.30
거제시	39.0	248,003	16.4	18,759	287,374	-10.7	1.22
양산시	40.7	348,188	15.9	22,021	396,126	0.9(▲)	1.01
의령군	54.3	27,260	8.0	779	27,767	-25.5	0.19
함안군	47.3	65,908	11.6	3,684	71,358	-19.6	0.37
창녕군	51.0	62,370	9.2	2,320	67,519	-21.0	0.26
고성군	50.9	52,358	9.6	2,256	52,729	-30.5	0.24
남해군	54.5	43,516	8.0	1,348	41,522	-25.9	0.17
하동군	52.9	46,756	8.4	1,519	47,239	-21.0	0.20
산청군	54.3	35,390	7.8	1,059	37,985	-17.0	0.18
함양군	52.2	39,519	8.9	1,471	39,094	-26.1	0.22
거창군	48.6	61,958	10.6	3,035	61,747	-22.2	0.31
합천군	55.5	45,112	7.3	1,256	45,746	-24.3	0.16
전 체	48.1	3,348,264	11.3	194,606	157,165	-22.5	0.48

주) 인구소멸 위험지수는 가임여성의 인구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나눈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더 위험한 것으로 해석함.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및 경상남도 「경상남도 시군별 장래인구 추계」

나. 경제적 특성

다음으로, 초등돌봄 관련 경제적 특성 변수로는 재정자립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기초생활수급 비율, 한부모·조손·다문화가구 비율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변수들은 인구 특성과 함께 2차적으로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표 IV-2〉와 같이 18개 시군별 경제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양산 > 창원 > 진주 > 김해 > 거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대체로 군 지역이 시 지역보다 높았고, 기초생활보장, 조손·다문화 가구 등과 같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가구 비율도 시 지역보다는 군 지역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 경남 18개 시군별 경제적 특성

시군별	재정 자립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비율	한부모가구 비율	조손가구 비율	다문화가구 비율
창원시	39.1	51.1	5.7	10.3	0.2	1.3
진주시	35.2	50.4	7.2	10.5	0.2	1.3
통영시	18.7	48.5	9.3	10.2	0.6	1.8
사천시	22.6	54.2	9.0	9.2	1.9	1.5
김해시	33.9	48.2	6.9	10.7	0.2	1.7
밀양시	18.4	55.5	9.7	8.4	0.7	1.5
거제시	32.4	47.1	4.2	7.7	0.7	1.8
양산시	39.3	47.9	6.2	10.2	1.4	1.5
의령군	16.0	58.1	10.5	7.0	1.0	1.9
함안군	25.4	52.7	7.7	8.7	0.6	2.3
창녕군	18.4	57.9	8.6	8.2	0.9	1.9
고성군	17.8	58.9	10.2	7.4	0.9	1.9
남해군	17.8	61.8	8.9	6.3	0.9	1.5
하동군	12.7	65.2	10.1	7.2	1.1	1.8
산청군	15.0	63.3	9.6	6.3	1.0	1.7
함양군	17.1	59.9	10.4	6.9	0.7	2.1
거창군	24.6	61.7	9.2	8.4	0.8	1.6
합천군	12.7	57.8	9.1	6.1	0.8	1.6
전 체	23.2	55.6	8.5	8.3	0.8	1.7

주)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 운영의 자립 능력이 우수함을 말함.

자료: 재정자립도(2019년 기준): 경남형 아이돌봄모델 개발 보고서(내부자료).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2019년 기준):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비율(2019년 12월 기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구분별 수급가구 수를 일반가구 수로 나누어 산출함.

한부모가구 외 가구형태 비율(2018년 기준): 통계청 「인구총조사」의 가구유형별 가구 수를 일반가구 수로 나누어 산출함.

2. 초등돌봄 관련 지역자원 현황 분석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틈없는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장소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사회의 풍부한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돌봄 아동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다(한미영 외, 2019). 이에 경남의 공적 돌봄기관 현황 및 돌봄 공간이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자원 현황을 살펴보았다.

가. 경남 초등 공적 돌봄기관 현황

대표적인 공적돌봄기관인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최근 온종일 돌봄 정책과 함께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표 IV-3〉과 같이, 초등돌봄교실 수는 경남 도내에서 초등학생 수가 많고 비교적 젊은 도시에 속하는 창원시 > 김해시 > 진주시 > 거제시 > 양산시 순으로 많았다.

지역아동센터 수도 비슷하게 창원시 > 김해시 > 진주시 > 밀양시 > 양산시 순으로 많았다. 밀양이 양산보다 지역아동센터가 많다는 점과 군 지역에서는 거창군이 많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는 앞의 경남 18개 시군별 경제적 특성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시 지역 중 밀양이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비율이 가장 높다(밀양 9.7% vs 양산 6.2%)는 것과 어느 정도 상관이 있을 것이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창원이 4개 기관으로 가장 많지만, 2개의 기관에서는 중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초등학생 수용 인원 측면에서는 양산시 > 김해시 > 창녕군 순으로 많았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최근 온종일 돌봄 조례 제정과 함께 적극적으로 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진주시(4개소)와 창녕군(2개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경남 18개 시군별 초등 공적 돌봄기관 현황

시군별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다함께 돌봄센터	
	교실 수	수용 인원	개소 수	수용 인원	기관 수	수용 인원	개소 수	수용 인원
창원시	261	6,547	79	2,172	4	40	1	20
진주시	94	2,410	22	587	1	20	4	111
통영시	40	901	11	249	1	40	1	22
사천시	36	877	7	225	1	20	-	-
김해시	125	2,963	34	1,106	1	60	-	-
밀양시	32	680	19	528	1	30	-	-
거제시	80	1,941	11	324	2	40	1	20
양산시	64	1,497	15	446	2	70	-	-
의령군	20	262	3	67	1	40	-	-
함안군	28	634	4	116	1	20	1	20
창녕군	25	480	8	221	2	55	2	35
고성군	23	351	6	170	1	20	-	-
남해군	22	398	7	133	-	-	-	-
하동군	25	387	6	160	1	20	-	-
산청군	22	335	5	110	1	40	-	-
함양군	25	400	4	105	-	-	-	-
거창군	30	597	15	440	1	20	-	-
합천군	22	346	10	218	-	-	-	-
전 체	974	22,006	266	7,377	21	535	10	228

자료: 교육부 2020학년도 1학기 온종일 돌봄(초등돌봄) 시설 현황 참조. 다함께돌봄센터 자료는 2020. 7월 기준으로 경남지역 업데이트함.

나. 학교 안·밖 돌봄 가용 장소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돌봄의 특성상 돌봄 공간의 위치가 학교나 집에서 먼 경우 돌봄 공간으로서의 적합성이 떨어진다. 앞의 2장에서 제시한 경남 학부모 대상 돌봄 수요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학부모들은 아동의 이동과 접근이 쉬워 아동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학교를 위시하여 다양한 마을 공간(예: 집 근처 공간, 아파트 내, 도서관 등)뿐만 아니라 아동이 편안하게 놀이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면적을 갖춘 돌봄 시설을 희망하였다. 이에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는 것보다 기존의 공간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지역 내의 돌봄 공간으로 사용 가능한 학교 안팎의 시설 현황을 살펴보았다.

1) 학교 안 돌봄 가용 장소

교과교실은 교과별 특성화된 전형교실을, 특별교실은 과학실, 음악실, 체육실 등과 같은 교실을 말한다. 이러한 교실들은 학생 수가 감소하게 될 경우, 우선적으로 잠재적 유휴교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 돌봄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폐교된 학교 중 미활용된 폐교 공간은 리모델링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돌봄 공간으로 활용가능한 학교 안 가용 장소로 경남 도내 잠재적 유휴교실 수와 미활용 보유폐교 수 현황을 살펴보았다.

〈표 IV-4〉에 제시한 것과 같이, 일반교실을 제외한 잠재적 유휴교실로 활용가능한 교실(교과교실+특별교실) 수는 인구 및 초등학교 수에 대비되어 창원(769) > 김해(345) > 진주(290) > 양산(22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군 지역에서는 대략 40개~50개 선으로 엇비슷하였다.

미활용 폐교 수는 통영시 14교, 거제시와 하동군 8교, 창원시와 사천시 7교 순으로 많았다.

〈표 IV-4〉 경남 18개 시군별 학교 안 가능 공간

시군별	교실 수			잠재적 유휴교실 수 (교과+특별교실)	폐교 수	미활용 보유폐교 수
	일반교실	교과교실	특별교실			
창원시	2,837	166	603	769	21	7
진주시	1,020	62	228	290	19	5
통영시	426	9	72	81	26	14
사천시	316	14	60	74	12	7
김해시	1,631	57	288	345	10	2
밀양시	260	7	70	77	20	5
거제시	889	22	125	147	22	8
양산시	968	31	196	227	1	1
의령군	102	10	36	46	5	4
함안군	225	2	46	48	11	6
창녕군	176	6	35	41	7	4
고성군	173	1	47	48	15	5
남해군	119	7	46	53	12	6
하동군	154	4	37	41	21	8
산청군	109	4	34	38	16	1
함양군	125	6	33	39	7	4
거창군	186	7	46	53	20	4
합천군	132	9	40	49	11	4
전 체	9,848	424	2,042	2,466	256	95

자료: 교실 수(2019년 기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통계

폐교 수 및 미활용 보유폐교 수(2020.5.1. 기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시도교육청 폐교정보

2) 학교 밖 돌봄 가용 장소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근 지자체마다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이 다함께돌봄센터라 할 수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주민센터, 도서관, 복지관 등과 같이 지역 내 접근성이 높고 안전한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 IV-5>와 같이, 경남 도내의 학교 밖 돌봄 가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수 현황을 살펴보았다.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인구 수가 가장 많고 그에 따른 물적 자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창원시가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수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진주, 김해, 양산 등과 같이 초등학교 수가 많은 시 지역의 돌봄 장소 활용 자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경남 18개 시군별 주민센터 및 도서관 수 현황

(2020년 기준)

시군별	주민센터 수	공공도서관 수	작은 도서관 수
창원시	58	17	96
진주시	30	7	58
통영시	15	5	25
사천시	14	3	21
김해시	19	9	55
밀양시	16	4	14
거제시	18	6	20
양산시	13	5	64
의령군	13	1	8
함안군	10	2	10
창녕군	14	3	9
고성군	14	2	4
남해군	10	2	7
하동군	13	1	6
산청군	11	1	6
함양군	11	1	9
거창군	12	2	9
합천군	17	1	17
전 체	308	72	438

자료: 경남형 아이돌봄모델 개발 보고서(내부자료)

군 지역은 시 지역에 비해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수가 월등히 작음을 알 수 있다. 군 지역 내 초등학생 수가 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하더라도 '도서관'은 전체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것이므로, 군 지역 내 도서관의 추가설립 및 이를 통한 학교 밖 돌봄서비스 확대 제공 방안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다.

다. 돌봄서비스 관련 활용 가능 자원

돌봄과 관련하여 중앙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의 경우, 대개 충분한 운영비나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이나 돌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예산 지원의 어려움은 돌봄서비스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돌봄 프로그램이나 급·간식 제공, 이동 차량 지원 등 돌봄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 기업을 고려해 볼 수 있다(남승연·이경민, 2019).

특히 사회적경제 기업은 기존의 시장을 지배하는 이윤과 경쟁이 아닌 협동과 연대를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하며, 조직의 인증 및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인원 요건과 자원봉사자의 참여, 지역사회 내 자원 연계 등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고용의 질 및 안정성, 개인배당 금지 등의 요건들을 통해 일반 영리조직들에 비해 어느 정도 공공성이 확보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지역사회 내 돌봄과 복지의 수요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주체라 할 수 있다(김은정 외, 2019).

사회적경제 기업에는 사회적기업⁴⁾, 협동조합⁵⁾(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⁶⁾, 자활기업⁷⁾이 포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돌봄 프로그램, 급·간식, 이동 차량 지원 등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남의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4)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함(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이트 참조).

5)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을 말함(「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6)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함(행정안전부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7) 자활기업이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1) 사회적경제 기업_돌봄 프로그램 관련

경남 학부모 대상 초등돌봄 요구조사에서 나타났듯이, 학부모들은 돌봄을 통해 숙제 및 학습 지원뿐만 아니라 놀이 및 예체능 활동과 같이 다양한 돌봄 콘텐츠를 제공해주기를 원한다. 이에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활동이나 놀이, 예체능 활동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줄 수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을 살펴보았다(구체적인 현황은 <부록 4> 참조).

<표 IV-6>에 제시한 것과 같이, 돌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 수는 창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김해, 진주, 양산 순으로 많았다.

<표 IV-6> 경남 18개 시군별 돌봄 관련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_돌봄 프로그램 관련

시군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합계
		사회적	일반		
창원	9	23	18	2	52
진주	3	3	9	1	16
통영	2	1	7	-	10
사천	-	2	3	-	5
김해	4	7	16	1	28
밀양	-	-	2	1	3
거제	-	1	2	1	4
양산	2	3	6	1	12
의령	-	-	-	1	1
함안	-	1	1	-	2
창녕	-	-	3	4	7
고성	1	-	-	3	4
남해	-	-	-	6	6
하동	-	1	-	2	3
산청	1	-	-	-	1
함양	-	-	7	1	8
거창	1	-	1	2	4
합천	-	1	1	-	2
전체	23	43	76	26	168

자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사이트 내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 자료를 분석함.

(인중)사회적기업 현황(2020.3.11. 기준), 협동조합 현황(2020.9.7. 기준), 마을기업 현황(2019.6. 기준)임.

(인중)사회적기업에 일부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일반협동조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현황에서는 제외함.

지역의 다양한 교육사업 및 예술·문화사업을 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돌봄에 활용한다면 돌봄 콘텐츠가 더욱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남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사회적경제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학부모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돌봄 요구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사회적경제 기업_급·간식 관련

성장기인 초등학생에게 양질의 식사와 간식은 중요하다. 현재 학교에서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에서도 이용 학생들의 간식 구입 및 제공은 돌봄전담사들이 신경 쓰는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또한 경남 학부모 대상 초등돌봄 요구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급·간식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은 간식의 양과 질, 평일 저녁 및 방학 중 점심식사 제공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맞벌이 부모의 경우, 자녀에게 식사를 제때 못 챙겨 줄 때 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오현정·황원경, 2019), 초등돌봄에서 양질의 식사와 간식 제공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경남 도내 급·간식 제공에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7>과 같다(구체적인 현황은 <부록 4> 참조). 경남 도내에서 반찬 제조 및 도시락 사업,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로컬푸드 판매 사업 등을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은 총 317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개 시군별로 살펴보면, 급·간식 관련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은 창원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진주, 김해, 거창, 함양, 양산 순으로 많았다.

향후 경남의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이들 사회적경제 기업과의 협약 및 협력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표 IV-7〉 경남 18개 시군별 돌봄 관련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_급·간식 관련

시군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합계
		사회적	일반			
창원	6	1	34	2	2	45
진주	1	1	27	3	-	32
통영	-	-	13	4	-	17
사천	1	-	3	3	-	7
김해	5	1	21	2	-	29
밀양	-	3	4	6	-	13
거제	-	1	7	4	-	12
양산	2	1	15	4	-	22
의령	-	-	3	2	-	5
함안	2	1	3	7	-	13
창녕	1	1	3	3	-	8
고성	-	1	3	3	-	7
남해	-	-	6	-	-	6
하동	3	1	7	4	-	15
산청	1	-	10	7	-	18
함양	-	-	18	5	-	23
거창	2	1	17	8	1	29
합천	1	-	3	12	-	16
전체	25	13	198	79	2	317

자료: 자활기업 현황(2019.12.31. 기준)은 경남도청 내부자료를 분석함.

3) 사회적경제 기업_이동(차량)지원 관련

맞벌이 부모의 경우, 학교의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해도 부모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돌봄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동들은 다시 제2의 돌봄을 위해 학원이나 지역아동센터 등과 같은 다른 돌봄서비스 기관이나 유사서비스 기관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대도시가 아닌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학교 통학버스 이외에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아동이 다른 돌봄기관으로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또는 돌봄을 마치고 집에 귀가하기 위해서는 차량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에 경남 도내의 사회적경제 기업 중 초등돌봄을 위해 차량 지원이 가능한 자

원 현황을 살펴보았다.

〈표 IV-8〉에 제시한 것과 같이, 이동과 관련된 차량 지원을 할 수 있는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은 9개 시군의 총 18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과 김해가 4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천이 3개, 양산 2개 순으로 많았다.

〈표 IV-8〉 경남 18개 시군별 돌봄 관련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_이동(차량)지원 관련

시군별	협동조합명	유형	사업내용
창원 (4)	더편한택시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일반택시 운송사업
	창원협동조합택시	일반협동조합	택시운송 여객사업
	마창고속관광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전세버스 운송사업
	경남남부전세버스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전세버스 운송사업 및 여행알선업
진주	진주전세버스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사천 (3)	에스엠사천택시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일반택시 운송사업
	사천협동조합택시	일반협동조합	택시운송 여객사업
	사천택시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김해 (4)	우리강산여행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전세버스 운송사업
	가고파관광전세버스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여객운수사업
	우등리무진관광버스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전세버스 운송사업
	부경관광버스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전세버스 운송사업, 물품 공동구매사업
밀양	향원생활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임대업(렌터카사업)
거제	경남전세버스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전세버스 운송사업
양산 (2)	행복투어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전세버스 운수사업
	진성관광버스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전세버스 운송사업
창녕	경남쿵버스투어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전세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산청	신동아관광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전세버스 운송사업

3. 초등돌봄 관련 시군 정책 분석

가. 온종일 돌봄 지원 조례 제정

최근 중앙정부가 온종일 돌봄 정책과 함께 다함께돌봄센터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에 대응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의 우수사례 지역들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는 온종일 돌봄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의 돌봄 지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에 전국 시도별 온종일 돌봄 지원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표 IV-9>와 같이 2020년 7월 현재 2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에서는 진주시가 2020년 4월 「진주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3> 참고).

〈표 IV-9〉 시도별 온종일 돌봄 지원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시도	자치단체	법령명	공포일자
1	서울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19.03.14.
2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19.03.28.
3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19.10.01.
4	부산	금정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19.02.01.
5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19.11.08.
6		동래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19.11.13.
7		강서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19.12.31.
8		동구	부산광역시 동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20.07.01.
9	대구	중구	대구광역시 중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20.07.10.
10	인천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20.05.15.
11	광주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19.12.26.
12	대전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20.02.25.
13	경기	오산시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19.09.30.
14		이천시	이천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19.12.27.
15		시흥시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20.07.16.
16	전북	고창군	고창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20.06.08.
17	전남	광양시	광양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19.05.29.
18		나주시	나주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19.11.11.
19		무안군	무안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20.01.06.
20	경남	진주시	진주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20.04.08.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사이트

나. 초등돌봄 관련 공약사업 현황

지역사회 기반의 온종일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초등돌봄에 대한 관심 및 의지가 중요하다. 즉 지자체장의 관심에 따라 지역별 돌봄 정책의 편차가 크게 발생한다. 실제로 온종일 돌봄 우수사례 지역으로 알려진 서울 중구청의 경우, 구청장 공약의 5대 핵심전략 과제 중 하나로 ‘중구 모든 아이 돌봄사업’을 추진하면서 중구청 직영으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한미영 외, 2019).

이에 경남 18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장의 초등돌봄 관련 정책을 분석하였다. 정책 관련 공약사업 분석 결과(〈표 IV-10〉 참조), 초등돌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약이 있는 지역은 진주, 함안, 고성, 남해, 합천의 5개 지역이었다.

다른 시군의 경우, 초등돌봄과 관련된 공약보다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건립, 어린이집 지원 등과 같이 영유아 관련 돌봄 공약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 경남 18개 시군별 돌봄 관련 공약 현황

시군	공약	주요 내용
창원	학교 안팎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마을학교 10개소 운영 창원형 마을교육공동체 기반 조성
진주	마을돌봄 운영 공간 확대 및 마을돌봄 공동체 구축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22년까지 마을돌봄 총 4개소 확대 운영
통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사천	워킹맘을 위한 보육시설 이용 확대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8개소 운영(읍·면지역 5, 동지역 3)
김해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통한 One-stop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문화공간조성(작은도서관 활성화, 동네책방 육성 사업)	관내 작은도서관 57개소, 동네책방 27개소 선정
밀양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 설치
	자연친화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어린이 놀이시설(27개소), 표충사 ‘우리아이 마음숲 놀이터’, 밀양아리랑 생태놀이터 조성
거제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시군	공약	주요 내용
양산	아이들을 키우는 구심점이 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	
의령	영유아 보육시설·어린이집 시설 개선	시설개선 지원 및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함안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1개소, 25명)
	미래와 희망을 키우는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건·보육·복지서비스의 통합 제공
	밝은 미래를 위한 아동복지 환경 조성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5, 공동생활가정 1)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아동 성장 발달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요리, 성장체육, 블록수업, 음악 등) 육아품앗이 활동 지원
창녕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	
고성	공동육아나눔터 개설	
	장난감도서관 설치	장난감 무료 대여
	지역아동센터 추가 설치	지역아동센터 현 이용아동 정원 미달 및 대기자 없는 관계로 2020년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설치 예정
남해	초등학생 종일돌봄 확대	지역아동센터(7개소) 운영 내실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1개소)
하동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국공립보육시설 2개소 확충
산청	장난감 백화점 운영	장난감 백화점 설치 및 운영(1개소)
함양	면단위 어린이 찾아가는 학습지 선생님 지원	균등한 교육 기회 부여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
	함양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1층(복합시설): 어린이 자료실, 청소년 열람실, 시청각실, 2, 3층(도서관): 종합자료실, 성인열람실
거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활성화	장난감 및 육아용품 구비
합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대 운영	야간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유아에 대해 시간 연장 보육서비스 제공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시간 연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 및 장난감 도서관 연장 운영
	아동복지 서비스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확대	아동수당 지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지역아동센터 10개소, 합천애육원 1개소), 저소득 아동 프로그램 지원

출처: 민선7기 시·군 자치단체장 공약추진계획 참고.

4. 18개 시군별 유형화 및 특성 분석

앞에서 살펴본, 경남 18개 시군별 인구 및 경제적 특성, 초등돌봄 수요와 공급, 돌봄 관련 활용가능한 자원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군집분석⁸⁾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표 IV-11>과 같이 3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고 군집요인별로 3개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별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IV-12>와 같다.

첫째, 창원시 단독으로 묶인 군집1은 경남 내 인구 수 및 30~40대 여성 인구 수, 그리고 초등학생 수가 가장 많은 대도시 유형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초등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수 역시 가장 많고, 2020년 범정부 돌봄 수요조사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인원도 가장 많다. 그러나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인원의 비율로 살펴보면, 돌봄 필요 비율 및 사회적 돌봄가구(예: 맞벌이, 한부모, 조손가구 등) 비율은 가장 적다.

또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인원 대비 각 돌봄기관(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돌봄 수용 예정 인원으로 본 공적돌봄 수용률도 낮은 편에 속한다. 결국 군집1 지역은 초등돌봄 필요 인원과 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자원(예: 잠재적 유휴교실, 작은 도서관, 돌봄서비스 제공 관련 사회적경제 기업 등)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많지만, 현재의 공적돌봄 제공으로는 돌봄 수요가 충족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군집1 지역의 경우 추가적인 돌봄 공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교 유휴공간이나 지역 공공시설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추가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영, 사천, 밀양의 3개의 시 지역과 10개의 군 지역으로 묶인 군집3은 군집1과는 어느 정도 상반되는 농어촌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군집3에 속하는 지역은 인구 수 및 30~40대 여성 인구 수, 초등학생 수가 가장 적고, 그에 따라 초등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수도 가장 적다. 반면, 2020년 범정부 돌봄 수요조사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과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구 형태에 속하는 비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군집3 지역은 학생 수 감소로

8)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이란 다수의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토대로 대상별 그룹을 나누는 통계기법으로, 각 그룹을 군집이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군집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2단계의 군집분석을 실시한다. 1단계에서는 Ward 방법의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군집 수를 확인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확인한 군집 수를 바탕으로 K-평균 방법의 비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한다(노경섭, 2016, P. 288-289).

〈표 IV-11〉 경남 18개 시군 초등돌봄 관련 군집분석 결과

군집요인		1 (n=1)	2 (n=4)	3 (n=13)	F
인구 특성	인구 수	3.34	.71	-.47	142.86***
	여성 인구 수_3040	3.21	.80	-.49	188.47***
	시군 평균 연령	-1.11	-1.36	.50	17.39***
	2030. 초등학생 수 감소 추계 비율	-.26	1.30	-.38	7.86**
	인구소멸 위험지수	1.17	1.52	-.56	47.44***
경제적 특성	재정자립도	1.77	1.34	-.55	39.81***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77	-1.24	.44	9.03**
	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	-1.55	-1.32	.52	23.68***
	사회적 돌봄가구(한부모, 조손, 다문화) 비율	-1.15	-1.06	.41	6.81**
초등돌봄 수요 및 공급	초등학생 수	3.11	.86	-.50	116.99***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수	3.46	.63	-.46	175.11***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수	3.46	.38	-.39	43.31***
	초등돌봄 필요 비율	-1.20	-1.10	.43	7.87**
	공적돌봄 수용률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 돌봄센터)	-.56	-1.04	.36	4.41*
돌봄 인프라	교실 수(교과교실+특별교실)	3.46	.63	-.46	167.57***
	주민센터 수	3.65	.26	-.36	67.52***
	작은도서관 수	2.75	.96	-.51	44.62***
	사회적경제 기업 수(프로그램, 급·간식, 이동 관련 등)	2.78	.97	-.51	54.69***

주) 인구소멸 위험지수는 수치가 낮을수록 더 위험한 것으로 해석함.

*** $p < .001$, ** $p < .01$, * $p < .05$

초등돌봄이 필요한 인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공적돌봄 공급 수준은 높으나, 기초생활보장 수급 및 사회적 돌봄가구 비율이 높고 또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도 최고이다. 동시에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등돌봄을 필요로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군집3 지역의 경우는 농어촌 지역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단순히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확대보다는 돌봄기관의 접근성 및 이동성 측면을 고려한 돌봄체계 구축 및 돌봄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표 IV-12〉 군집별 주요 특성

구분	지역	주요 특성
군집 1	창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수 및 3040 여성 인구 수 최다 ■ 초등학생 수 최고 ■ 재정자립도 최고 ■ 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 및 사회적 돌봄가구 비율 최저 ■ 초등돌봄 필요 비율 최저 ■ 공적돌봄 수용률 2번째 ■ 돌봄 인프라 최고(잠재적 유휴교실,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협동조합 등)
군집 2	진주, 김해, 거제, 양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수 및 3040 여성 인구 수 2번째 ■ 시군 평균 연령 최저 ■ 2030. 초등학생 감소 수 최저 ■ 인구소멸 위험지수 최저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최저 ■ 사회적 돌봄가구 비율 2번째 ■ 초등돌봄 필요 비율 2번째 ■ 공적돌봄 수용률 최저 ■ 돌봄 인프라 2번째
군집 3	통영, 사천, 밀양, 10개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수 및 3040 여성 인구 수 최저 ■ 초등학생 수 최저 ■ 시군 평균 연령 및 인구소멸 위험지수 최고 ■ 재정자립도 최저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최고 ■ 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 및 사회적 돌봄가구 최고 ■ 초등돌봄 필요 비율 최고 ■ 공적돌봄 수용률 최고 ■ 돌봄 인프라 최저

마지막으로, 진주, 김해, 거제, 양산의 4개 지역이 묶인 군집2는 시군 평균 연령 및 2030년 초등학생 수 감소 추계 비율이 가장 낮은 경남에서 가장 젊은 중소도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군집2는 군집1 다음으로 인구 수 및 초등학생 수가 많고, 이에 따라 초등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수도 2번째로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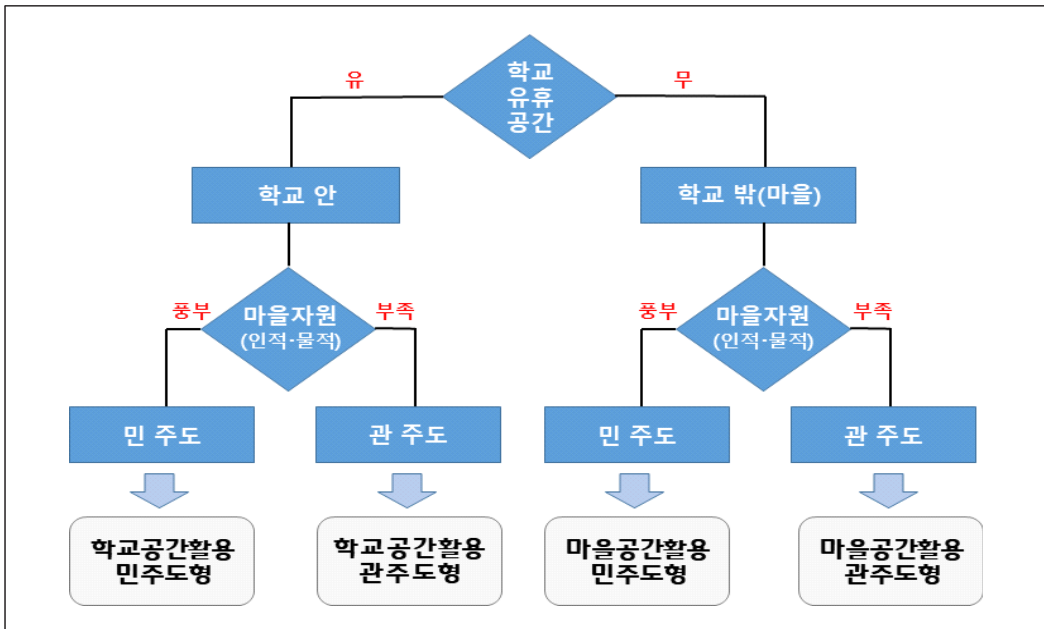
그러나 군집1과 비슷하게 초등돌봄 필요 비율 및 사회적 돌봄가구 비율이 낮고, 무엇보다도 공적돌봄 수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다. 즉 군집1과 마찬가지로, 군집2 지역도 현재의 학교 및 마을돌봄 기관으로는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가적인 돌봄서비스 공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군집2 지역의 경우, 군집1 다음으로 인구 수 및 초등학생 수가 많고 또 향후 초등학생 수 감소 비율이 가장 적은 젊은 도시이면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요자의 다양한 돌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V. 돌봄모델 및 돌봄 협력체계 구축 방안

1. 민-관-학 돌봄 협력모델의 기본 방향

본 연구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경남형 돌봄모델 개발을 위한 학생, 학부모, 지자체 담당자들의 요구 및 경남 18개 시군별 유형화 및 특성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다음 [그림 V-1]과 같은 기본 방향에 근거하여 민-관-학 돌봄 협력모델을 도출하였다.

민-관-학 돌봄 협력모델 개발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한 것은 학교의 지역사회 활용 측면에서 돌봄 공간으로 ‘학교 공간을 우선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학교는 지역과 단절된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심기관이며, 초등돌봄에서 학부모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전’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돌봄공간으로 학부모들이 가장 신뢰하고 선호하는 공간은 학교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그림 V-1] 돌봄 협력모델의 기본 방향

또한 지역 내 돌봄 공간으로 새로운 공간 및 시설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학교 유휴공간 활용을 주목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인구 감소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교 안 유휴교실 및 공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학교 안 공간을 활용하여 초등돌봄 기능을 강화하거나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반대로, 학생 수 과밀로 학교 안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한 대도시 지역의 경우는 일차적으로 활용가능한 학교 공간이 있다면 학교 안 공간을 활용하여 초등돌봄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만, 학교 밖 공간을 활용해야 할 경우에는 돌봄 활용이 가능한 지역사회의 공간을 확보하여 학교 밖 돌봄을 운영할 수 있다(김민희 외, 2020).

다음으로, 학교와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온종일 돌봄 정책에 기초하여, 방과후 활동 및 돌봄을 위해 지역 내 활용가능한 인적·물적 자원 여부를 고려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방과후 활동 및 돌봄을 위해 동원가능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반대로 지역사회 내 활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대도시의 경우에는 민간(단체)의 전문성 및 조직 간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다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지역유형별 돌봄모델 제안

앞에서 기술한 민-관-학 돌봄 협력모델의 기본 방향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지역 유형에 맞는 세 가지 유형의 민-관-학 돌봄 협력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러나 지역 기반의 초등돌봄은 지역 내의 돌봄 수요 및 인적·물적 자원, 민·관·학 돌봄 거버넌스 구축 정도, 돌봄 정책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초등돌봄의 운영형태, 운영주체, 프로그램, 지역의 자원 활용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지역 기반의 맞춤형 초등돌봄 모델 설계 및 운영에 있어서 지역별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이지만, 지역의 개별적인 다양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지역사회 기반의 초등돌봄을 위한 표준화된 단일 모델은 존재하기 어렵다(김은정 외,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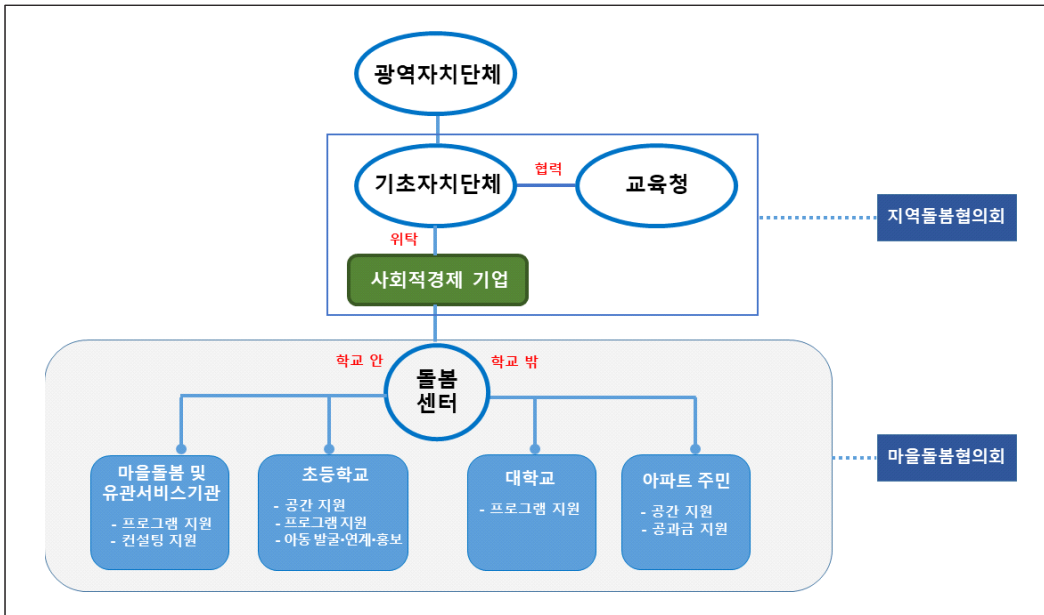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초등돌봄을 위한 ‘지역’은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서 실제 아동의 방과후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소생활권 단위로, 보다 세분화된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와 분석이 필요하다. 즉 지역 간뿐만 아니라 지역 내 특정 행정동 안에서도 거주 장소 및 주변 환경 등 다양한 외부적 요인들에 따라 돌봄 생태계는 양적·질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지역 내 특성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소생활권 단위의 돌봄체계 구축 및 지역특화형 돌봄모델 설계를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3가지 유형의 돌봄 협력모델은 경남의 지역 유형화에 따른 하나의 돌봄모델(안)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며, 같은 시·군 내에서도 소지역별 특성에 따라 즉 생활단위별로 적합한 공간과 시설의 활용, 주변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특색 있는 돌봄 운영모델 및 다양한 운영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돌봄 협력모델은 각 지역 유형 간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의 조건 및 여건에 따라 선택 및 조합이 가능하다.

가. 사회적경제형 돌봄 협력모델

창원과 같은 대도시 지역에 속하는 군집1은 공적돌봄 공급 수준이 낮아 지역 중심의 돌봄 수요가 높고, 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 및 물적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이다. 따라서 군집1 지역에는 [그림 V-2]와 같이,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민간단체나 기관이 주도하고 지자체와 교육청(학교)이 협력하여 돌봄을 운영하는 사회적경제형 돌봄 협력모델을 제안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형 돌봄 협력모델은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재원과 민간의 인력이 협업하여 돌봄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즉 학교 안 공간 또는 학교 밖 공간에서 민(예: 사회적협동조합, 학부모 협동조합, 마을학교 등)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형태로, 민이 전반적인 돌봄 운영을 책임지고, 지자체와 교육청은 돌봄 예산을 지원하는 민주도-관지원의 돌봄 운영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림 V-2] 사회적경제형 돌봄 협력모델

학교에 활용가능한 유휴공간(예: 유휴교실, 도서관 등)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학교 안 공간을 돌봄 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으나, 학교 안의 유휴공간이 없을 때에는 지자체 소속의 주민센터나 복지관, 공공도서관이나 아파트 내 유휴공간 등과 같은 학교 밖의 마을 공간을 돌봄 공간으로 활용한다. 학교 밖 마을공간을 활용할 때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나 집과의 접근성 및 이동성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경제형 돌봄 협력모델의 각 참여 주체별 역할을 제시하면 다음 <표 V-1>과 같다. 지자체는 돌봄 예산 확보 및 인력 채용 등 돌봄 운영을 총괄하며,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교육청은 돌봄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제반 사항을 지원하며, 지자체와 학교 간의 협력적 관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학교는 학교 내 활용가능한 공간을 제공하며, 돌봄 홍보 및 이용 안내 등과 같이 돌봄의 주체인 학생과 돌봄기관 간의 각종 매개체 역할을 수행한다.

민간(지역사회)은 지자체, 교육청, 학교 간의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돌봄센터를 운영하며, 마을자원을 연계·활용하면서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 및 돌봄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지역의 돌봄기관 및 유관서비스 기관 간의 마을돌봄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표 V-1〉 사회적경제형 돌봄 협력모델 참여 주체별 역할

지자체	교육청	학교	민간(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예산 확보 및 운영 총괄 ▪ 돌봄 인력 채용 및 관리 ▪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운영 ▪ 학교 밖 활용가능한 돌봄 공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제반 사항 지원 ▪ 돌봄 예산 지원 ▪ 지자체와 학교 간 협업 체계 구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내 활용가능한 돌봄 공간 제공 ▪ 돌봄 홍보 및 이용 안내 ▪ 프로그램 지원 ▪ 돌봄의 주체인 ‘학생’과 관련된 각종 ‘매개체’ 역할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센터 운영 및 돌봄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 노력 ▪ 마을자원 발굴 및 연계 노력 ▪ 마을돌봄협의체 구성·운영 ▪ 지자체, 교육청, 학교와의 소통 구조 마련

사회적경제형 돌봄 협력모델은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마을학교 등 돌봄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진 민간 비영리 단체가 돌봄을 위탁받아 운영함으로써, 학교는 학교 본연의 교육활동에 더욱 충실할 수 있고 또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표 V-2〉와 같이, 마을자원을 연계하여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 운영 및 급·간식 제공, 이동 차량 제공, 틈새돌봄 제공 등 기존의 학교돌봄만으로 학부모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돌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형 돌봄 협력모델은 지역사회가 지역의 아동을 함께 키운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즉 지역의 초등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 수요 당사자인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사회적경제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협동과 연대, 참여에 기반한 협력형 초등돌봄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 지원 및 마을교육 분야에서의 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돌봄센터를 마을공동체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의 조직 운영 경험 및 역량에 따라 돌봄센터 운영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지역사회 내 돌봄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확보하는 데 따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김은정 외, 2019). 따라서 돌봄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위해 담당자들 대상의 정기적인 교육 및 연수 등을 제공함으로써, 돌봄 담당자들의 역량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나 재능기부자, 노인 인력 등을 돌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원봉사회, 주민자치회, 종합복지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표 V-2〉 마을자원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례_경기도 오산시

서비스 제공	기관명	내용
시설 공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마을 내 초등학생 돌봄공간 제공(최소 66㎡이상) (무상 사용기간은 최소 10년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에 변경 가능)
	동 행복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간 협조(예: 체력증진실(탁구수업))
프로그램 지원	(재)오산교육재단	학부모 강사 연계 초등돌봄 교육프로그램 제공
	오산체육회	체육회 강사 지원으로 초등돌봄 체육프로그램 제공
도서지원	오산시 중앙도서관	마을 내 초등 돌봄시설 순회문고 운영 (6개월 단위 최대 500권 대여, 대여기간 연장 가능)
등·하원 알림	오산시 정보통신과	사물인터넷 기반 등·하원 알림 안심서비스 시스템 구축
급·간식	오산 사회적경제 협의회	마을 내 초등돌봄 이용아동의 건강한 급·간식 지원
마을지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동대표회의	• 아파트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및 돌봄센터 등 프로그램 공유 협업
		• 동대표회의: 아파트 내 돌봄센터 이용아동 간식 후원(일부)

출처: 한미영 외(2019). 경남형 돌봄체계 구축 방안 연구(I). P.112.

위에서 살펴본 사회적경제형 돌봄 협력모델의 장·단점을 요약하면 다음 〈표 V-3〉과 같다.

〈표 V-3〉 사회적경제형 돌봄 협력모델의 장단점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내 협동과 연대, 참여에 기반한 협력형 초등돌봄 모델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 제공 ▪ 마을공동체 플랫폼으로써의 역할 ▪ 교원의 돌봄 업무경감 및 교육청 예산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의 돌봄 역량에 따른 돌봄서비스의 질 차이 발생 ▪ 지역 내 돌봄 네트워크 구축 및 확보의 어려움 ▪ 수익자 부담이 커질 우려

■ 운영 사례

1. 전북 완주군 풀뿌리교육지원센터 운영

- 학부모 및 지역사회 주민 등의 자생적인 모임을 기반으로, 관(완주군청 및 완주교육지원청)이 지원하여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한 민 주도·관 지원의 대표적인 사례
 - 완주군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해오던 고산면 온누리살이 사회적협동조합이 고산풀뿌리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고산초와 삼우초 방과후학교 및 돌봄을 위탁받아 운영
 - 소양면의 학부모 단체인 소양의 꿈을 키우는 사람들(이후 소꿈사) 협동조합이 소양풀뿌리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소양초와 소양중의 마을방과후학교 운영 및 저녁돌봄, 방학 중 돌봄을 운영

□ 지역 특성

- 전형적인 도농복합지역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며, 맞벌이가구 비율이 높아 초등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임
- 지역사회 주민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 등 민간자원이 활성화된 지역으로, 로컬푸드, 로컬에듀 등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상호 협력하는 지역적 특색이 강한 지역임

□ 운영 현황

- 고산풀뿌리교육지원센터: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및 토요·방학 중 마을학교 운영
 - 고산초와 삼우초의 평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운영
 - 겨울 풀뿌리마을학교(13:00~16:30)는 삼우초에서, 여름 풀뿌리마을학교(9:00~12:30)는 고산초에서 프로그램 운영
- 소양풀뿌리교육지원센터: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마을돌봄 운영
 - 소양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위탁운영하고, 소양면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시간(~19:30)에 급·간식을 제공하는 등 마을돌봄 운영
- 손가락 공동육아나눔터: 방과후 놀이창고 운영
 - 학부모 자조모임인 손가락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초등학교 방과후돌봄의 일환으로 방과후 놀이창고와 고산동네 탐험대 프로그램(15:30~18:30) 운영
 - 삼우초 학생은 스쿨버스 이용, 고산초 학생은 학부모 자원봉사자 차량 이용

2. 경기 포천시 신북마을 온종일 돌봄센터 운영

□ 경기도교육청의 공모사업(경기 미래형 돌봄교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책상없는학교 협동조합이 관의 지원을 받아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사례

□ 지역 특성

- 경기 포천시 신북면은 초등학교가 많고 신평공단 조성으로 맞벌이 가정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의 유입이 많아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임
- 포천시 신북면을 중심으로 중북부 지역은 학교돌봄 이외의 아동 보육시설이 전무하여 ‘사회적 돌봄망’ 구축이 시급함

□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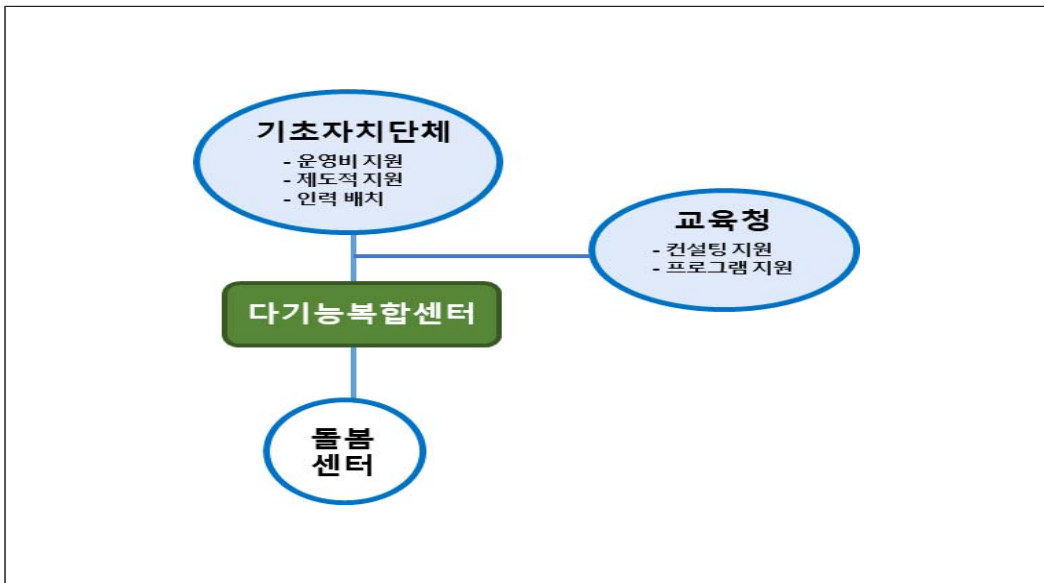
- 운영교실: 돌봄1반(오후 돌봄반), 돌봄2반(온종일반)
- 운영대상: 1~3학년 중 온종일 돌봄 필요 아동(맞벌이, 한부모, 조손가정 등)
- 운영시간: 오후돌봄(14:00~17:00), 저녁돌봄(14:00~20:00), 방학 중(08:30~16:30)
- 이용료: 간식 1식 1,500원, 급식 1식 5,000원, 프로그램 수강 28,000원
- 신북 복지회관에 있는 돌봄교실을 거점으로 인근 초등학교 돌봄 필요 아동을 위한 차량 지원
- 프로그램 운영: 마을 인적자원 및 유관기관을 연계하여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

협력기관	기관명	역할
사회적경제	책상없는학교	공간제공, 강사풀, 프로그램 제공, 학부모네트워크
대학	차의과학대학교	미술심리상담, 멘토링(숙제 및 기초학습지도)
마을자원	신북면 마을회	차량지원, 안심지역, 마을사람책(절기별 전래놀이)
유관기관	마을수영장, 신북면 소방서, 파출소	수영교습, 안전교육, 직업체험
인근학교	신북, 왕방, 외북, 금주초	아동보육 네트워크

나. 복합센터형 돌봄 협력모델

진주, 김해, 거제, 양산과 같은 중소도시 지역에 속하는 군집2 지역은 경남에서 공적 돌봄수용률이 가장 낮아 돌봄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또한 경남에서 인구소멸 위험지수가 가장 낮고 향후 초등학생 수 감소 비율도 가장 낮은 젊은 중소도시이다. 즉 초등돌봄 수요가 많아 학교 안 돌봄 공간이 부족하고, 아직 주변의 기반 시설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이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에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돌봄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이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복합센터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에 군집2 지역에는 [그림 V-3]과 같이, 복합센터형 돌봄 협력모델을 제안할 수 있다.

복합센터형 돌봄 협력모델은 지자체가 설립한 다기능복합센터에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식이다. 다기능복합센터에는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 공간뿐만 아니라 공동육아시설, 도서관, 청소년문화시설, 마을카페 등 다양한 복합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림 V-3] 복합센터형 돌봄 협력모델

복합센터형 돌봄 협력모델에 참여하는 주체별 역할은 다음 <표 V-4>와 같다. 지자체는 주도적으로 학교 밖 돌봄 활용이 가능한 지역사회 공간을 확보하여 제공하고 시설 리모델링 및 운영비를 지원하며, 학생 관리, 돌봄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인력 채용 등 돌봄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지자체는 교육청, 초등돌봄교실, 마을돌봄 및 유관서비스 기관의 돌봄 종사자들을 포함하여 지역돌봄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교육청은 기존의 돌봄 경험을 바탕으로 돌봄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제반 사항을 지원하며, 돌봄 관련 컨설팅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지자체와 협업한다.

학교는 교육청의 돌봄 수요조사를 지원하며 다기능복합센터 홍보 및 학생을 지원한다.

<표 V-4> 복합센터형 돌봄모델 참여 주체별 역할

지자체	교육청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산 확보 ▪ 돌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 돌봄협의체 운영 ▪ 학생 관리 및 질 높은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인력 채용 및 관리 ▪ 성과 관리(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개선 및 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제반 사항 지원 ▪ 돌봄 운영 관련 컨설팅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돌봄 수요조사, 홍보 등 지원 ▪ 교사, 학부모 등 협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수요조사 지원 ▪ 돌봄센터 홍보 및 학생 지원

복합센터형 돌봄 협력모델은 교육·문화·복지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센터 내 기관 간의 돌봄서비스 연계 및 협력이 용이하고, 초등돌봄뿐만 아니라 지역의 유아, 아동·청소년, 지역주민 대상의 복합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복합센터 내 각종 시설의 운영 및 관리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

그러나 복합센터형 돌봄 협력모델은 센터 위치 선정부터 시설 설치 비용, 센터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아동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차량 운행비, 인건비 등 지자체

체의 예산 확보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복합센터형 돌봄 협력모델의 장·단점을 요약하면 다음 <표 V-5>와 같다.

<표 V-5> 복합센터형 돌봄 협력모델의 장단점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민 대상의 복합커뮤니티 공간 제공 ▪ 센터 내 기관 간의 연계 및 협력 용이 ▪ 다양하고 질 높은 돌봄 프로그램 제공 가능 ▪ 지자체 예산 운영의 효율성 ▪ 마을 인력 활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설치 예산 및 센터 관리 부담 ▪ 돌봄 이용대상자 제한적(센터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아동 이용 어려움) ▪ 학생 이동의 안전성 문제

■ 운영 사례

1. 충남 홍성군 '아동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 홍성군이 학교 내 공간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아파트 단지 내 아동통합지원센터(영유아, 아동·청소년, 가족 문화 공간을 한 공간에 담은 복지시설)를 설치·운영하는 사례

□ 지역 특성

- 충남도청이 홍성군으로 이전하면서 신도시 건설과 함께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공존하는 도농복합 형태의 새로운 지역 환경이 조성됨
- 관내 아동 인구는 읍면 간 인구밀도 차이가 있어, 2개읍(홍성읍, 홍북읍)에 가장 밀집되어 있음
- 홍북읍(내포신도시)은 젊은층 인구 유입으로 매년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주변에 지역아동센터나 아동복지시설 등이 전무하며, 과밀학급 현상으로 학교 내 활용가능한 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임

□ 운영 현황

- 위치: 홍북읍 내포내주공단지 내
- 운영주체: 홍성군 직영(홍성군-내대전본부-내입주자대표 간 협약)
- 시설 현황: 센터 내에 방과후 돌봄센터 이외에 6개 시설이 공존
 - 방과후돌봄교실(400m², 급식소 포함)
 - 공동육아나눔터(85m²)
 - 청소년동아리방(200m²)
 - 가족카페((91m²)
 - 도서관·독서실(336m²)
- 운영대상: 돌봄이 필요한 초등 전 학년(소득수준 무관)
- 돌봄교실: 돌봄 전용교실 3실
- 운영시간: 학기 중(13:00~19:30), 방학 중(08:30~15:30)
- 돌봄인력: 돌봄교사 4명(전담관리사1, 돌봄교사 3)
- 급·간식 제공

다. 거점형 돌봄특화 협력모델

농어촌 지역에 속하는 군집3 지역은 돌봄서비스 공급 수준은 도시 지역에 비해 높으나 돌봄 수요가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시설 접근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돌봄 공백이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다. 또한 지역 내 초등돌봄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하고는 초등돌봄을 위해 동원가능한 유관 서비스 기관 및 인적 자원이 부족한 특징을 가진다.

군집3과 같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 및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 내 돌봄 관련 인적 자원 및 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자체 또는 공적 돌봄서비스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유해미 외, 2018). 또한 이러한 지역에서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학교 밖 돌봄 공간을 마련하기보다는 기존의 공적 돌봄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일정 시설인 초등학교 돌봄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군집3 지역에는 [그림 V-4]와 같이, 대표적인 공적 돌봄기관인 초등학교나 지역아동센터를 거점으로 하여 지자체가 돌봄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방식인 거점형 돌봄특화 협력모델을 제안할 수 있다.



[그림 V-4] 거점형 돌봄특화 협력모델

거점형 돌봄특화 협력모델의 참여 주체별 역할을 제시하면 다음 <표 V-6>과 같다. 지자체는 돌봄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예산 및 돌봄 인력을 지원한다.

교육청은 학교와 협력하여 학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와 함께 돌봄 운영에 대한 비용을 일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다.

학교는 돌봄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돌봄센터 홍보 및 학생을 지원한다. 특히 거점형 돌봄특화 협력모델에서는 군 지역의 특성상 거점형 돌봄센터인 초등학교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권역별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거점형 돌봄센터와 학교, 집을 연결하는 차량 지원은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표 V-6> 거점형 돌봄특화 협력모델 참여 주체별 역할

지자체	교육청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예산 확보 및 운영 총괄 ▪ 인력 채용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거점학교 선정 추천 ▪ 돌봄 예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공간 제공 ▪ 돌봄센터 홍보 및 학생 지원 ▪ 돌봄센터와 협력 관계 유지

거점형 돌봄특화 협력모델은 학교 안의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임대료 등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 학생들이 평소 생활하는 학교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적응 및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다. 또 학교의 많은 가용 자원들(예: 방과 후 프로그램, 운동장, 양호실 등)을 이용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및 다문화 가구 비율이 높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은 농어촌 지역의 특징을 반영하여, 학교에서 초등돌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 다문화 학생 특화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다. 즉 거점형 돌봄교실을 통해 돌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및 다문화 교육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 원스톱 서비스 센터로서의 역할도 가능하다.

그러나 거점으로 운영되는 학교나 지역아동센터로의 이동의 번거로움 및 이동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 또 거점학교 소속이 아닌 학생들의 경우 해당 학교에서의 이질감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자체 직영(또는 위탁) 학교 안 돌봄교실 운영의

경우, 돌봄 운영에 따른 안정적인 예산 확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학교 시설의 용도 변경, 채용인력의 소속 변경 및 정규직 전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가 직영(또는 위탁)으로 돌봄을 운영하더라도 학교장과 교직원의 협조와 지원이 없다면 돌봄교실 운영의 질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와의 협업 관계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내 사회복지사가 있다면 이들을 중간 매개자로 활용하여, 학교와의 의견 조율 및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거점형 돌봄특화 협력모델의 장·단점을 요약하면 다음 <표 V-7>과 같다.

<표 V-7> 거점형 돌봄특화 협력모델의 장단점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공간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학생들의 적응도 및 학부모 신뢰도 높음 ▪ 학교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 연계 활동 가능 ▪ 돌봄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가능(아동복지 원스톱 서비스 센터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예산 확보 ▪ 거점형 학교나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 및 안전상의 문제 ▪ 거점형 인근학교 학생들의 이질감(예: 심리적 위축감) ▪ 학교장과 교직원의 협조 및 지원 필요(중간의 매개자 역할 필요)

■ 운영 사례

1. 충남 홍성군 홍주초(거점형) 방과후 돌봄센터 운영

□ 홍성군이 교육(지원)청, 학교와 협력하여 홍주초를 거점으로 하여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사례

□ 운영 현황

- 운영주체: 홍성군 직영(지자체-교육지원청-초등학교 MOU)
 - 홍성군: 사업 예산 확보 및 운영 총괄, 인력 관리
 - 교육지원청: 돌봄학교 선정 추천, 사업 예산 지원
 - 초등학교: 시설 무상 임대, 돌봄 홍보 및 이용 신청 안내
- 운영대상: 돌봄이 필요한 초등 전 학년(소득수준 무관)
- 돌봄교실: 돌봄 전용교실 2실
- 운영시간: 학기 중(13:00~19:30), 방학 중(08:30~15:30)
- 홍주초 재학생 외에 인근학교(홍남초) 이용 희망학생이 홍주초로 이동하여 돌봄교실 참여, 홍남초↔홍주초 간 셔틀버스 운행(1일 2회)
- 돌봄인력: 전일제(12:00~20:00, 8시간) 돌봄교사 2명
- 내실 있는 돌봄교실 운영 및 학생 안전관리를 위한 봉사인력 채용 및 활용
- 외부강사를 활용한 매일 1개 이상 놀이·인성 프로그램 운영, 기관 간 업무협약 등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프로그램 활용
 - 소방서(안전교육), 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폭력예방교육)
 - 지역아동센터(프로그램 공유)
 - 우체국, 복지관(기부프로그램 활용) 등
- 급·간식 제공

2. 울산 울주군 언양초 내 '여럿이함께 지역아동센터' 운영

□ 학교 공간(현재 4층 2개실 규모)을 활용하여 민간 지역아동센터가 돌봄교실(행복누리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사례

□ 지역 특성

- 울산광역시에 속하지만 울산의 외곽 지역에 위치한 전형적인 도농복합형 지역임

- 다문화가정 및 맞벌이 가정이 상대적으로 높아 초등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음
- 돌봄 관련 지역 인프라 및 민간의 자생적 활동이 약한 반면, 소지역별로 학교 공간의 활용 가능성은 높은 편임

□ 운영 현황

- 2015년 언양초등학교가 위탁·운영 협약을 통해 민간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 학교 예산을 활용해 시설 개조, 학교-교육청(학교시설단)-울주군청의 협의로 공간 용도 변경
- 시설 임대료는 무료이며, 공과금 5만원을 학교에 별도 납부
- 운영인력: 센터장과 생활복지사가 근무하며, 생활복지사 고용 및 기타 운영비는 울주군 예산 활용
- 운영시간: 학기 중(10:00~19:00), 방학 중(08:30~17:30)
- 간식 및 저녁 제공
- 돌봄교실 이용료: 전액 무료

3. 수원 서호초 내 수원시립서호지역아동센터(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 지자체가 학교 유휴공간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방과후 프로그램 및 돌봄을 운영하는 사례

□ 운영 현황

- 수원시청-경기도교육청-서호초 간 업무협약을 통해 서호초 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
- 수원시 예산으로 서호초 내 유휴교실(서관동) 리모델링(3층 보통교실 5실 규모)

3층	아동친화도시 방과후 여가센터	사무실	화장실	화장실	집단프로 그램실1	집단프로 그램실2	<계단>	조리실, 식당
----	-----------------------	-----	-----	-----	--------------	--------------	------	------------

- 지역아동센터에서 서호초 내 돌봄학생을 전원 수용하여 통합 운영
- 운영주체: 지자체 운영(사단법인 아이길벗 위탁)
- 운영인력: 시설장 1, 생활복지사 3(수원시청 배치)
- 운영시간: 평일(11:00~20:00), 토요일: (09:00~14:00), 공휴일, 일요일 휴무

3. 민-관-학 돌봄 협력체계 구축 방안

정부의 온종일 돌봄정책 및 저출산·고령화, 지방자치 시대에 발맞추어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 교육(지원)청,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돌봄 수요와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특화형 돌봄서비스 모델을 개발·확산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지역이 중심이 되는 돌봄 정책의 변화에 따라, 최근에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마을교육의 일환으로 지역의 방과후 활동 및 돌봄을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이전하는 사례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양병찬 외, 2019). 또한 각 자치단체에서는 학교부지를 활용한 생활 SOC사업이나 학교시설 복합화에 근거해 학교 공간을 지역주민의 공공 공간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를 마을교육공동체의 거점으로 삼아 돌봄 및 방과후학교 마을협력을 도모하고 있다(강현주, 2017).

지방자치 시대로의 전환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학교와 마을이 연계·협력한 돌봄 생태계 구축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현재 초등돌봄과 관련되어 제기되고 있는 돌봄 사각지대 및 돌봄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기존의 공적 돌봄기관에서 충족시킬 수 없었던 다양한 돌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중심의 민-관-학 돌봄 협력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민’은 돌봄과 관련된 민간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돌봄 수요 당사자인 학부모를 비롯하여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과 같은 사회적경제 기업 등을 모두 포함한다. ‘관’은 행정자치 단체인 지자체와 교육자치 단체인 교육(지원)청의 양 기관 모두를 말하며, ‘학’은 초등학교를 말한다.

민-관-학 돌봄 협력체계 구축은 지역중심의 돌봄공동체를 통한 초등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다양한 학부모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돌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 내 공적 돌봄기관 및 유관 서비스 기관, 그리고 민간단체 간의 연계·협력을 통해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돌봄 협력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유해미 외,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관-학 돌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가. 온종일 돌봄 조례 제정

민-관-학 돌봄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모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온종일 돌봄 통합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은 아직 명확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돌봄의 권한을 학교나 지방자치단체 그 누구에게도 전적으로 지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사회 내에서 돌봄에 대한 참여 및 이해 부족이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교육청(학교)-민간단체 간의 협력 돌봄 운영의 확대를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돌봄을 시행하는 각 부처가 분절적·단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인력을 배치하며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사용 등에서도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돌봄 협력체계 구축에 큰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다.

돌봄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근거 없이는 지자체 내 전담조직 구성 및 인력 배치, 예산 확보 등이 어렵기 때문에 돌봄사업 추진 자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돌봄과 관련된 근거법을 제정하여 지자체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의 추진 동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례의 형태는 초등학생 방과후 지원 조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과 같이 단일시설 중심의 조례를 각각 제정하기보다는 돌봄기관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추구하는 온종일 정책 방향에 맞추어 통합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행정적 측면이나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장명림 외, 2020).

나. 지자체 내 돌봄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 배치

지자체 내에 돌봄 사업의 통합적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돌봄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전담조직의 주요 기능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돌봄 협력체계 및 연계망 구축, 돌봄 시설 설치·운영·관리·지원·위탁, 돌봄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온종일 돌봄 콘텐츠 발굴 및 확산, 돌봄 사업 및 시설에 관한 홍보 등 다양하다(장명림 외, 2020). 따라서 지자체가 초등돌봄 업무의 기본계획 수립부터 운영 및 지원 등을 통한 통합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돌봄 전담조직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돌봄 전담조직은 돌봄 운영 과정에서 민-관-학 협력의 촉진자,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인력 구성의 전문성 및 지속성이 어느 정도 담보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지자체 담당자 직무연수, 지자체와 교육청 돌봄 담당자 간 공동 연수 등을 통해 돌봄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다. 학교시설 개방 및 공유에 따른 법적 제도화 및 혜택 제공

지자체가 학교 안의 활용가능 교실 및 공간을 활용하여 상시 및 틈새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공유이다. 따라서 학교시설 개방·공유에 대한 제도적 보장체제 마련 및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및 사후처리 문제에 대한 부담으로 학교시설의 개방·공유에 적극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 공간 및 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개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해 안전 확보 및 책임 소재 문제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되 시설, 관리비용 및 인력 제공 등에 대한 운영과 책임은 지자체에 있음을 명문화해야 한다.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화성시의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나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고할 수 있다. 화성시 이음터는 기존의 학교부지 일부에 지자체의 재원으로 설치한 대표적인 학교복합시설로, 화성시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부지 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장 관련 조항을 명문화하였다.

제6조 (학생안전 및 학습권 보장) ① 시장은 학교복합시설 해당학교의 학생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종 안전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복합시설에서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과시간 내에는 해당학교장, 그 이외에는 시장이 보상하도록 한다.

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 15 조(보험) 사항을 참고할 만하다.

제15조(보험)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또한 학교시설 개방·공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틈새돌봄과 관련한 지자체(직영 및 위탁운영 포함)의 인적·물적 자원을 학교의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에 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학교장 인센티브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김민희 외, 2020).

라. 돌봄 참여 주체별 역할 규정 및 책임 분담

돌봄과 관련하여 교육청 및 학교가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지역의 시·군·구청과 함께 풀어나가고, 양 기관의 협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은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해 나감으로써 집단지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한미영 외, 2020). 돌봄 사업은 어느 한 기관의 관심과 책임만으로 운영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여 주체별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각 주체별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도 필요하다. 따라서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 협력에 참여하는 주체별 명확한 역할 규정 및 역할 분담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돌봄 참여 주체별 역할은 다음 <표 V-8>과 같다. 지자체는 돌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돌봄협의체 운영, 돌봄 사업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등 관리 책임, 돌봄 운영을 위한 인력 채용 및 관리, 성과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교육청은 돌봄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제반 사항 지원, 학교와 지자체, 지역사회 간 협업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학교는 학교 내 활용가능한 돌봄 공간을 제공하며, 교사·학생·학부모 등의 협력을 지원한다.

〈표 V-8〉 돌봄 참여 주체별 역할

구분	세부 내용
지자체	▪ 돌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돌봄협의체 운영
	▪ 지역 내 돌봄 통합운영 계획 수립
	▪ 돌봄사업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등 관리 책임
	▪ 학생 관리 및 질 높은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돌봄 운영을 위한 인력 채용 및 관리
	▪ 성과 관리 등
교육청	▪ 돌봄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제반 사항 지원
	▪ 학교와 지자체, 지역사회 간 협업체계 구축 지원
학교	▪ 학교 내 활용가능한 공간 제공
	▪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협력 지원
지역사회(민간)	▪ 돌봄 공간 제공
	▪ 돌봄 운영 및 돌봄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 노력
	▪ 지자체, 교육청 및 학교와의 소통 구조 마련
	▪ 기존 돌봄교실과의 협조 및 운영 지원

출처: 김민희 외(2020). 지자체-학교 간 협업을 통한 돌봄모델 발굴 및 확산. P.134. 재구성

지역사회(민간)는 돌봄 공간 제공, 돌봄 운영 및 돌봄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 노력, 지자체, 교육청 및 학교와의 소통 구조 마련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마. 민·관·학 돌봄 상시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자체,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민간) 간의 상호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만남의 기회를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 관계자, 돌봄서비스 및 유관서비스 기관 간의 민·관·학 협력기구로서 실질적인 지역돌봄협의체 및 마을돌봄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민과 관은 서로 다른 문화 및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입장 차이도 존재한다. 민은 관의 시스템을 잘 모르고, 관은 민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같은 관이라도 지자체(일반자치)와 교육청(교육자치) 간의 성격의 차이도 존재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성격의 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들 사이의 소통 및 협력을 위해서는 자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필수적이다(한미영 외, 2020). 이러한 상시 협의체를 통해 민-관뿐만 아니라 관-관 협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자체와 교육청 간에는 최고위층, 중간관리층, 실무진 등 층층의 다양한 상시 협의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관·학 돌봄 참여 주체들 간의 상시 협의체를 통해 지역의 돌봄 수요 및 지역 내 동원가능한 자원을 파악하여 돌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돌봄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소지역별, 생활권역별 단위의 지역 및 마을돌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현주(2017). 돌봄 및 방과후학교 마을협력 연계 방안. 희망이슈, 제32호, 1-22.
- 관계부처합동(2019.11.18.).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제공 추진계획.
- 김근진, 박은정(2019). 초등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쟁점 및 개선방안.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함께 하는 초등돌봄을 위한 육아정책의 과제.
- 김민희, 박소영, 이지혜, 이희현, 김주영(2020). 지자체-학교 간 협업을 통한 돌봄 모델 발굴 및 확산.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선숙, 임세희(2018). 지역사회 및 가구의 특성이 아동의 방과후 시간사용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한국복지패널 학습대회 논문집, 11권, 185-199.
- 김성식(2012). 학생 배경과 방과후 활동에 따른 초등학생의 학교 적응도 차이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2(3), 27-47.
- 김영란, 조선주, 선보영, 배호중, 김진석, 정영모(2018). 초등학생 돌봄 실태 파악 및 수요 분석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은정, 홍진주, 정세미, 김현진, 한서은(2019). 지역사회 초등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 모델 연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남승연, 이경민(2019). 경기도형 돌봄체계 구축 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노경섭(2019). **제대로 알고 쓰는 논문 통계분석**. 서울: 한빛아카데미.
- 노성향(2012).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취업모의 인식 및 요구. **인간발달연구**, 19(3), 21-40.
- 노혜진(2014). 부모의 교육적 동질함에 따른 자녀 돌봄시간 불평등. **사회복지정책**, 41(4), 181-200.
- 박혜준(2019). 초등자녀 돌봄에 대한 부모와 마을활동가들의 인식과 경험: 새로운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중심으로.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함께 하는 초등돌봄을 위한 육아정책의 과제.
- 안현미, 전미양, 김아래미, 김형모, 최현임(2019). 우리동네키움센터 모델개발 및 전달체계 구축 연구. 서울특별시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양병찬, 김용련, 이진철, 조운정, 전광수, 이유진, 정혜미(2019). 혁신교육지구

- 사례 분석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체제 구축 방안 연구. 교육부.
- 오현정, 황원경(2019). 2019 한국 워킹맘보고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 유해미, 이윤진, 박은영(2018). 아동 돌봄 분야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이봉주, 조미라(2011). 방과후 방치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36호, 7-33.
- 이채정(2016). 아동복지사업 평가: 요보호아동 보호자립지원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 이희현, 장명림, 황준성, 유경훈, 김성기, 김위정, 이덕난, 김보미(2019).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실태 및 개선과제: 우수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임지훈(2019). 시민의 돌봄부담 제로(zero)인 ‘돌봄특별시’를 위한 돌봄SOS센터 추진. 복지이슈 TODAY.
- 임혜정(2017).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공백과 교육적 함의. **교육사회학연구**, 27(4), 137-169.
- 임혜정, 김경근(2018). 취업모 가정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후 돌봄공백이 학습활동 적응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교육수준별 교사-학생 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24(2), 223-251.
- 장명림, 박성철, 정연아, 이지미, 김보미(2020).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확산을 위한 지역 돌봄 운영 지원 방안: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업무매뉴얼 개발을 중심으로.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정영모(2019). 초등돌봄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복지동향, 제252호.
- 정혜지(2016). 가구소득이 아동의 생활사건에 미치는 영향: 부모 양육방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정미, 오선영(2004). 초등학교 저학년의 방과후 보호형태에 따른 생활실태 및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6(2), 85-97.
- 한미영(2020). 경남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방안. 경남교육정책 지금, Vol. 2.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 한미영, 곽형준, 이영선, 인진혜(2020). 경남 마을교육 중간지원조직 설립 방안 연구.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한미영, 윤연경, 김성연(2019). 경남형 돌봄체계 구축 방안 연구(I): 지역사회 중심의 초등돌봄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Lord, H., & Mahoney, J. L. (2007). Neighborhood crime and self-care: Risks for aggression and lower academic perform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43*(6), 1321-1333.

Posner, J. K., & Vandell, D. L. (1994). Low income children's after school care: Are there beneficial effects of after school programs? *Child Development, 65*(2), 440-456.

Shumow, L., Smith, T. J., & Smith, M. C. (2009). Academic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young adolescents in self-care.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9*(2), 233-257.

<부록 1> 진주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진주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4. 8.]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567호, 2020. 4. 8., 제정]

경상남도 진주시(아동보육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초등학교 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문화활동 및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온종일 돌봄"이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포함하여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온종일 돌봄 시설"이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에게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지역공동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장 온종일 돌봄 정책 및 사업

제3조(종합 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온종일 돌봄 종합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온종일 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온종일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① 시장은 온종일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온종일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온종일 돌봄서비스 확대 사업
3.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온종일 돌봄 관련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온종일 돌봄서비스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6. 온종일 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하는 온종일 돌봄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5조(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 온종일 돌봄 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온종일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진주시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온종일 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
2. 온종일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온종일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은 돌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선출하며, 간사는 돌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시 및 교육 지원청 돌봄 업무 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지역 온종일 돌봄 시설 대표
3. 돌봄 분야 전문가
4. 시 소재 초등학교 돌봄 담당 또는 교사
5. 시 소재 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원활한 협의 처리를 위해 시와 교육지원청 돌봄 업무 담당 팀장 및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함께돌봄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온종일 돌봄 사업 확충 및 온종일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다함께돌봄센터

제12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온종일 돌봄 수요와 제공 여건을 고려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제공
2.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
3.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서비스

제13조(이용 우선순위) ① 센터 이용 아동 신청이 많은 경우 우선 순위는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순서로 하고, 동일 순위일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센터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 설치를 위해 장소를 무상임대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무상임대 주체와 협의하여, 해당 공동주택 아동을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이용료) ① 시장은 센터의 서비스 종류나 이용 아동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7.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8.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 ③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의 제반절차 등 규정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

업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호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수탁자는 관련 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수탁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센터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진다.
- ④ 수탁자는 센터 시설을 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수탁자는 아동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보험 가입, 아동학대 예방 및 안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 1. 시장이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수탁자가 관계 법규, 이 조례 및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 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공익상 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예산·결산) ① 센터장은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규정한 바를 따른다.

제19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 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장부와 서류 등을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20. 4. 8. 조례 제1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2> 함안군 다함께 돌봄 지원 조례

함안군 다함께 돌봄 지원 조례

[시행 2020. 5. 14.]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566호, 2020. 5. 14., 제정]

경상남도 함안군(아동드림스타트담당), 580-238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함안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절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초등학교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2세 이하의 사람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서비스”란 다함께 돌봄을 위하여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군수는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돌봄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한 감시, 평가, 제안과 관련된 사업

제5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군수는 돌봄 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군수가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함안군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센터 운영에 있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1. 이용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 2. 특별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 3. 그 밖의 지원 외의 발생 비용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
-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
-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제4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센터의 위탁) ① 군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조합·단체 중에서 선정한다.

-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3.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① 군수는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돌봄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함안군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원장은 돌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함안교육지원청 및 군 돌봄 업무 관련 공무원, 돌봄 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 돌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협의회는 민·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군수는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돌봄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의 관리, 운영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3> 2020. 범정부 초등돌봄 수요조사_18개 시군의 학년별 초등돌봄 필요 응답 인원 및 비율

(단위: 명, %)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전체	34,916 (39.9)	6,282 (18.0)	12,764 (36.6)	7,235 (20.7)	4,042 (11.6)	2,630 (7.5)	1,963 (5.6)
창원시	9,996 (36.3)	1,785 (17.9)	3,867 (38.7)	2,100 (21.0)	1,102 (11.0)	670 (6.7)	472 (4.7)
진주시	4,105 (44.0)	791 (19.3)	1,532 (37.3)	862 (21.0)	462 (11.3)	255 (6.2)	203 (4.9)
통영시	1,535 (46.1)	253 (16.5)	543 (35.4)	308 (20.1)	205 (13.4)	129 (8.4)	97 (6.3)
사천시	1,177 (45.7)	255 (21.7)	397 (33.7)	244 (20.7)	128 (10.9)	99 (8.4)	54 (4.6)
김해시	5,369 (33.5)	952 (17.7)	2,069 (38.5)	1,084 (20.2)	607 (11.3)	377 (7.0)	280 (5.2)
밀양시	922 (55.2)	128 (13.9)	344 (37.3)	176 (19.1)	130 (14.1)	86 (9.3)	58 (6.3)
거제시	3,633 (39.4)	642 (17.7)	1,311 (36.1)	825 (22.7)	410 (11.3)	275 (7.6)	170 (4.7)
양산시	2,771 (33.6)	572 (20.6)	1,060 (38.3)	552 (19.9)	289 (10.4)	190 (6.9)	108 (3.9)
의령군	252 (70.8)	35 (13.9)	82 (32.5)	48 (19.0)	36 (14.3)	28 (11.1)	23 (9.1)
함안군	1,043 (43.4)	172 (16.5)	305 (29.2)	214 (20.5)	150 (14.4)	110 (10.5)	92 (8.8)
창녕군	644 (53.9)	138 (21.4)	223 (34.6)	116 (18.0)	76 (11.8)	51 (7.9)	40 (6.2)
고성군	698 (54.2)	116 (16.6)	229 (32.8)	120 (17.2)	104 (14.9)	67 (9.6)	62 (8.9)
남해군	522 (63.9)	76 (14.6)	138 (26.4)	117 (22.4)	69 (13.2)	66 (12.6)	56 (10.7)
하동군	416 (74.0)	31 (7.5)	123 (29.6)	98 (23.6)	66 (15.9)	45 (10.8)	53 (12.7)
산청군	354 (70.1)	55 (15.5)	110 (31.1)	69 (19.5)	46 (13.0)	30 (8.5)	44 (12.4)
함양군	443 (49.2)	82 (18.5)	122 (27.5)	83 (18.7)	59 (13.3)	46 (10.4)	51 (11.5)
거창군	603 (65.4)	142 (23.5)	204 (33.8)	133 (22.1)	39 (6.5)	40 (6.6)	45 (7.5)
합천군	433 (74.0)	57 (13.2)	105 (24.2)	86 (19.9)	64 (14.8)	66 (15.2)	55 (12.7)

<부록 4> 돌봄서비스 관련 활용가능한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 돌봄서비스(프로그램 관련) 활용가능한 사회적경제 기업****① 사회적기업**

시군	기관명	유형	주요 사업내용
창원 (9)	사단법인 함께하는 여성	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형)	맞벌이 가정 영유아 보육 및 장난감 대여 서비스 사업
	주식회사 파이디아	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형)	전통놀이 및 문화예술체험 교육
	사단법인 경상남도장애청소년 문화교육진흥센터	사회적기업 (혼합형)	사회성 교육 및 활동 서비스 제공
	유한회사 예종	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형)	문화예술관련 교육
	사단법인 희망이름	사회적기업 (기타(창의.혁신)형)	장애인 오케스트라 및 장애아동 방과 후학교
	(주)해맑음	사회적기업 (혼합형)	창의적체험활동, 문화행사대행
	유한회사 함께걷는발달연구소	사회적기업 (사회서비스제공형)	특수교육, 특수체육
	주식회사 교육과비전	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형)	외국어학원
	주식회사 문화제작소보듬	사회적기업 (사회서비스제공형)	도서관 운영, 책놀이 돌봄
진주 (3)	진주시민미디어센터	사회적기업 (기타(창의.혁신)형)	영상미디어 교육
	새노리	사회적기업 (혼합형)	문화공연
	사단법인 에나누리	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형)	공연단체, 공연기획
통영 (2)	주식회사민들레누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형)	통영전통누비(가방, 지갑, 소품)
	아라마린서비스 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형)	해양레저 스포츠산업

시군	기관명	유형	주요 사업내용
김해 (4)	김해YMCA 아시아문화센터	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형)	다문화교육, 다문화축제 진행
	주식회사 희망교육	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형)	인성교육프로그램 학술지원
	주식회사 문화와사람들	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형)	문화행사및 공연
	문아트컴퍼니 주식회사	사회적기업 (기타(창의.혁신)형)	연극단체, 행사대행,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양산 (2)	(주)행복한나눔	사회적기업 (혼합형)	보육서비스 및 정서지원서비스
	주식회사 엠크릿	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형)	오락문화체육
고성	주식회사 땡스클레이	사회적기업 (사회서비스제공형)	도자기제조, 도자기체험프로그램, 문화 공간 운영
산청	(주)엔티코리아	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형)	PP백 제조, 판매
거창	유한회사 자연향	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형)	천연비누, 양초

② 협동조합_사회적협동조합

시군	협동조합명	유형	주요 사업내용
창원 (23)	더불어꿈꾸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 운영
	진해 문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진해근대문화유산 투어 및 체험사업, 소사마을 체험 및 축제행사
	Teach For Gyeongnam (티치포경남)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방과후교육사업
	더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회적협동조합 한들산들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마을문화 활성화 사업
	사회적협동조합 애기똥풀	사회적협동조합	커뮤니티 교육 공간 운영, 맞춤형 돌봄 운영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을담다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교육문화사업, 마을돌봄 및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사업, 마을교육공동체 컨설팅 사업, 교육출판 사업

시군	협동조합명	유형	주요 사업내용
	미쉬매쉬창의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코딩 교육 및 체험 학습 사업, 창의 융합 캠프 사업, 진로체험 캠프 사업
	경남바른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꿈숲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복지전문업 운영사업
	꿈자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책놀이 프로그램 운영사업
	경남대학교조이스쿨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 대한 교육 위탁사업
	사회적협동조합 창원문화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실천
	새미래행복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학교 안팎 교육사업, 환경생태에너지 기후변화 관련 교육사업
	사회적협동조합 아토피창의아카데미	사회적협동조합	방과후 위탁사업
	사회적협동조합 위드교육문화센터	사회적협동조합	교육위탁사업
	꿈키움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방과후학교 운영사업
	모두의교육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학교안, 학교밖 교육사업, 환경생태 교육사업
	아이사랑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방과후학교 위탁사업, 돌봄교실 위탁사업
	미래교육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방과후학교 및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운영 및 위탁사업
	방과후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방과후교육 위탁사업
	가르치는 사람들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방과후학교 위탁사업
경남행복한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방과후학교 위탁사업	
진주 (3)	비봉새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돌봄 및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적협동조합 사나래	사회적협동조합	돌봄서비스 제공사업
	숲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유아, 어린이, 청소년 대상 숲교육
통영	K뮤지컬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교육 뮤지컬 제작 및 공연사업

시군	협동조합명	유형	주요 사업내용
사천 (2)	서포마을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서포마을학교 운영 사업
	최진한축구교실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 희망축구교실
김해 (7)	이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방과후돌봄사업
	큰나무자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돌봄
	길생태체험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생태체험교육 교재 및 교구 개발사업, 숲생태 관련 교육사업
	사회적협동조합 김해문화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실천
	꿈튼튼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회 축구 드림리그 및 자체 리그 경기 개최
	좋은사람바른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참바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방과후학교 위탁사업(교육서비스사업)
거제	거제주니어FC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거제유소년축구교실 운영사업, 지역 축구 유 망주 발굴 육성사업 등
양산 (3)	양산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산림교육, 숲체험
	사회적협동조합 평화를 잇는사람들	사회적협동조합	지역교육사업
	나눔과배움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방과후 학교 위탁사업
함안	사회적협동조합 아시랑	사회적협동조합	교육, 문화예술
하동	지리산문화예술 사회적협동조합 구름마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상가 활성화 사업
합천	사회적협동조합 합천지역자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교육, 돌봄

③ 협동조합_일반협동조합

시군	협동조합명	유형	주요 사업내용
창원 (18)	나누리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반려동물, 생활원예체험사업
	자이언트작가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저자강연회 및 강연활동사업, 독서캠프 및 독서문화 확산 컨퍼런스 운영사업
	다원미래교육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학교 방과후 교실 운영사업
	행복다문화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외국인주민 아동들을 위한 방과후 돌봄사업, 다문화 나라별 문화체험 및 교류사업
	나눔복지지원센터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아동복지법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 및 청소년에 관한 사업
	소셜커뮤니케이션센터 소통과 대안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어린이, 청소년, 성인 대상 민주시민교육 기획·진행 및 행사 대행
	경남재난안전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소방안전교실, 재난안전교실, 지진안전교실 등 교육 및 체험학습 사업, 재난, 안전 관련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및 놀이시설 사업, 재난, 안전 관련 박물관 사업
	협동조합 느티나무공방	일반협동조합	체험활동 등 각종 서비스 사업
	창원지역사회개발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지역주민 및 각급학생을 대상으로 개별프로그램에 의한 교육 및 훈련사업
	100년벚꽃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벚꽃 관련 물품을 생산, 판매하고 체험하는 사업, 벚꽃관련 캐릭터 상품을 생산, 판매하고 체험하는 사업
	심마니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책놀이 프로그램 운영사업
	창원손길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아이돌봄지원법에 의한 아이돌봄지원사업, 돌봄사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사업
	에스빠스리조트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에스빠스 리조트(상영관경 공연장, 전시실 겸 미니 컨벤션, 휴게실, 게스트하우스, 옥상 텃밭), 문화·예술·관광 및 인문사회 관련 프로그램 기획 및 조직
	콩코디아글로벌 & 꿈키움교육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방과후 학교사업
	더좋은교육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초·중·고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및 인력 파견
	경남산림교육전문가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숲해설 및 체험 교육사업
	꽃향기 한잔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꽃차 체험학습 및 교육사업
	경남교육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공동구매(식자재, 교재, 용품)사업

시군	협동조합명	유형	주요 사업내용
진주 (9)	그린정원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공간 운영사업 그룹 단위의 체험 패키지 사업 테마형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 각종 공연 등 소통 프로그램 운영사업
	에나강남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체험 교육사업(문패 만들기, 하웨, 골목투어)
	진주농자학교 놀고재비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놀이문화교육사업, 놀이용품 임대 및 보급사업, 놀이체험프로그램 운영, 마을놀이터 운영사업
	등제작예술촌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등제작 교실 운영
	두번째학교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방과후 학교 교육 및 위탁 사업
	부자기(氣)체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부자기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자연동네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체험농장, 주말농장, 생명과학 체험교육
	비전교육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방과후 교육
	엄마는 과학자 창의양성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과학관련 체험활동 사업
통영 (7)	아이바다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환경교육을 통한 바다쓰레기 문제해결과 환경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교보재 제작
	봉암몽돌여행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어촌체험관광업
	해마마을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해양생태 관광 체험사업
	통영 미륵도스테이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통영 관광 프로그램 운영사업
	통영쪽빛감성학교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테마여행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자체가 용역하는 팸투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문해교육, 여행, 독서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년문화예술협동조합 다음	일반협동조합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공연 및 이벤트 시행, 기획에 관련된 사업, 전통무예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 및 훈련 사업, 전통의상, 소품 제작 및 판매, 임대를 위한 사업, 지역의 특색과 전통을 결합한 문화여행 기획사업
	통영나전웃칠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교육용 모형제조, 교육 및 체험활동
사천 (3)	사천주택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어린이집,보육시설 등 공동운영사업
	요리조리아시아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국내외 체험학습 사업-이주민,다문화 가족대상 체험 서비스 사업
	사천대포전어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사천대포어촌체험마을 사업

시군	협동조합명	유형	주요 사업내용
김해 (16)	노리꿈다락방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방과후놀이사업, 문화예술관련사업, 미술심리치료, 음악심리치료, 돌봄사업
	모단공예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체험교육사업
	경남도예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도자기체험 교육사업
	모드니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지역사회 영 유아 돌봄사업, 다문화가정 한글 지도 및 정서지원사업
	대동꽃간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놀이문화교육사업
	부모시니어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아이들 돌봄이 사업
	경남소셜비즈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진로직업 등 체험학습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사업
	교육문화미디어공동체 봄앤봄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지역민을 위한 문화교육사업
	공동육아협동조합 바라쿵	일반협동조합	손주보듬 돌봄지원센터
	가야랑 교육나눔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교육사업
	두비드림 마을교육공동체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진로/학습 찾아가는 클래스사업, 캠프사업
	똑딱똑딱 마을목수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건축, 목공예 체험
	놀이문화교육공동체협동조합 놀라잡이	일반협동조합	지역민을 위한 놀이문화교육사업
	헬스키퍼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어린이 캠프-캠프 및 체험활동
	고담쪽물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녹차 체험활동
	금바다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마을도서관
밀양 (2)	미리미동국문화예술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문화예술체험사업, 체류형 관광 문화사업
	놀이협동조합 얼음땡	일반협동조합	지역민을 위한 놀이문화교육사업
거제 (2)	거제시민관광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거제관광사업
	거제관광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관광레저사업
양산 (6)	해봄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방과후사업
	놀이문화교육공동체가치노리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지역민을 위한 놀이문화교육사업, 놀이용품 임대 및 보급사업, 놀이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 마을놀이터 운영사업
	그림혜움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환경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 교육 및 체험서비스 사업
	해피아이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아이돌봄 서비스사업
	양산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시군	협동조합명	유형	주요 사업내용
	효종돌봄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돌봄사업
함안	협동조합 악양굿간	일반협동조합	마을노천 카페사업, 마을 박물관개장 사업
창녕 (3)	우포늪기리기마을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우포늪 기리기마을 체험관광 사업
	우포감동공간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우포늪체험 및 교육사업
	세계청소년학교교육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방과후 교육사업 등 교육서비스
함양 (7)	함양옹주아트밸리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문화예술 체험 사업
	건축공방지음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참여형건축교실, 건축문화체험사업
	웰니스관광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향노화 웰니스 관광투어, 취약계층 웰니스투어 및 체험 서비스
	함양미디어센터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미디어교육사업, 교육 캠프사업
	큰밭생산자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체험관광 운영사업
	함양농촌체험문화연구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체험학습운영 사업
	함양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레저스포츠 체험 산업, 농어촌 체험 사업
거창	두레누리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아동 청소년 돌봄 및 상담서비스 지원 사업
합천	들꽃천연염색이야기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천연염색 전통생활문화 체험사업

④ 마을기업

시군	마을기업명	유형	주요 사업내용
창원 (2)	(사)문화두레 어처구니	마을기업	각종 문화행사 기획 체험
	창동라온빛 협동조합	마을기업	예술체험(공예품)
진주	광제산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농촌체험 운영
김해	소담공방협동조합	마을기업	실버도자기 제작 교육
밀양	백산두레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농촌문화체험학교 운영
거제	(주)대다자율관리공동체	마을기업	유람선, 어촌체험마을 운영
양산	(주)행복을더하는공동체 별다래	마을기업	창의체험활동 지원
의령	자굴산권역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망개떡 체험가공 및 찜질방 체험
창녕 (4)	모산양파정보화마을회	마을기업	토핑알찬맘 가래떡 건조장 및 체험시설 확충
	창녕우포생태관광체험마을회	마을기업	우포신당마을 말밤공예
	집속의집우포늪감동공간	마을기업	우포늪 생태체험 게스트 하우스 및 환경도서관
	낙동강 남지 유채마을	마을기업	낙동강변 자전거 대여 사업

고성 (3)	무지돌리아토피캠프	마을기업	아토피 치료 캠프 운영
	상죽암예술촌운영위원회	마을기업	문화예술 체험, 교육
	청광새들낙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친환경 농산물 방앗간 운영, 농업체험
남해 (6)	독일마을행복공동체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독일마을 체험
	문항마을영어조합법인	마을기업	어촌체험
	해울림체험마을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해울림 안심 농산물(고사리, 표고버섯) 수확체험 활성화
	두모마을기업 해양레저	마을기업	카약 및 카누체험
	보물섬왕지등대마을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어촌체험
	농업회사법인화계마을앵강만(주)	마을기업	앵강만 수확체험
하동 (2)	산골짜기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곤충사육을 통한 체험장 운영
	하동북천코스모스메밀꽃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북천 양귀비 축제 및 코스모스 축제 개최
함양	함양물레방아떡마을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메주제조 체험
거창 (2)	빙기실농촌체험휴양마을	마을기업	체험 운영
	가남정보화마을	마을기업	허브 족욕 테라피 체험

■ 돌봄서비스(급·간식 관련) 활용가능한 사회적경제 기업

① 사회적기업

시군	기관명	유형	주요 사업내용
창원 (6)	해피푸드 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형)	도시락
	사회복지법인 아그네스복지재단 행복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형)	김치 제조
	(주)참다올푸드	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형)	구내식당 운영
	주식회사 조은인푸드	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형)	도시락 제조유통사업, 농수산물가공업
	유한회사 떡고물	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형)	휴게음식
	유한회사 서화	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형)	농산물, 수산물 유통, 식품 도소매
진주	밀알영농조합법인	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형)	농산물, 농산물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사천	사천시 친환경 생산자 영농조합법인	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형)	농산물, 식품판매업
김해 (5)	통 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형)	다문화 카페 운영
	착한농부 영농조합법인	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형)	농산물
	주식회사굿농농업회사법인	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형)	농산물(유통,가공,판매), 농산물가공
	(주) 대동농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형)	꿀, 건강식품, 꿀가공
	사단법인 행복1프로나눔재단	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형)	양곡 및 식자재, 조리음식, 발효반찬
양산 (2)	(주)이레우리밀	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형)	국수 제조 및 판매업
	유한회사 클린앤푸드	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형)	식당운영, 도시락 배달
함안 (2)	에덴 영농조합법인	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형)	농산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경남파밍하우스	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형)	농산물 생산, 농산물 유통, 판매
창녕	영농조합법인 창녕로컬푸드	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형)	지역농산물 판매

시군	기관명	유형	주요 사업내용
하동 (3)	주식회사 에코맘의산골이유식 농업회사법인	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형)	이유식 제조업, 농식품 도소매업
	사나래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	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형)	농특산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자연향기	사회적기업 (지역사회공헌형)	식품제조, 가공업(농산물), 식품제조(차, 다류), 농산물, 수산물
산청	신품영농조합법인	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형)	농작물, 약초농업, 약초가공, 모종, 농작 물 도소매
거창 (2)	농업회사법인(주)올빛	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형)	떡 제조, 카페 운영
	주식회사 청림식품	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형)	사과즙, 양파즙, 칩즙 제조 판매(벌크형 제품 포함)
합천	합천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	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형)	친환경 로컬푸드 판매

② 협동조합_사회적협동조합

시군	협동조합명	유형	주요 사업내용
창원	우리마을디자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도시락사업
진주	에이플러스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직매장을 통한 지역농산물 판매
김해	회현마을공동체 회현당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참기름 제조, 카페사업
밀양 (3)	동가리사랑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카페 운영
	밀양사랑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지역팜 센터 운영, 마을카페 운영
	가곡나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밥상 운영
거제	장승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카페 운영
양산	안다미로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학교매점 사업
함안	마을리더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농특산물 위탁판매사업
창녕	학바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지역특산물 판매사업
고성	예쁜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카페사업, 제과-제빵 사업
하동	지리산하동산초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산초 및 농특산물 생산유통
거창	거창공유농업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거창농산물 유통사업

③ 협동조합_일반협동조합

시군	협동조합명	유형	주요 사업내용
창원 (34)	경남농특산물금요생생마켓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각 지역특산물 판매사업, 과일 및 채소 판매사업
	효정문화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농특산물,전통식품,다국적식품,가공품 등의 구매, 생산,유통,판매사업
	학동마을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전통농식품 가공사업, 농산물 및 농식품 로컬푸드 직판 사업, 로컬푸드, 도농 직거래 및 유통 사업
	부경푸드트럭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식품관련 유통사업(공동구매)
	지에프케이 청년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육류(소,돼지,닭 등) 가공업, 가공된 육류제품의 도소매업, 음식업 및 이와 관련된 프랜차이즈 사업
	5670강터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도소매업, 영농사업
	경남한방꽃차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전통차 제다 및 재료가 되는 농산물 생산, 판매
	경남친환경·로컬푸드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조합원 생산품의 공동판매
	주남저수지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로컬푸드 판매사업, 농가레스토랑 사업, 휴게음식점사업
	경남로컬푸드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플러스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사업식자재 유통사업
	참일터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상품 소매업, 음식업,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제품 즉석 제조업
	떡맘들의수다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떡 제조사업,떡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
	진해부영이마을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창원시 진해구 특산물 생산 및 제조사업, 창원시 진해구 특산물 도소매업
	참두레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홍삼 등 건강식품 도소매업
	양촌여울캠프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간이식당 운영사업
	곰메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지역주민 텃밭 농산물 재배업 및 농산물 판매업, 농산물 이용 건강보조식품 제조 및 판매사업
	물,사람,메주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메주,된장,간장,고추장 제조 판매사업
	한국식&약자원연구소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약용 농임산물의 생산,건조,가공업-약용 농임산물의 도소매업 및 위탁판매
	남북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친환경 일반 농축산물 가공,유통사업 및 수출업(품질인증 포함), 친환경 일반 농축산물 유통 및 운송 사업, 친환경 일반 농축산물 재배유통,가공업-친환경 일반 농산물 가공, 제조, 포장판매사업
경남식자재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 식자재 납품사업	

시군	협동조합명	유형	주요 사업내용
	경남양파가공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양파생산, 가공 및 판매사업, 여주 생산, 가공 및 판매사업
	경남친환경생산자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 판매
	은누리 특농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씨감자 생산판매, 작물재배 및 가공판매, 산양산삼 등 약초류 재배 및 가공판매, 버섯류 재배 및 가공판매 등
	고상한 명서시장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농축산물 공동구매 및 공동판매 사업, 식자재가공품 판매사업
	특농농산3샘물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씨감자 생산판매, 작물재배 및 가공판매, 산양산삼등 약초류 재배 및 가공판매, 버섯류 재배 및 가공판매
	동마산시장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농수산물 공동구매사업, 농수산물 공동판매, 저장사업
	울타리특농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씨감자 생산판매, 작물재배 및 가공판매, 산양산삼등 약초류 재배 및 가공판매, 버섯류 재배 및 가공판매
	스토리푸드(Story Food)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반찬 등 먹거리 생산, 판매
	특농농산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씨감자 생산판매, 작물재배 및 가공판매, 산양산삼 등 약초류 재배 및 가공판매, 버섯류 재배 및 가공판매
	경남특수농업경영인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씨감자 생산판매, 작물재배 및 가공판매, 산양산삼 등 약초류 재배 및 가공판매, 버섯류 재배 및 가공판매
	창원맛집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지역사회 먹거리 특산물판매, 식자재 공동구매사업
	위드다감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농산물 생산 및 가공품 판매유통사업
	행복경남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도시락 유통사업
진주 (27)	참바른농부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농특산물의 가공, 제조, 판매
	협동조합 작은시선	일반협동조합	취약계층 및 교통약자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BF 시설을 갖춘 다목적 카페사업
	진주 지역경제활성화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농산물 도소매 판매업
	진주교방음식문화연구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공동판매 사업(진주교방음식)
	경남관광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식품가공업, 농,축산 가공식품 도소매업
	진주양계생산자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식용란 수집판매
	파머스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식품제조업 및 가공업, 가공 농수축산물 식품 도소매업, 식품잡화 판매업

시군	협동조합명	유형	주요 사업내용
	경남무인항공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농작업 수탁사업, 농약 도.소매 및 농산물 가공, 유통업
	진주청년상인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휴게음식업, 음식업, 음식접객업
	진주비단길청년물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전통시장 체험 관광사업
	안전먹거리관리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농, 수, 축산물 유통사업
	에나시티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음식점업, 조합원의 생산물 위탁판매, 농공산품 제작, 판매 및 유통
	예장진주노회 생산자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농축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를 통한 수익사업
	커피문화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농, 임산물 생산, 제조, 가공업, 농, 임산물 도소매업
	나눔로컬푸드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반찬, 즉석식품, 농특산물, 식품제조 및 판매사업
	허니드림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벌꿀의 수매 및 공동 판매사업, 양봉산물의 가공 및 공동판매사업
	진주나눔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식품유통 판매사업
	진주운돌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문화예술 및 관광사업(농축산물 가공판매), 산야초 가공판매
	풀걸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농산물(과수, 원예)가공체험 및 판매업, 전통음식 체험 교육, 장류 제조, 침구커텐, 기타 직물도매업
	경남약초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약초 판매에 관한 사업
	6차산업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특산물 매장 운영사업
	진주논개마을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식품 판매에 관한 사업
	특농미소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씨감자 생산판매, 작물재배 및 가공판매, 산양산삼 등 약초류 재배 및 가공판매, 버섯류 재배 및 가공판매 등
	협동조합 윤관	일반협동조합	조경수 생산 판매 유통업,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업
	나눔미약용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약초재배업, 가공업, 판매업
	행복서경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웰빙도시락 유통 및 판매사업
	진주우리먹거리협동조합 진주텃밭	일반협동조합	농산물판매사업
통영 (13)	명정골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지역특화 식품 즉석판매업, 지역특화 식품 제조 가공업, 지역특화 식품 도소매 및 유통판매업, 식품판매장 운영사업
	우도마을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지역특산물 가공 및 공동 판매사업
	온헬스케어통영거제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 및 유통업

시군	협동조합명	유형	주요 사업내용
	통영 불락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사업
	한국개체굴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조합원이 생산한 개체굴의 위탁판매, 지역 생산 수산물의 가공, 판매
	통영젓갈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통영지역 어패류를 활용한 젓갈 관련 제조, 통영 지역 어패류를 활용한 젓갈 관련 상품 판매 및 납품
	통영바다수산물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활어, 어패류, 굴 유통사업, 온라인 판매사업, 활어 운송사업
	양식사료 유통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수산물 유통 사업, 수산물 운송사업
	드림 통영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건어물 및 농수산물 판매업, 가공식품 및 공산품 판매업
	통그물수하식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수산물 도소매업 및 통신판매 사업
	멸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수산물 생산 및 가공품 판매유통 사업, 멸치 등 수산물의 공동구매
	통영생활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농수산물 온라인 직거래 사업공동브랜드 개발 및 판촉사업
	통영양어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수산물 축양업, 도소매업 및 통신판매사업
사천 (3)	사천 지역경제활성화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지역공동체, 농산물 도소매 판매업
	사천문화예술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비알콜 음료점업
	모아모아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교자만두 생산시설 구축, 총판 프랜차이즈 진행, 공동브랜드 개발 및 판촉사업
김해 (21)	무계현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참기름 생산, 판매 및 카페사업
	김해동상시장청년물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프리마켓사업
	행복한이동네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로컬푸드 매장 운영, 농산물 가공 생산
	경남청춘푸드트럭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푸드트럭사업
	어울림공방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열린카페 사업
	경남두채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우수한 종자콩을 계약 재배 및 구입 공급 사업, 두채류 가공 및 수출 사업
	다전마을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장군차 판매사업 및 장군차 카페 운영, 장군차가공 및 파생상품 가공사업 및 판매
	다운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음료, 떡류 제조판매
	슈퍼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카페사업, 음식유통업
	김해동상시장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농축수산물 도소매 사업, 식자재 및 음식류 도소매 사업

시군	협동조합명	유형	주요 사업내용
	부경상인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우(牛)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 및 이와 관련된 자재 및 부산물의 공동구매·입찰대행 등 상행위의 공동영업활동
	김해왕도문화마을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김해시 특산물 도소매업
	김해남산마을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김해시 특산물 생산 및 제조사업, 김해시 특산물 도소매업
	황칠파낙스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황칠 파낙스 식음료,식품 개발,제조 판매사업
	유앤아이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식자재 등 소비재 공동구매 사업
	한국아로니아중앙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농, 축, 임산물 유통사업
	영지발효식품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발효 식품의 신제품 개발 및 공동제조와 공동 판매사업, 농,수,축,임산물 유통사업
	회현마을공동체 회현당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참기름 생산 판매 및 카페사업
	가야마중물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친환경 식자재를 이용한 로컬푸드형 식당사업, 우리술 및 우리음식에 대한 체험 및 교육사업
	흙사랑 특농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씨감자 생산판매, 작물재배 및 가공판매, 산양 산삼 등 약초류 재배 및 가공판매, 버섯류 재배 및 가공판매
	김해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교류지원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각종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홍보 및 판매사업, 로컬푸드 및 농산물 꾸러미 사업
밀양 (4)	다랑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쌀 생산 및 가공 판매 사업
	밀양아리랑시장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농수산식품 관련 재료의 공동구매. 농수산식품 가공사업, 농수산식품 판매사업
	드림카 푸드트럭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푸드트럭과 관련한 식료품의 가공 및 공동 판매 사업, 지역 농수산물의 가공 및 위탁판매사업, 푸드트럭 운영사업
	행복밀양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웰빙도시락 유통 및 판매사업
거제 (7)	광리마을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수산물 관련 판매
	탑포마을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농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사업
	잔디밭골사람들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지역특산물 유통 및 판매사업, 농가 레스토랑 운영사업
	도장포어촌체험마을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수산물관련 판매 및 수익사업
	거제함께나눔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수산물 유통사업

시군	협동조합명	유형	주요 사업내용
	웰리브발전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증개업(식자재 도매업)
	거제해녀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해녀 등 조합원의 해산물 공동채취, 공동 판매 사업, 연근해어업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공동 판매사업
양산 (15)	세방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식품 등의 제조 및 도소매 판매
	양산남부시장청년물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도·소매업(양산남부시장청년물)
	카페나라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카페운영사업
	삼량문화마을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양산시 특산물 도소매업
	양산맘지역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양산시 특산물 도소매업
	신기한마을고고쟁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양산시 특산물 도소매업
	청명국사부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식품사업, 요식업
	수영로 비즈니스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농수산물 유통 사업
	남부시장울금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울금을 이용한 기능성식품 개발 및 전시, 판매, 울금 응용상품과 전통시장의 특산물의 꾸러미 사업, 지역특산물과 연계된 생산 및 가공 판매 사업, 지역로컬푸드 매장 운영
	행복나르미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양곡등 판매유통사업, 밀반찬 및 식사배달사업
	쌍포공동체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카페운영
	통도예술마을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실버카페운영
	함박웃음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조합간 건강 먹거리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파밀리아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제과, 제빵 판매사업
	빌리브유통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농수축산물의 도소매 및 유통사업, 급식 관련사업, 양곡판매사업, 제조사업, 가공사업, 정육사업, 기타 식품판매사업
의령 (3)	꾸러미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농산물꾸러미 상품개발사업
	만기푸드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농축산 관련사업- 곡물, 도토리 등 농산물 도소매 -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도소매업
	농부야놀자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각종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홍보 및 판매사업, 로컬푸드사업, 농산물 꾸러미 사업
함안 (3)	이령팜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지역농산물 생산 및 유통사업
	함안농부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농산물 생산 및 농산물 가공품의 공동판매 사업

시군	협동조합명	유형	주요 사업내용
	생농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농산물 생산, 가공, 친환경 농자재 생산 및 유통 판매장 등의 사업
창녕 (3)	박하향기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지역특산물 및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 등의 사업
	다소니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공예관련제품 및 꽃차 판매사업
	창녕우포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우수 농식품 가공 및 유통
고성 (3)	무학마을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마을카페 운영사업
	외산마을공동체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마을카페 운영사업, 산딸기관련 사업
	케이씨(kc)바이오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각종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홍보 및 판매사업, 농산물, 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유통산업
남해 (6)	관음포연꽃마을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농산물 재배 및 가공사업, 농산물 및 식품 유통 사업
	남해군농산물가공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농산물 가공사업, 농산물 및 식품 유통사업
	바래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1차 생산물 농업, 가공업, 카페운영
	화전별곡꽃잠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꽃차를 이용한 제조사업, 꽃차 상품의 도매 및 소매업
	남해상주동고동락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조합원이 생산한 친환경 농업, 임업, 어업 생산물 및 가공품 판매사업, 음식점
	남해봉성버섯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농축산물 재배, 가공 및 판매사업, 임산물 생산, 가공사업
하동 (7)	하동제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축산물 생산
	하동주민공정여행 놀루와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알선
	하동꽃매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발효식품 생산 및 판매사업, 농산물 판매사업
	슬로시티문화관광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슬로시티 차문화 활성화를 위한 차류 가공사업, 슬로시티 곡물, 과일 및 채소 기타 식료품 소매업
	항노화(Anti-aging)약초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약초 공동 출하, 가공 판매 등
	지리산 착한농부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조합원이 생산하는 친환경 농수산물의 공동 마케팅 및 판매사업
	하동슬로푸드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농식품 판매 및 온라인 유통
산청 (10)	산청로컬푸드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친환경 농산물 판매
	산청스마트팜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스마트팜을 기반으로 한 영농기술 공동연구, 공동 재배, 공동판매

시군	협동조합명	유형	주요 사업내용
	산청지리산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산야초 및 약초 등을 포함한 농·임산물 및 특용작물을 계약재배 또는 수매하여 그 가공제품을 생산·유통
	산청 지리산약도라지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약도라지 등 약초작물 재배와 판매사업, 약초와 채소 도소매업, 각종 농산물 재배, 가공, 유통, 판매
	경상청년창업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 사업
	한울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단감 등 과실작물 재배와 판매사업, 과실 및 채소의 도소매업 농산물 공동 생산, 가공, 공동 구매, 공동보관, 공동 배송
	경남귀농귀촌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농산물재배 및 가공 및 판매사업
	금당식품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장아찌 등 반찬 제조업, 떡류 및 한과류 제조업
	산청군지역공동체활성화교류 지원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각종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홍보 및 판매사업, 로컬푸드 및 농산물 꾸러미 사업 등
	다모듬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농산물 원재료 공동구매 사업, 농산물을 제조 가공한 제품을 판매하는 각 조합원의 협력 판매 사업
함양 (18)	지리산5959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쿠깅박스 꾸러미 정기배송 사업
	담다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농산물 재배 및 축산업, 농축산물 유통 및 판매업, 농축산물 제조 및 가공업
	백운산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백운초등학교를 개발하여 로컬푸드점 운영
	참사랑나눔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보이차 관련 프랜차이즈 사업
	지리산함양시장내 문광형시장으로 조성된 공동 판매장(카페) 운영, 조합원의 이익에 부합되는 사업(택배, 식도락, 특산물판매)	일반협동조합	
	산아래농부들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유기농 농산물 생산,가공,판매 사업
	함양미소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쌀빵 생산 및 유통사업, 잼 생산 및 유통사업
	구산범우리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농작물의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지리산물레방앗간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농산물 생산 및 생산기반시설 조성사업, 농산물 가공 및 제조 유통사업
	빈동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조합원 협동농장 운영 및 농산물 꾸러미 사업, 지역농산물 및 가공품 판매사업
	밀짚모자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농산물 재배 및 축산업, 농축산물 유통 및 판매업, 농축산물 제조 및 가공업
	함양군농촌마을관광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농축산물 도소매업, 기타 가공식품 도소매업

시군	협동조합명	유형	주요 사업내용
	함양지역공동체 교류지원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홍보 및 판매
	한국산양산삼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임산물 생산, 구매, 판매, 유통
	만세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안전한 먹거리 보급
거창 (17)	더케이청년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농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의 가공, 도소매
	거창웰니스관광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지역농산물 판매
	아날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친환경 카페사업
	거창농민가공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농산물 가공 및 식품제조업, 농산물 판매 및 유통사업
	거창군약초산업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약초 공동생산, 공판장 가공시설의 운영을 통한 판매유통사업
	거창농특산물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거창 농특산물의 유통판매
	거창한 한우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한우개량과 조합원 생선품의 판매유통사업 및 구매, 가공, 제조 등에 관한 사업
	금원산마을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농,수,축산물을 이용한 식품제조가공 및 유통
	거창누리보듬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지역먹거리운동에 관한 일
	중산마을기업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생산된 농산물 유통사업
	어인마을기업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생산된 농산물 유통사업
	숲옛마을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생산된 농산물 유통사업
	남산마을기업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생산된 농산물 유통사업
	달이실마을기업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생산된 농산물 유통사업
	대현마을기업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생산된 농산물 유통사업
	용당소마을기업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생산된 농산물 유통사업
	우혜마을기업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생산된 농산물 유통사업
합천 (3)	내일의밥상을만드는사람들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농특산물 및 가공품 유통사업
	합천새내기농부들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귀농인들의 유대강화 및 공동재배, 농산물의 공동생산, 출하, 가공, 수출에 관한 사업
	합천전통식품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전통식품(한과류, 떡, 음료, 주류, 장류, 김치, 반찬류, 절임류 등) 사업, 농림축산물을 이용한 원료생산, 가공, 유통, 판매사업, 미생물 균주를 이용한 생산, 판매사업, 육가공 사업

④ 마을기업

시군	기업명	유형	주요 사업내용
창원 (2)	곰메협동조합	마을기업	농산물 가공사업
	100년벚꽃협동조합	마을기업	농산물을 이용한 상품 가공 판매
진주 (3)	메밀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농산물의 출하, 가공, 수출
	지역순환경제사업단	마을기업	소농들과의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비실연꽃마을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농산물 가공 및 판매
통영 (4)	사랑도 섬마을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야콘, 야콘즙 생산 판매
	동피랑생활협동조합	마을기업	특산품판매
	욕지도할매바리스타 생활협동조합	마을기업	커피, 차, 특산물 판매
	함지화양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참숙식품 판매
사천 (3)	고읍단감정보화농촌체험 휴양마을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단감 가공판매
	소곡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된장, 간장 가공품 판매
	노루밭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감자, 절임배추, 감말랭이
김해 (2)	김해시지역공동체활성화교류지원 협동조합	마을기업	친환경농산물 유통
	무척사랑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카페운영
밀양 (6)	(주)농업회사법인 밀양연꽃마을	마을기업	연 제조, 가공식품 판매
	농업회사법인 꽃새미마을(주)	마을기업	약수미나리 재배 판매
	농업회사법인오치할머니 사과기업(주)	마을기업	사과즙 생산 판매
	단장면농업경영인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대추 즙, 대추 과자 제조, 가공 판매
	상동반시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반시감, 감말랭이 가공판매
	(주)밀양전통한과	마을기업	한과, 조청 및 참기름 제조, 판매
거제 (4)	거제농산물수출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유자를 이용한 빵, 차 제조 판매
	(주)거제전통메주	마을기업	전통메주 및 장류 제조 판매
	함목명품마을	마을기업	마을 로드카페 운영
	해금강동백보존회	마을기업	지역특산물 판매

시군	기업명	유형	주요 사업내용
양산 (4)	배내골사과정보화마을	마을기업	사과 판매
	영축산 지산마을 식품 영농조합	마을기업	장류, 두부, 도토리묵 제작 판매
	시루영농조합	마을기업	대규모 신도시 부근의 양산지역 농수산물 직접 판매사업
	초록농부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지역 농특산물 공동판매장 운영(미나리)
의령 (2)	콩사랑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마을에서 생산한 콩을 활용하여 메주 제작
	나루마을기업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농산물 및 판매업
함안 (7)	함안친환경안전농산물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친환경농산물 생산 판매
	아라씨앗드리공동체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친환경농산물 생산 판매
	함주곶감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곶감 생산 포장 판매
	강주문화마을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에너지바 생산 판매
	협동조합 약양곶간	마을기업	농산물 위탁판매
	하늘별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임산물 장아찌 생산 포장 판매
	입곡온새미로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미나리 생산 및 친환경농산물 판매
창녕 (3)	창녕지킴이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초석잠 재배 및 판매 유통사업
	옥천화왕산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버섯마을 조성
	한마음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양파 및 친환경농산물 위탁판매
고성 (3)	고성텃밭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계절별 유기농산물 꾸러미로 묶어 판매
	다래촌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참다래썰, 건취나물 등 농산물 생산,가공,판매
	정동유업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유제품 개발, 생산, 판매
하동 (4)	한구자리 채울	마을기업	식당
	마을기업옥종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친환경 농산물 생산소비 활성화 사업
	양보밤마을기업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지역 생산 밤을 활용한 가공 상품 판매
	예다곶감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곶감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산청 (7)	남사에담촌마을회	마을기업	된장, 고추장, 장아찌, 전통과자 제조 판매
	간디숲속마을 협동조합	마을기업	생강을 착즙하여 액상차 제조, 판매
	산청토종미꾸라지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미꾸라지 생산 사육, 가공, 판매 및 무 등 생산 판매
	민들레푸드(주)	마을기업	친환경 안심 먹거리 직접 생산 및 판매

시군	기업명	유형	주요 사업내용
	지리골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미나리 재배하여 미나리 즙 및 미나리 판매
	청정골곰돌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가래떡, 참기름, 두부, 고춧가루 제조 가공 및 판매
	석대마을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새싹 및 콩나물 재배하여 판매
함양 (5)	송전산촌생태마을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오미자(사과, 양파) 주스(액기스) 사업
	농업회사법인의외마촌 유한회사	마을기업	농산물 판매
	지리산창원마을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건채 잡곡류 판매
	큰가내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콩류 가공사업
	참생명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오미자 한과 제조 판매
거창 (8)	소사마을회	마을기업	무청 시레기 건조 판매
	소정마을청년회	마을기업	벼육묘 생산 판매
	거창오미자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오미자 생산 가공판매
	서편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고사리 미나리 공동재배 판매
	곰내미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사과발포와인, 포도와인, 과일즙 가공 판매
	양지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표고 재배, 방앗간 운영
	구지바우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사과즙, 배즙, 양파즙 등 농산물 가공 판매
	왓쇼이	마을기업	타코야끼 등 일본 서민음식 판매
	감국마을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참기름, 들기름 가공 판매
합천 (12)	하남양떡메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양파즙, 쌀떡국, 콩메주 판매 및 체험
	영농조합법인 도옥전통한과	마을기업	전통자갈한과 생산 및 판매
	영농조합법인 대평	마을기업	지역 들깨를 활용한 들기름 생산 및 판매
	황매산아래밤묵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지역에서 생산되는 밤을 활용한 밤묵 생산 및 판매
	영농조합법인 가호	마을기업	기능성 쌀 및 환제품 생산 및 판매
	영농조합법인 합천효심푸드	마을기업	지역콩을 활용한 재래식 된장, 간장, 메주 생산 및 판매
	영농조합법인 새싹	마을기업	친환경 보리 계약재배를 통한 엿기름 및 보리차 생산
	두레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친환경 고사리, 미나리즙, 양파즙 생산 및 판매

시군	기업명	유형	주요 사업내용
	황매덕촌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떡가래 등 가공 및 판매
	황매산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아로니아 생과 생산 및 즙, 분말가공 판매
	황매산장대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송화버섯 생산 판매
	대목두레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고구마, 토마토 가공 판매

⑤ 자활기업

시군	기업명	유형	주요 사업내용
창원 (2)	창원해밀장터협동조합	자활기업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해피푸드주식회사	자활기업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거창	한빛농장	자활기업	과실작물 재배업

2020년 경남교육정책 연구보고서

자체연구보고서 (9권)

발행일 | 2020년 12월 31일 인쇄
2020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원 장 이 영 주

기획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소 장 차 재 원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 육 연 구 사 박 영 식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 육 연 구 사 이 상 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 육 연 구 사 강 태 경

연구수행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책 임 연 구 원 위 미 나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책 임 연 구 원 정 연 흥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책 임 연 구 원 한 미 영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파 견 교 사 류 수 목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파 견 교 사 이 희 진

연구지원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 육 행 정 주 사 박 은 희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사 무 운 영 주 사 유 창 호

발행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51141) 경상남도 창원시 사림로 111번길 20
누리집: <https://gerii.gne.go.kr>
전화: (055)269-0777
전송: (055)269-0789

인쇄 | 단디(055-261-2920)

-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는 경남교육사이버도서관(<http://ebook-lib.gne.go.kr>)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